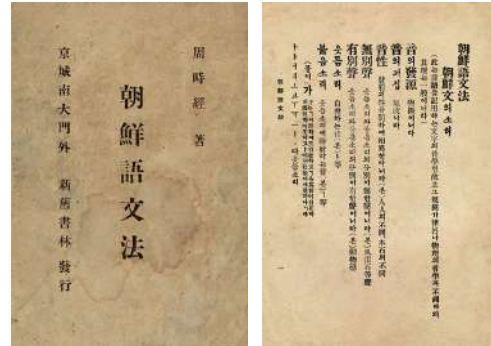


제7장 한글시대韓契時代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1911~193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911년 이후 1939년까지 발간된 아홉 종류의 한글교과서를 소개하고, 책에 사용된 한글서체를 인용하였다.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5.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8.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9.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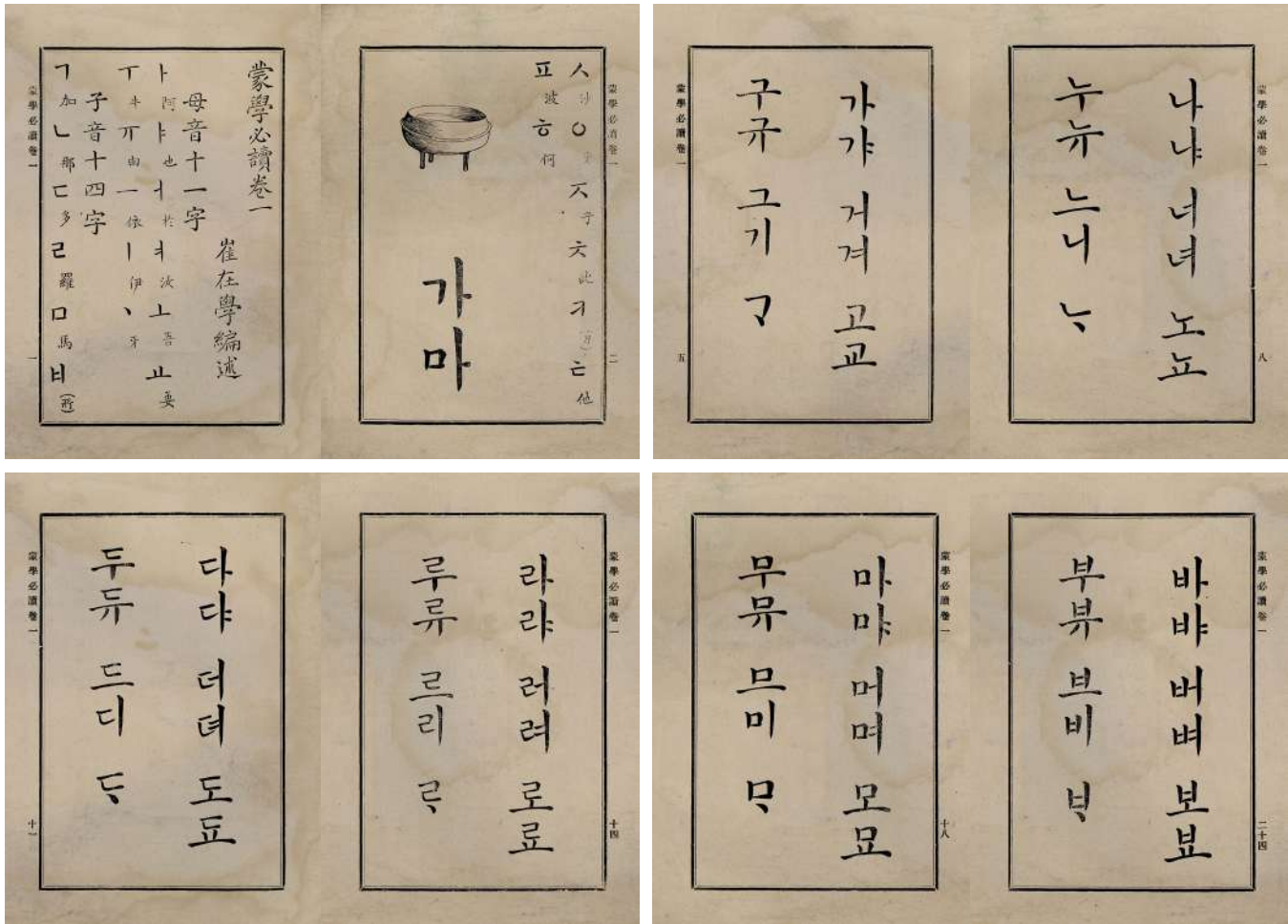


도판 7-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쪽

국어학자 주시경周時經(187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0년에 박문서관博文書館을 통해 간행한 국어문법서인 『국어문법國語文法』을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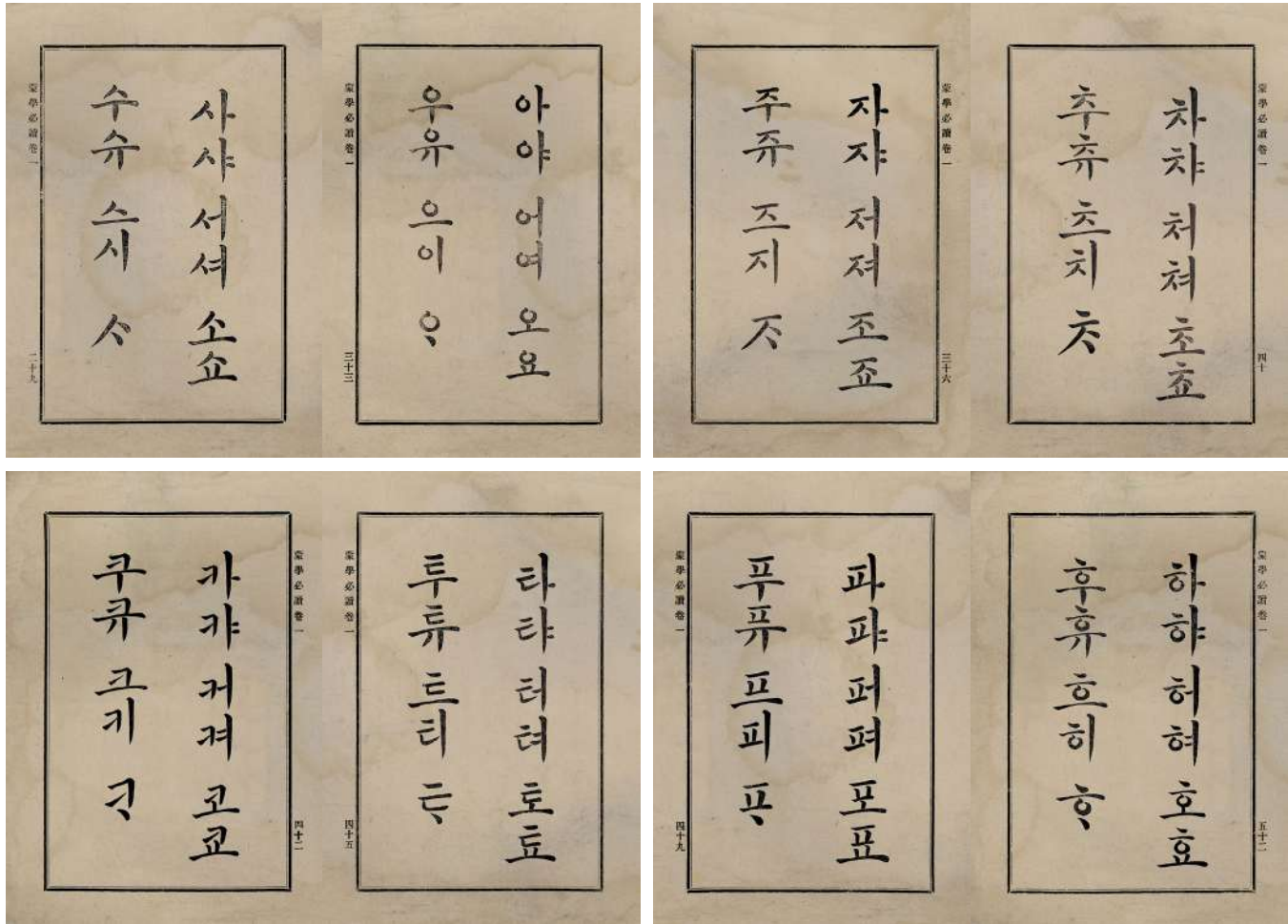
주시경은 책의 서문에서 말과 문자가 독립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그 필요성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보편 문법의 토대 위에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품사 분류론과 문장 구성론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 품사 분류론에서는 9 품사를 설정하였고 문장 구성론에서는 독창적인 도해법과 의미해석 이론을 전개하였다. 『조선어문법』이 『국어문법』과 다른 점은 품사를 의미하는 용어가 뒤의 책에서는 ‘기’인데, 앞의 책에서는 ‘씨’로 바뀐 사실이다. 이들 『조선어문법』은 ‘씨’라는 용어를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 책 가운데서 1913년의 『조선어문법』(재판)이 가장 오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朝鮮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도판 7-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1, 2, 5, 8, 11, 14, 18, 24쪽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도판 7-3.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29, 33, 36, 40, 42, 45, 49, 52쪽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말의 소리』는 우리나라 국어학과 국어 문법, 한글 맞춤법 연구의 기틀을 잡은, 지금의 한글학회를 있게 한 주시경 선생의 대표 저서의 하나이다. 1914년 신문관에서 석인본*으로 펴낸 이 책은 표지 포함하여 모두 72쪽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한자어 술어를 쉬운 우리말과 한글로 썼으며 음학音學에 대한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 문장부호와 달리 독특한 문장부호를 씀으로써 주시경 선생이 세운 독창적인 문법 체계 안에서 기능하는 문법 단위들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소리갈』을 원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체재와 내용이 잘 정리되었으며, 책의 끝에는 『훈민정음』, 『훈몽자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을 실고 그 끝에는 ‘씨난의 틀’과 한글 가로풀어쓰기 예문을 실었다.

『말의소리-한글학회』, hangeul.or.kr/homepage/custom/talksound

일제강점기 국어학자 주시경(187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4년에 간행한 국어 문법서이다.

1권 석인본은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음의 성질, 자음·모음의 분류와 배열, 자음접변, 자음·모음의 결합, 음절, 자음의 중화中和, 운소韻素, 그리고 습관음習慣音에 대한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말의 소리 부附」가 있는데 여기에는 『훈민정음』·『훈몽자회訓蒙字會』 등의 자료가 실려 있다. 그다음에 위의 자료를 간단히 해설한 「말의 소리 협입夾入」이 있다.

책의 끝에는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 이후에 전개된 주시경의 새로운 문법 체계의 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씨난의 틀」과 가로풀어쓰기의 예인 「우리글의 가로쓰기 억힘」이 덧붙여 있다. 음학音學에 대한 주시경의 여러 글과 비교할 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학에 대한 주시경의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

둘째, 체재와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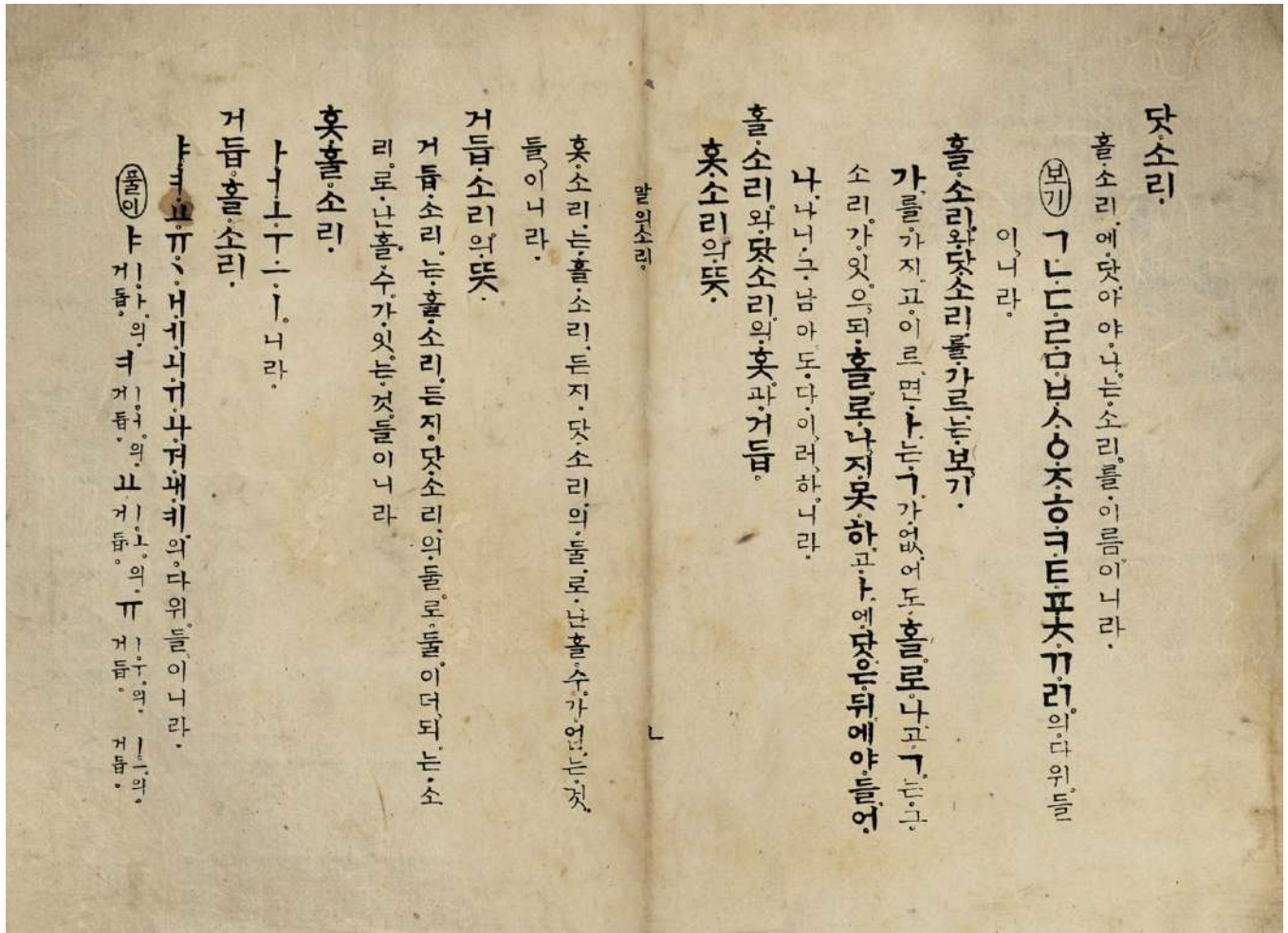
셋째, 『조선어문법』(재판)에 이르기까지 포함되던 『훈민정음』 등의 문헌 인용과 ‘, △, ㅎ’ 등 소실문자消失文字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점.

넷째, 한자漢字로 된 술어術語의 한글화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점과 부록을 제외한 전체 내용이 순한글로 쓰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의 대부분은 이 책보다 1, 2년 전에 유인油印된 것으로 생각되는 『소리갈』에서도 확인된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책은 『소리갈』을 원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체계화한 것이라 하겠다.

『말의소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7831

*석인본 石印本 : 석판 인쇄의 방법으로 찍어낸 책. 석판은 평판인쇄平版印刷의 초기 형태로, 처음에는 독일 바이에른 석회석을 이용하여 수용성 부분을 생기기 하고 그 부분에 유성잉크를 칠하여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독일인 제네펠더Senefelder,A.가 발명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석회석 대신 아연판·알루미늄판·플라스틱판으로 대체되었고, 사진 기술 발달로 사진석판술과 오프셋 석판술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석판술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세기 말의 개화기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cid=46669&docId=574798&categoryId=46669



닷소리.

홑소리에 닷아야 나는 소리를 이름이 나라.

(보기) 가 나 드 리 오 바 스 오 지 흥 크 E 푸 치 기 리 의 다 위 들

이 나라.

홑소리와 닷소리를 가르는 보기.

가 를 가 지 고 이 르 면 가 는 가 없 어 도 홑 소 리 로 나 고 기 는 그

소 리 가 잇 으 되 홑 소 리 로 나 지 못 하 고 가 에 닷 으 는 뒤 에 야 들 어

나 나 니 그 남 아 도 다 이 러 하 나 라.

홑소리와 닷소리의 홑과 거듭.

홑소리의 뜻.

말의소리.

홑소리는 홑소리 듣지 닷소리의 들로 남홑수가 없는 것 들이 나라.

거듭소리의 뜻.

거듭소리는 홑소리 듣지 닷소리의 들로 들이 더 되는 소 리로 남홑수가 잇는 것 들이 나라.

홑홑소리.

가 나 드 리 오 바 스 오 지 흥 크 E 푸 치 기 리 의 다 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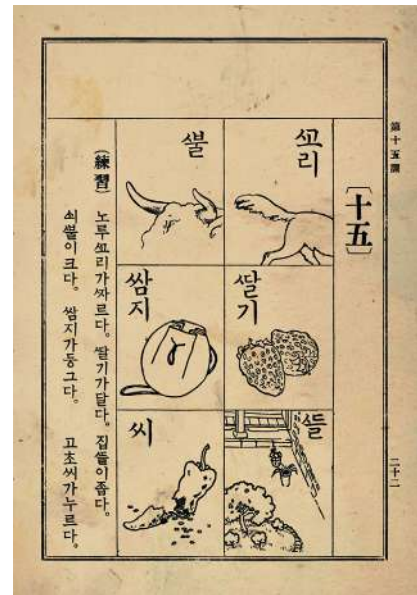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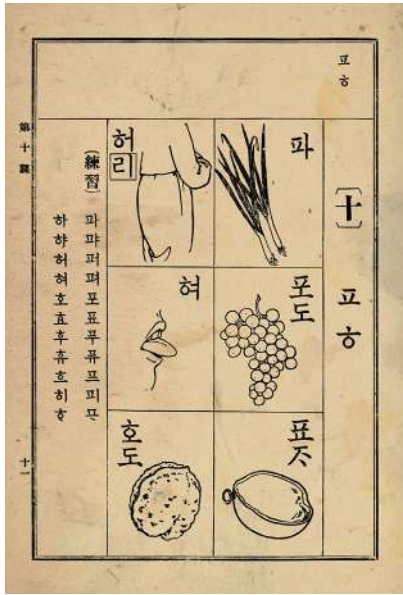
거듭홑소리.

가 나 드 리 오 바 스 오 지 흥 크 E 푸 치 기 리 의 다 위 들이 나라.

(풀이) 가 나 드 리 오 바 스 오 지 흥 크 E 푸 치 기 리 의 다 위 들이 나라.

도판 7-5.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ㄴ쪽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도판 7-6.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9, 11, 14, 15, 21, 22쪽

5.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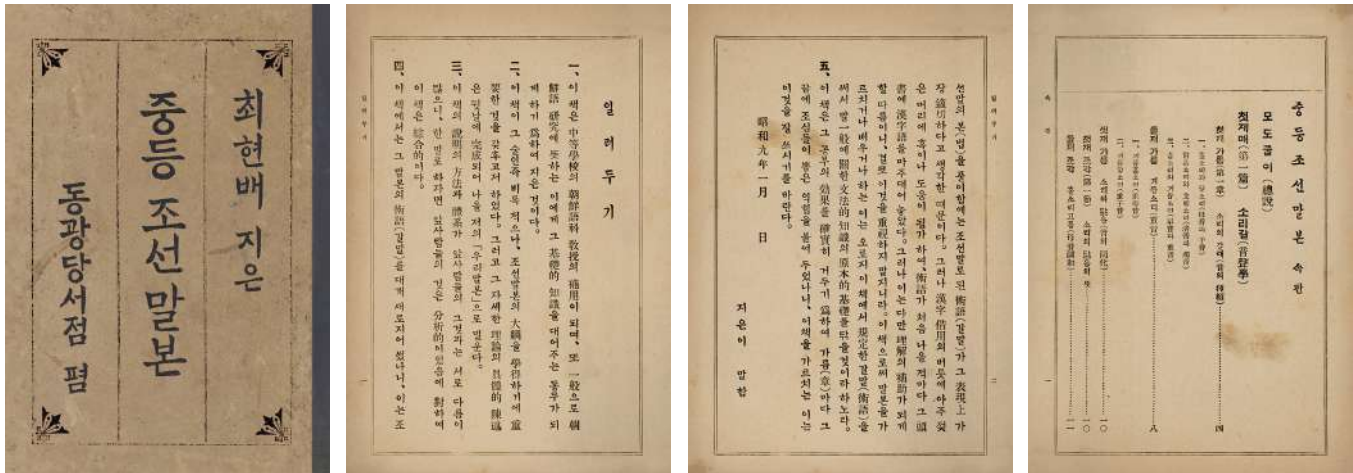
도판 7-7.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21, 25, 29, 31, 32, 43쪽

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도판 7-8.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0, 13, 15, 16, 23, 24쪽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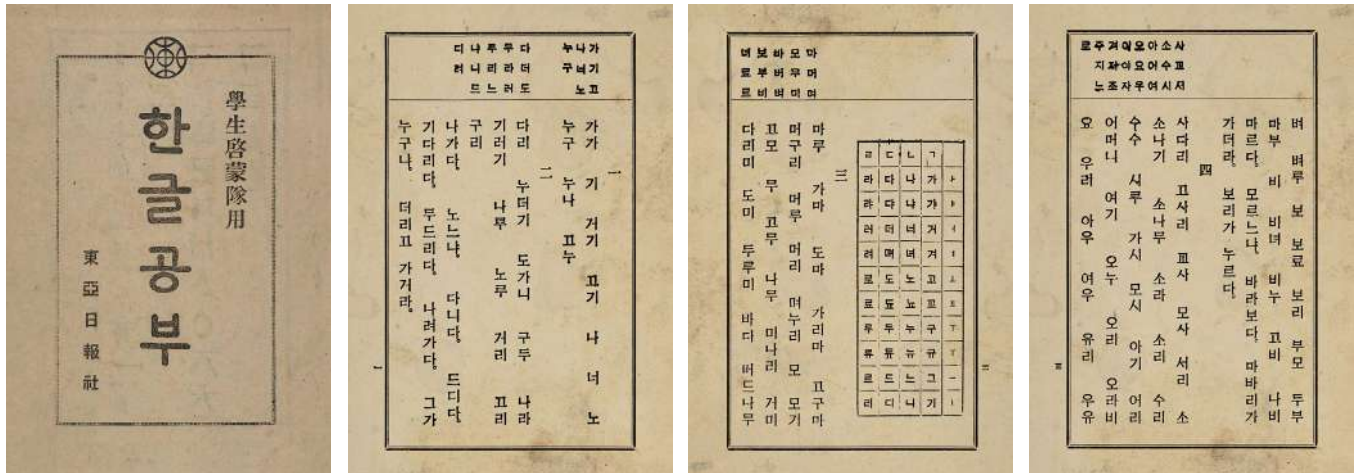


도판 7-9.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일러두기 1, 2쪽, 속판 1쪽

1934년 국어학자 최현배(1894~1970)가 중등학교의 국어문법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로 1934년 4월 5일 동광당서점에서 발행하였다. 『중등조선말본』은 본래 최현배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낸 책이다. 당시 한반도 안에서는 물론이고 만주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된 문법 교과서이다. 최현배 개인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기념비적 저서인 『우리말본』(1937)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교과서이기도 하다. 『중등조선말본』은 문법의 용어(術語)를 기존과는 다르게 고유어로 새로 지어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전의 우리말 연구 방식이 분석적이었음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종전從前의 방식이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분석적 입장이었음에 비하여 이 책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절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최현배 개인이 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193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등조선말본』(1934)은 처음 나온 지 5개월 만에 재판권을 찍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1938년 6월에 제4판을 찍으면서 개정판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광복 후 1945년에 이 개정

판의 지형을 써서 정음사에서 다시 간행하여 해방 공간에서 중등학교의 문법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조사를 단어로 보는 절충식이 정립된 것은 이 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조선말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매[第一篇] 소리갈[音聲學], 둘째 매 씨갈[品詞論], 셋째 매 일갈[文章論]이다. 즉 ‘음성학, 품사론, 문장론’의 3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품사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체 194쪽 가운데 150쪽을 할당하고 있다. 특히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 움죽씨[動詞], 어똥씨[形容詞], 잡음씨[指定詞], 어똥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歎詞], 토씨[助詞]’의 10개 품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토씨[조사]와 잡음씨[지정사] ‘이다’를 품사로 인정하는 것이 주목된다. 『중등조선말본』은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니라 광복 직후 해방 공간에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문법 교과서로 역할을 하였으며, 2016년 현행 학교 문법 교과서에도 기초를 놓은 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등 조선 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9263

8. 이운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도판 7-10. 이운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3쪽

1919년 3·1운동 이후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주시경의 제자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자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고 1931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글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의 체계를 세우고 보급하여 한글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글을 연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한글을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조선어학회와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브나로드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등보통학교와 전문학교 학생으로 세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학생계몽대는 고등보통학교 4, 5학년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으며 학생강연대는 전문학교 학생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 내역 등은 학생기자대의 원고로 기록되어 신문사로 보내졌다.

이 중 학생계몽대學生啓蒙隊에서 한글 강습 교재로 사용한 『한글공부』는 일제강점기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운재李允宰(1888~1943)가 집필하였다. 한글 자·모음과 단어, 짧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문장을 익힌 후에는 시조를 읊고 지리 및 역사 이야기를 읽게 하여 민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신하영,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한박웃음』, 제96호, 2021.8., www.hangeul.go.kr/webzine/202108/sub1_2.html

9.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도판 7-11.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4, 5, 11, 34쪽

제8장 한글시대韓契時代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911년부터 시작된 한글시대韓契時代의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14종류에서 사용된 서체는 1924년의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에 사용된 흘림체를 제외하면 모두 정자체正字體임을 알 수 있다.

습자첩習字帖, 1911년,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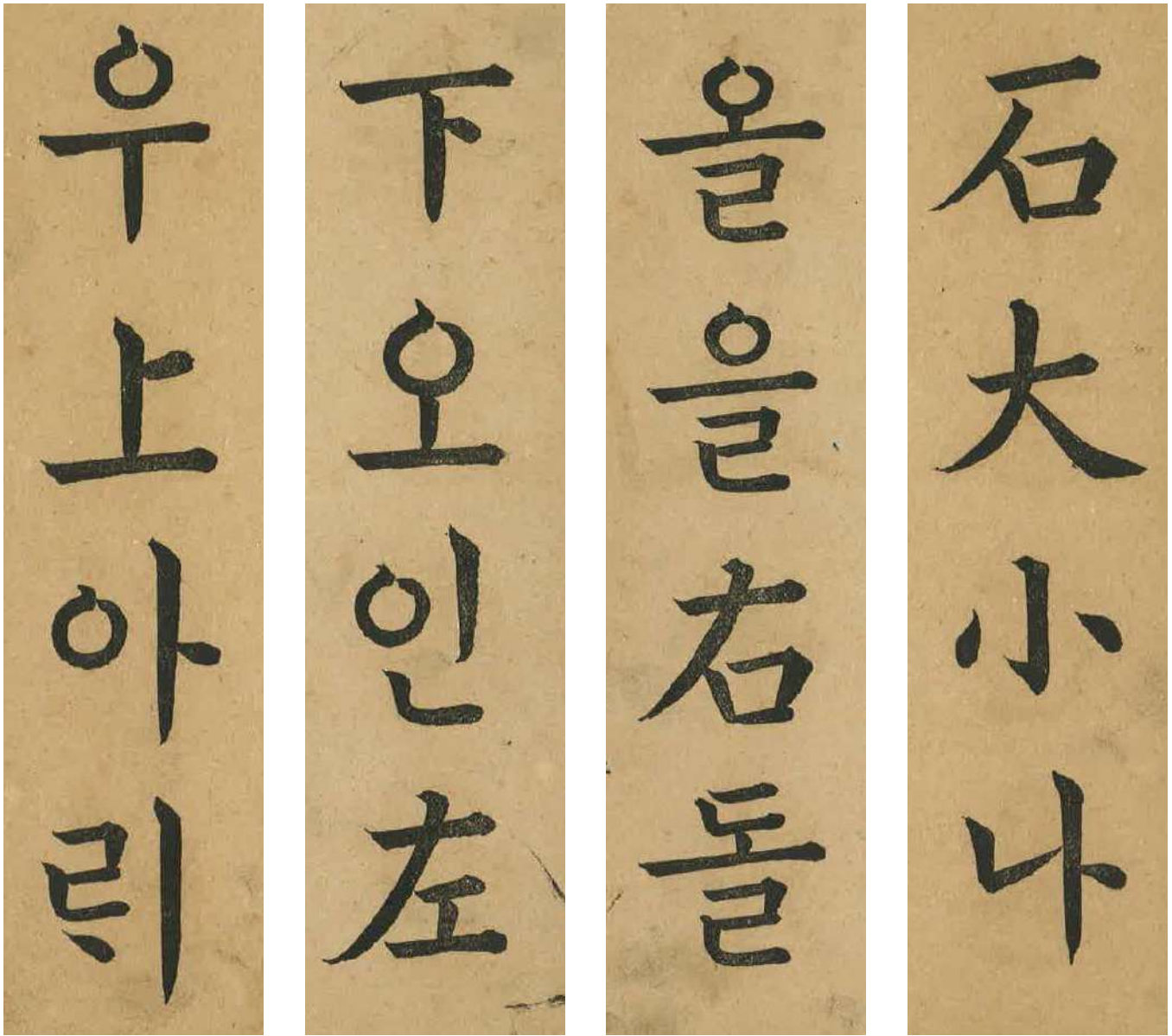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1924년, 1936년, 1937년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쓰기방법견본집書方手本에서 서방書方은 일본국어사전에 ‘카키카타’로 ‘쓰기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으나 서예에서는 서법書法으로 보는게 좋겠다. 수본手本은 ‘테혼’이라고 하여 일본에서 ‘본보기’를 의미하여 견본집見本集으로 보는게 좋겠다. 김지영, 개인 교신, 2023. 10. 22.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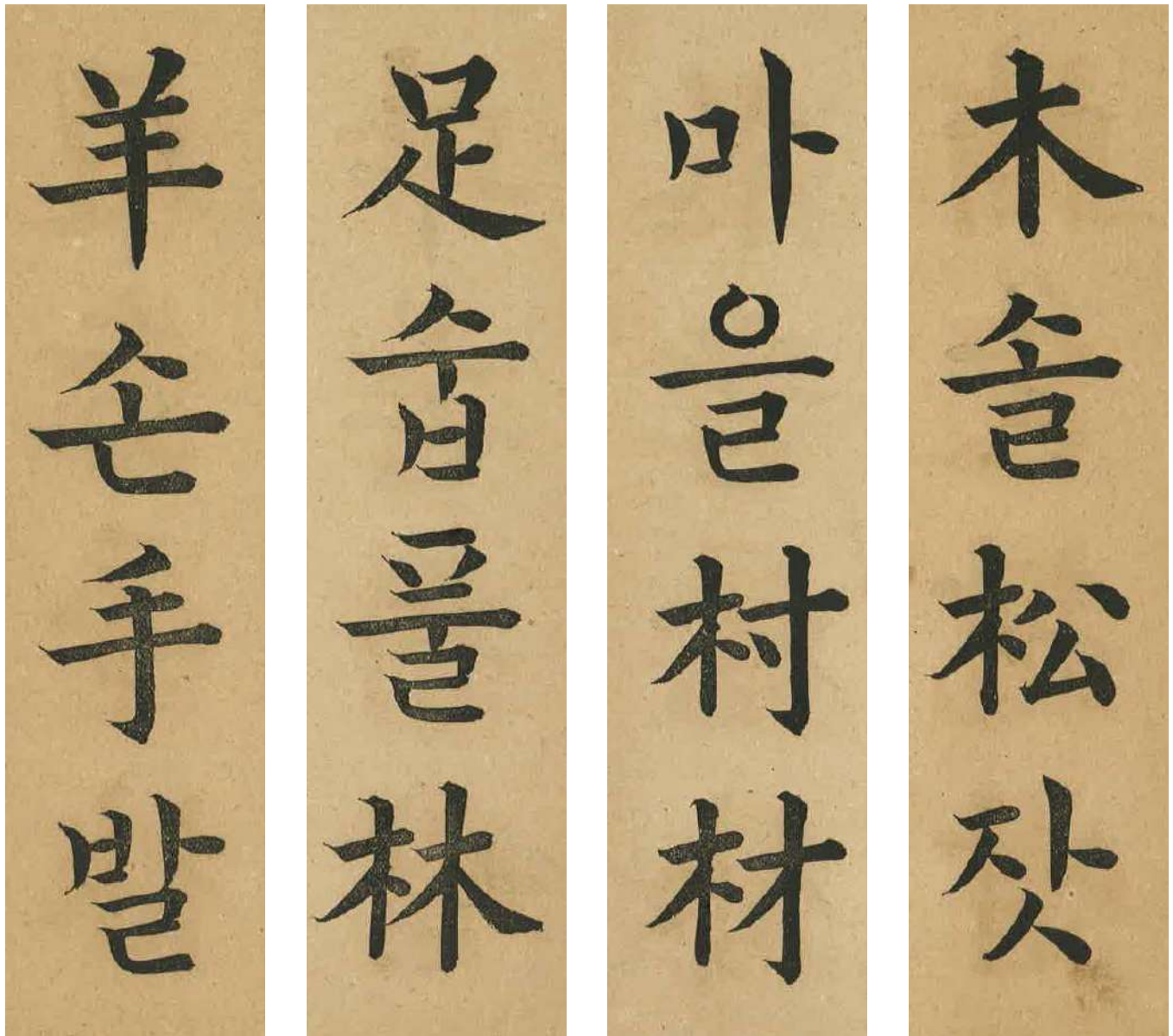


도판 8-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8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9~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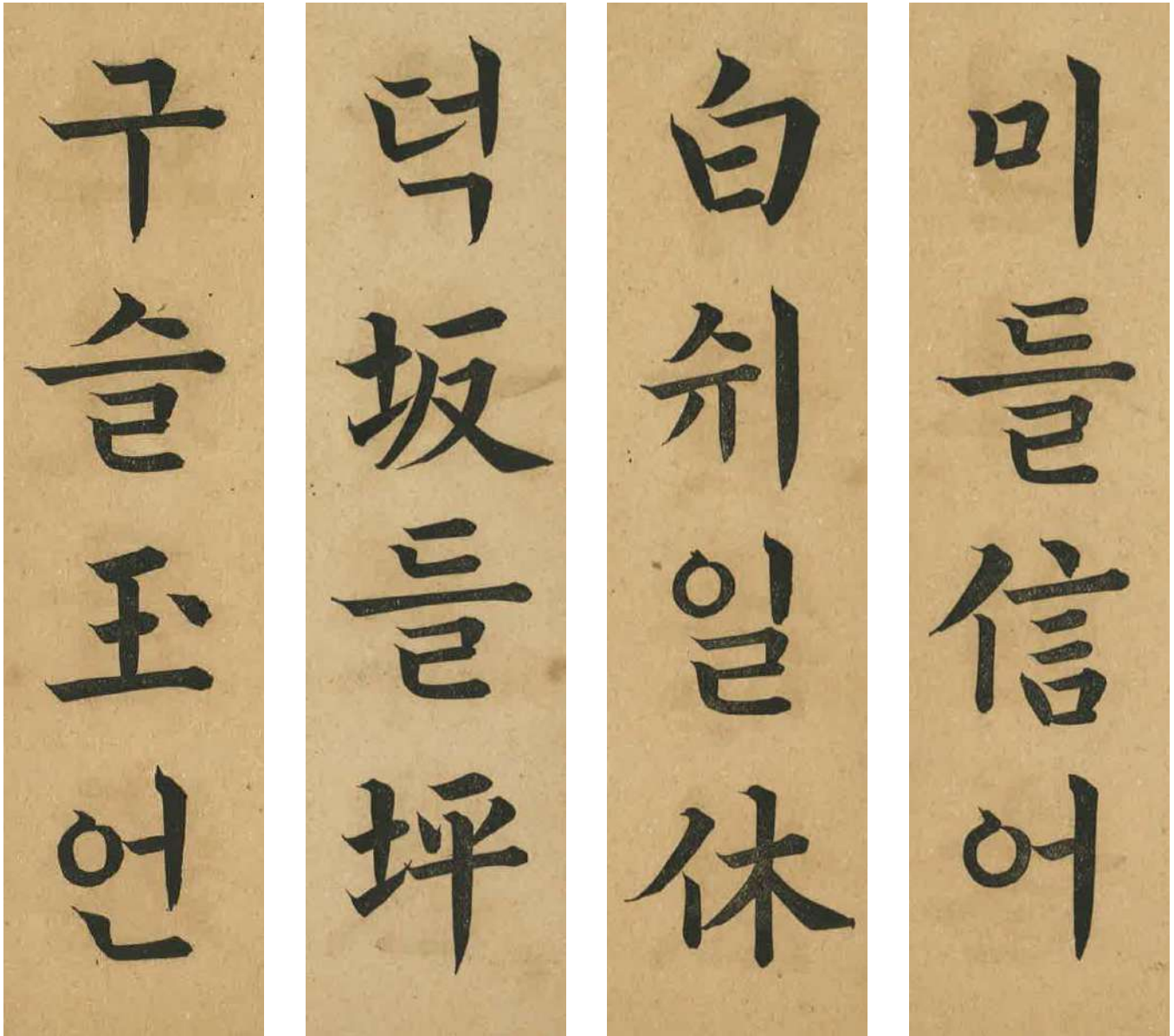


도판 8-4.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3~16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5.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7~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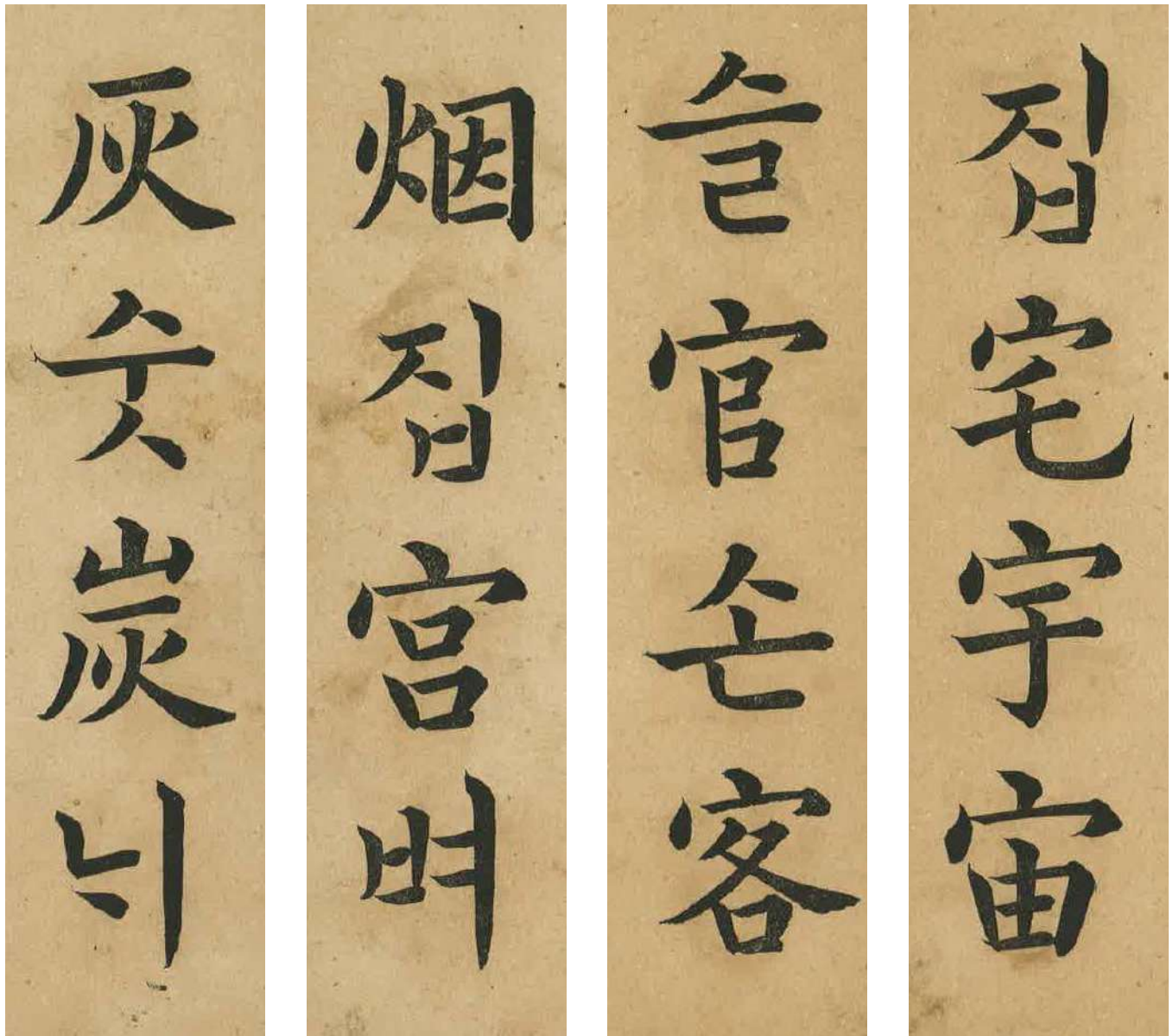


도판 8-6.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1, 22, 24, 25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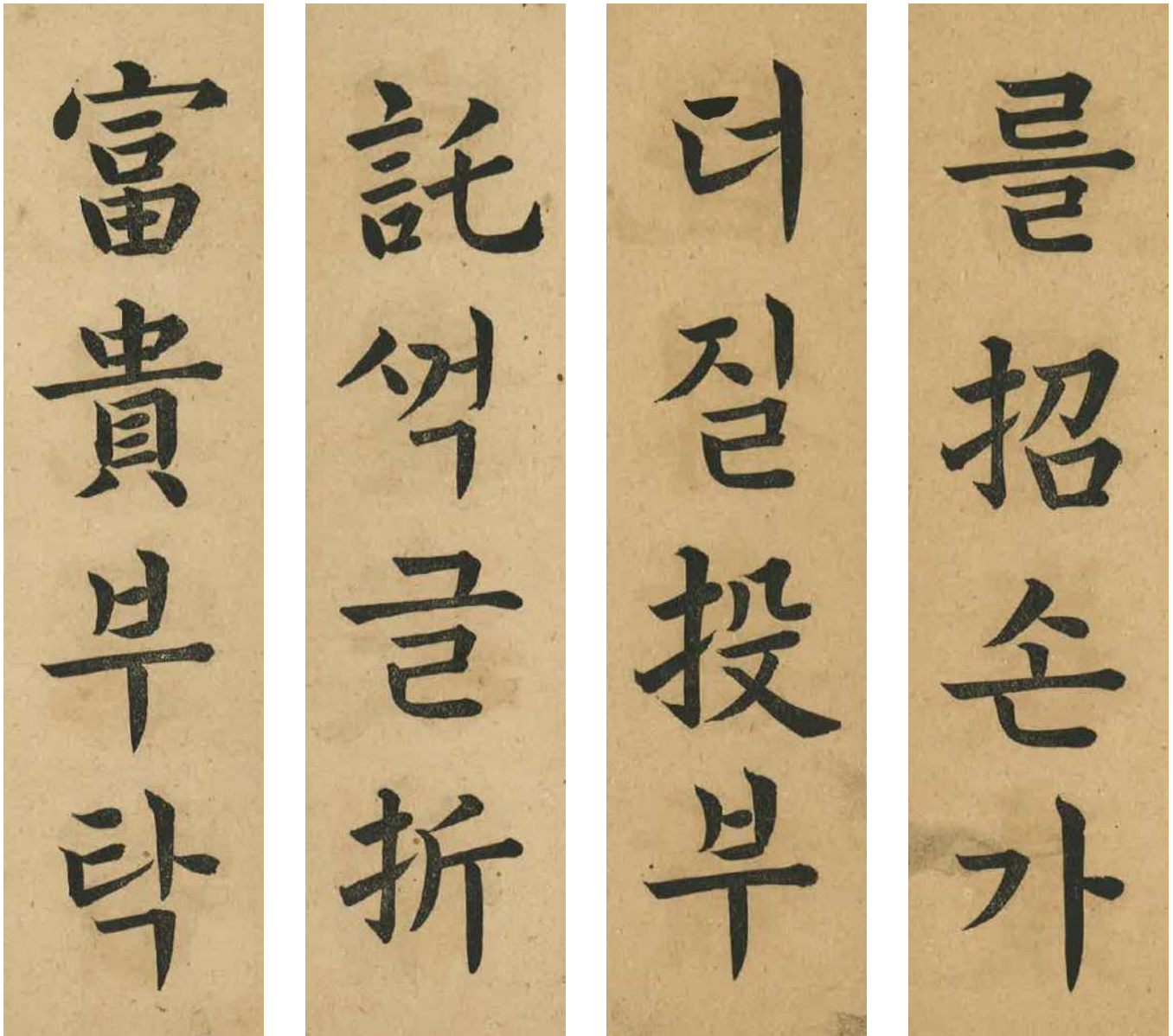


도판 8-7.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6~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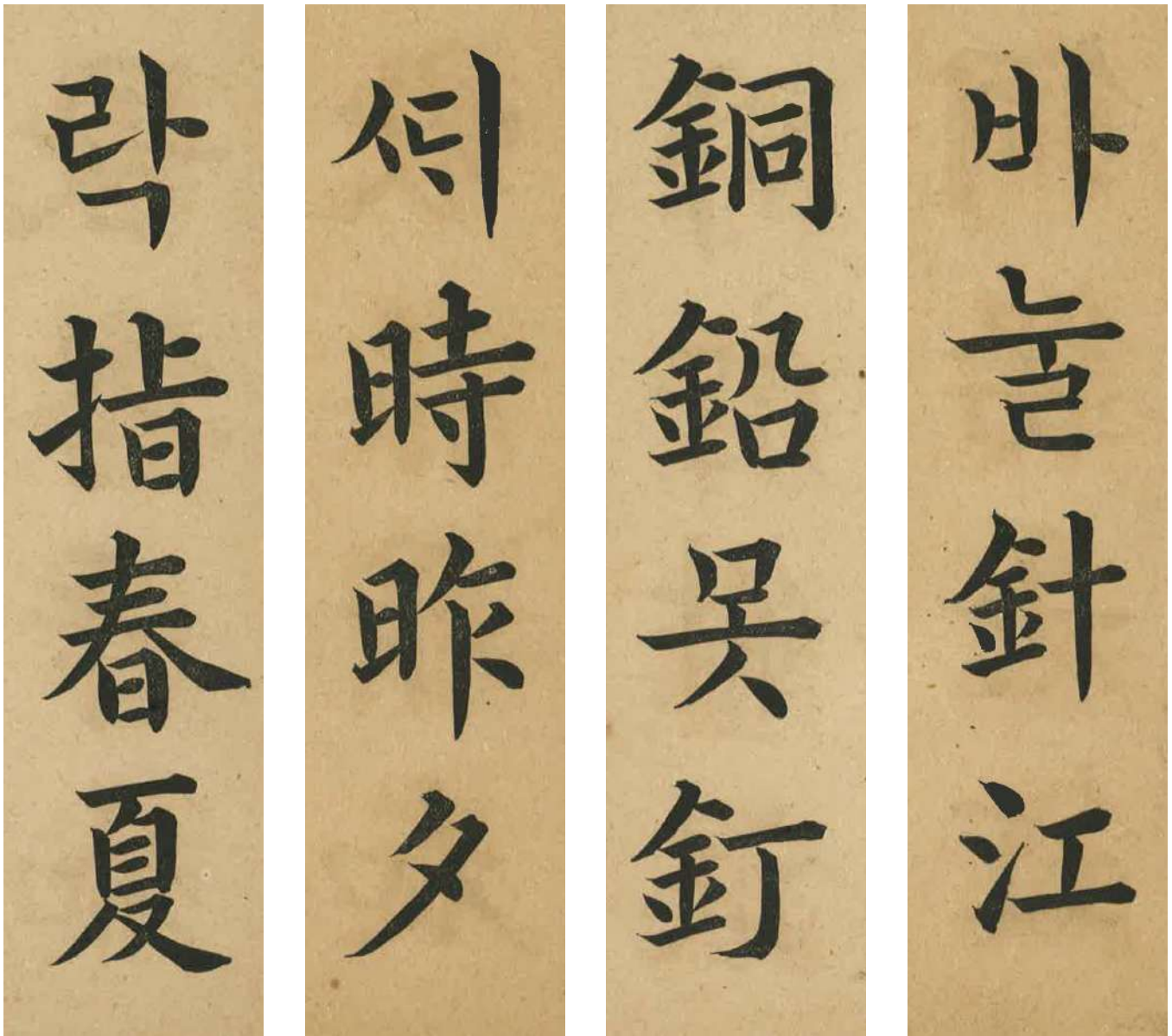


도판 8-8.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0~33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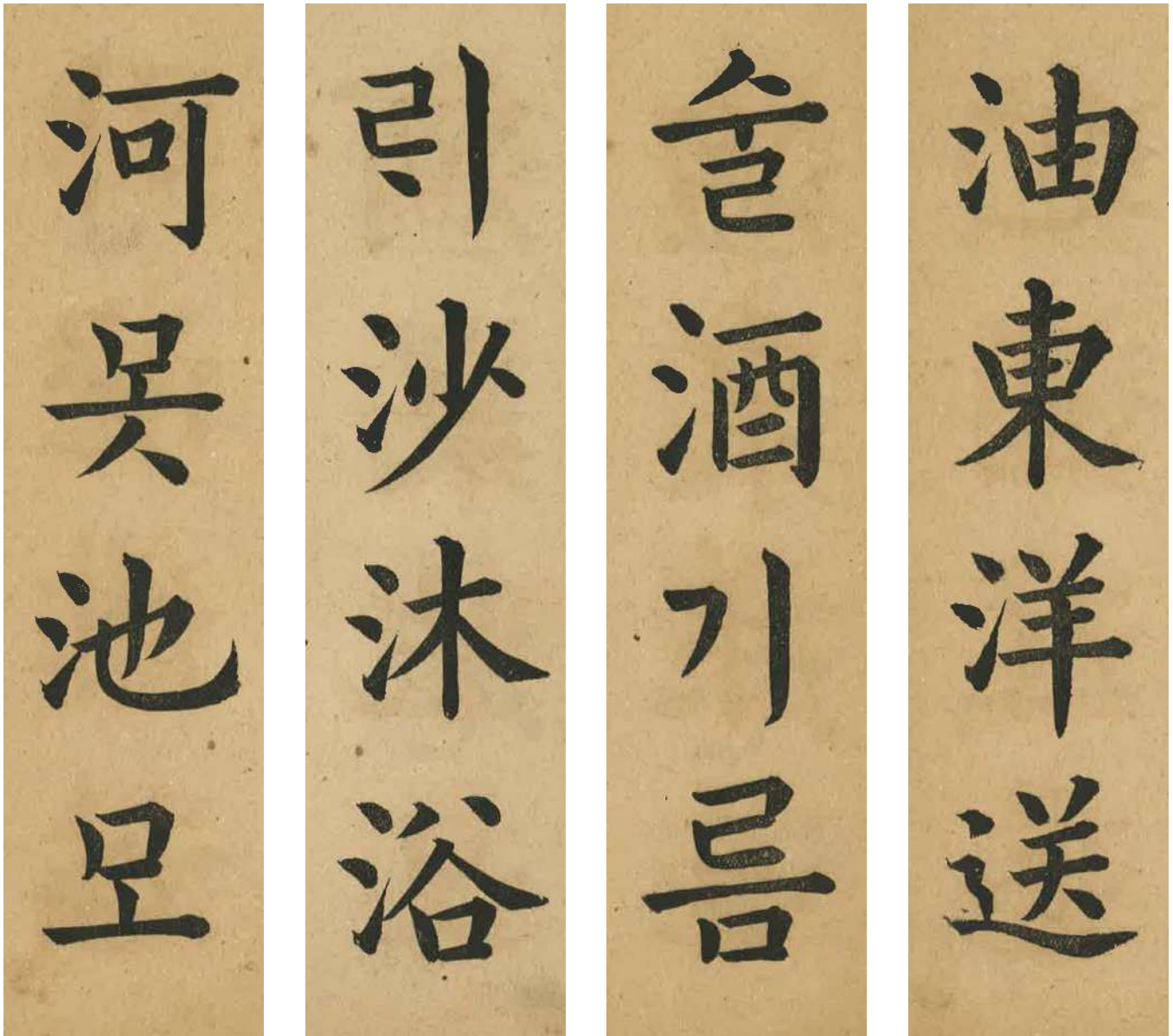


도판 8-9.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4~37쪽



도판 8-10.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8, 40, 43, 4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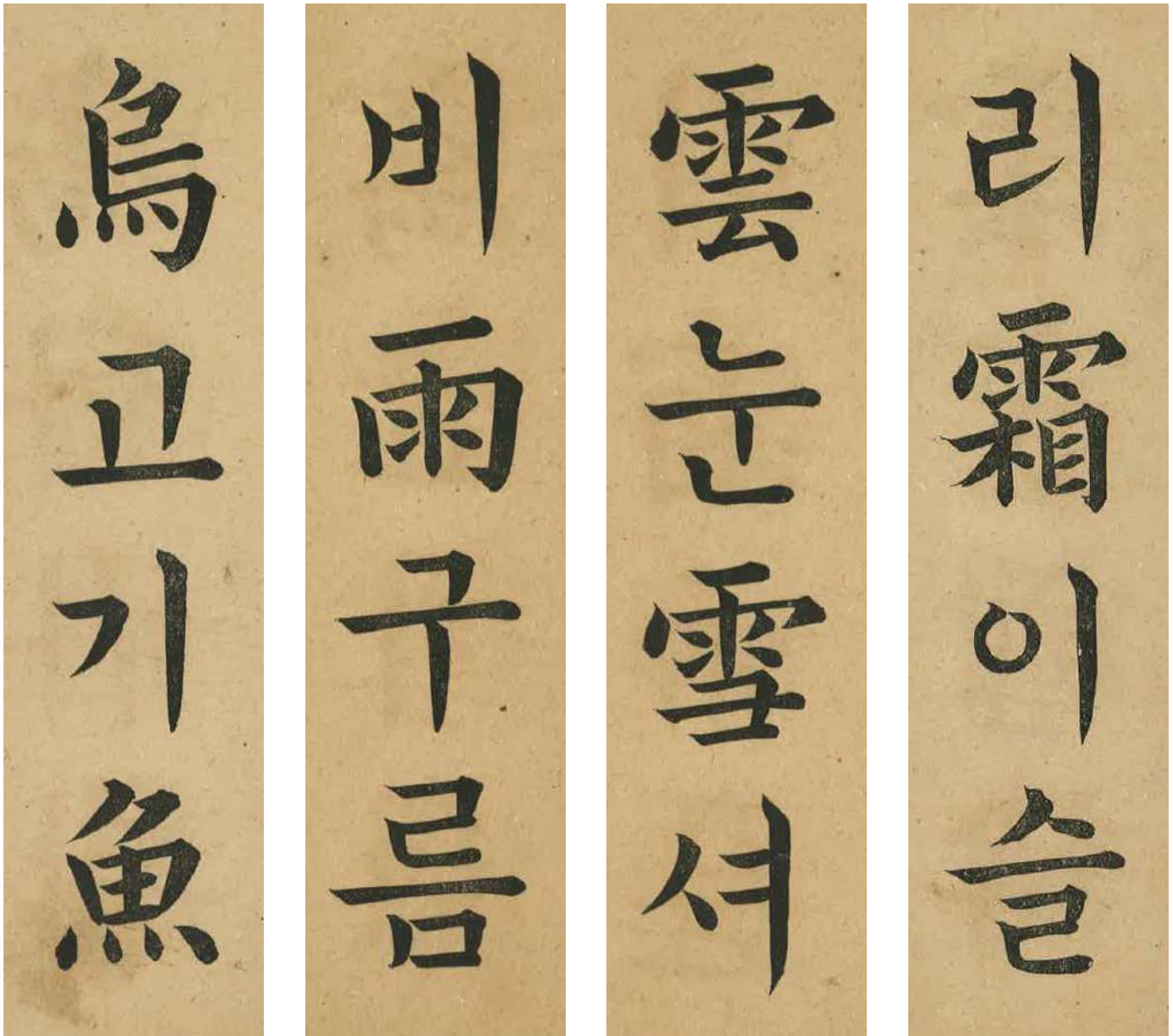
도판 8-1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45, 46, 48, 49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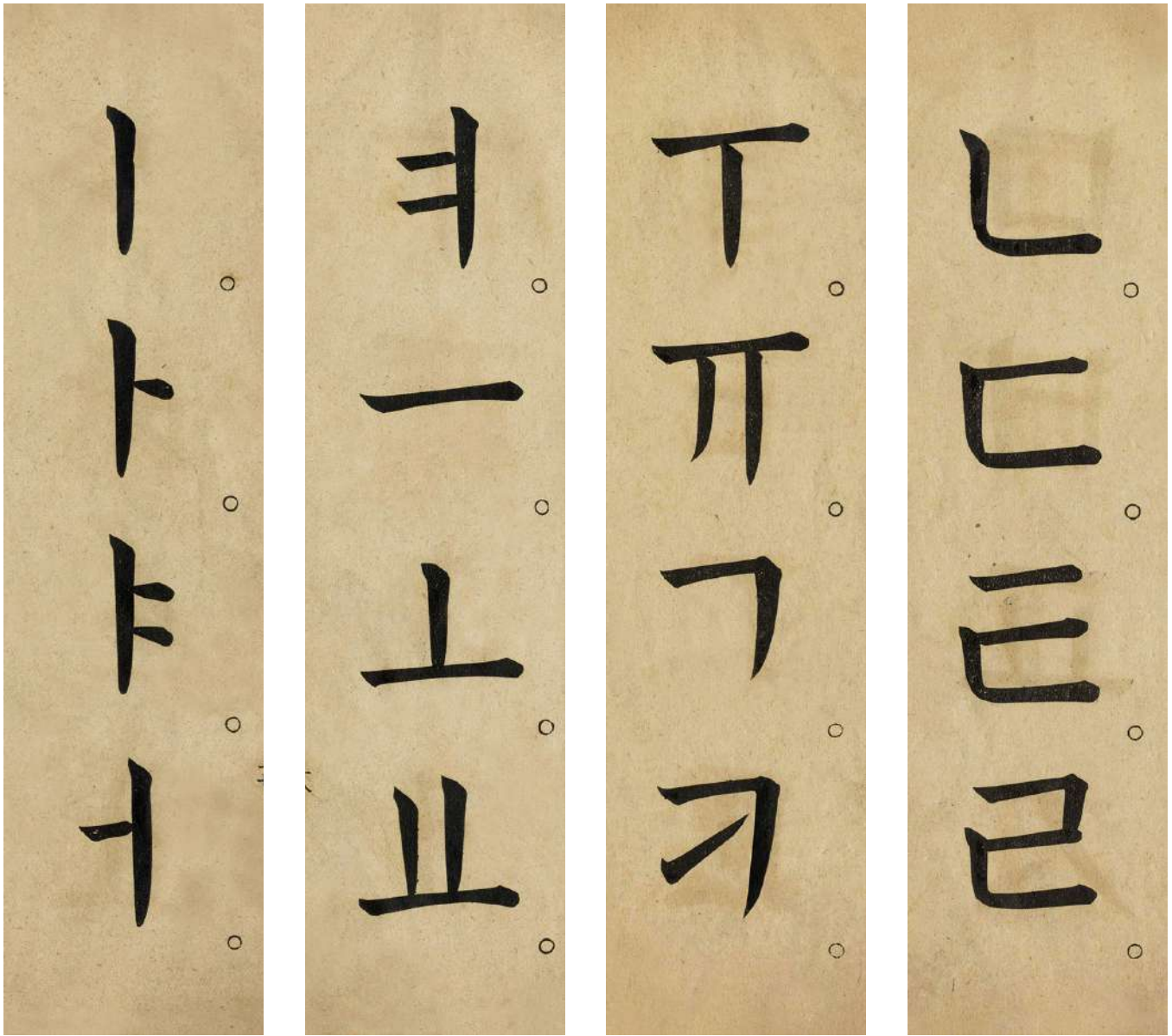
도판 8-1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1~5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1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5~58쪽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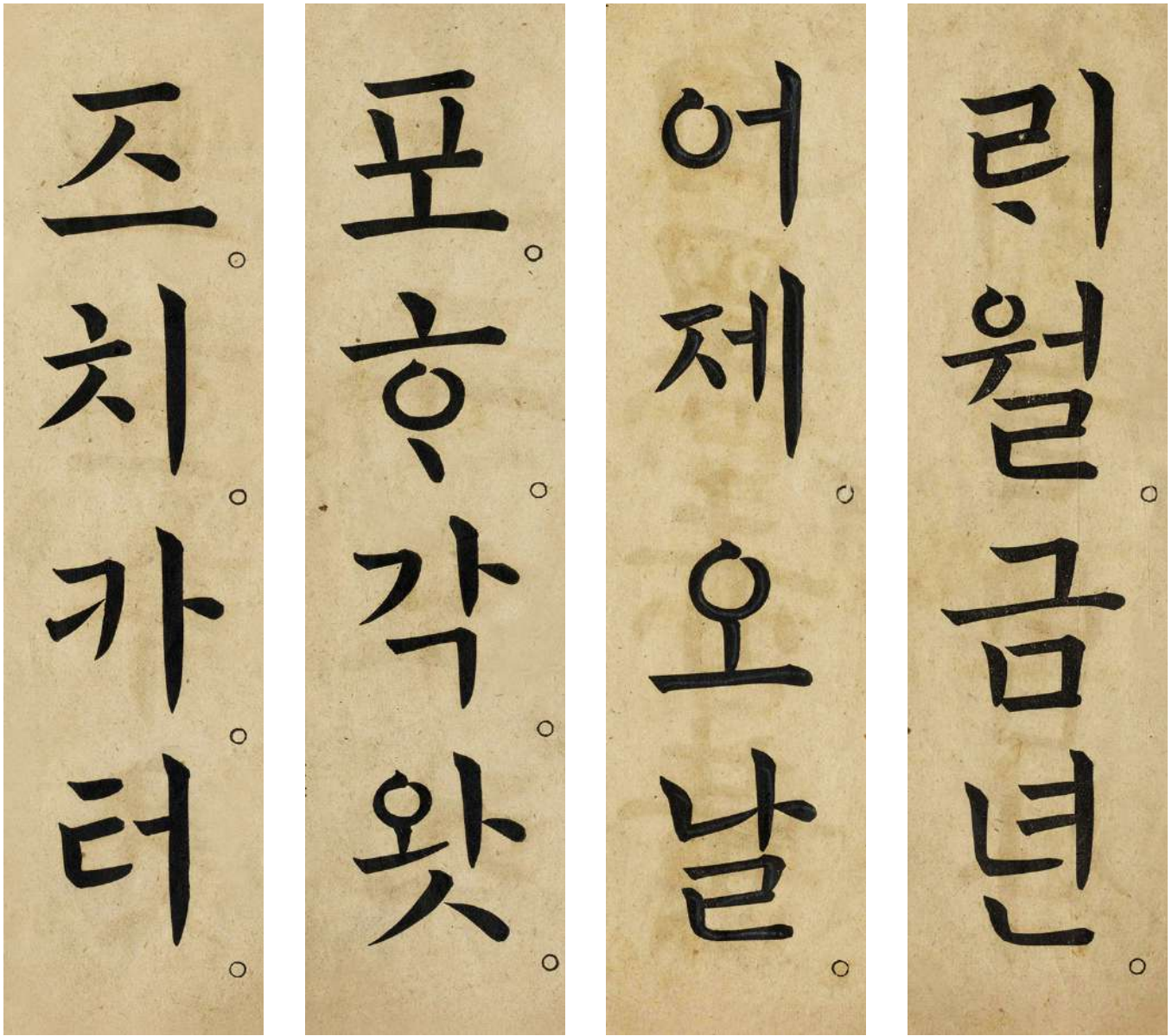


도판 8-14.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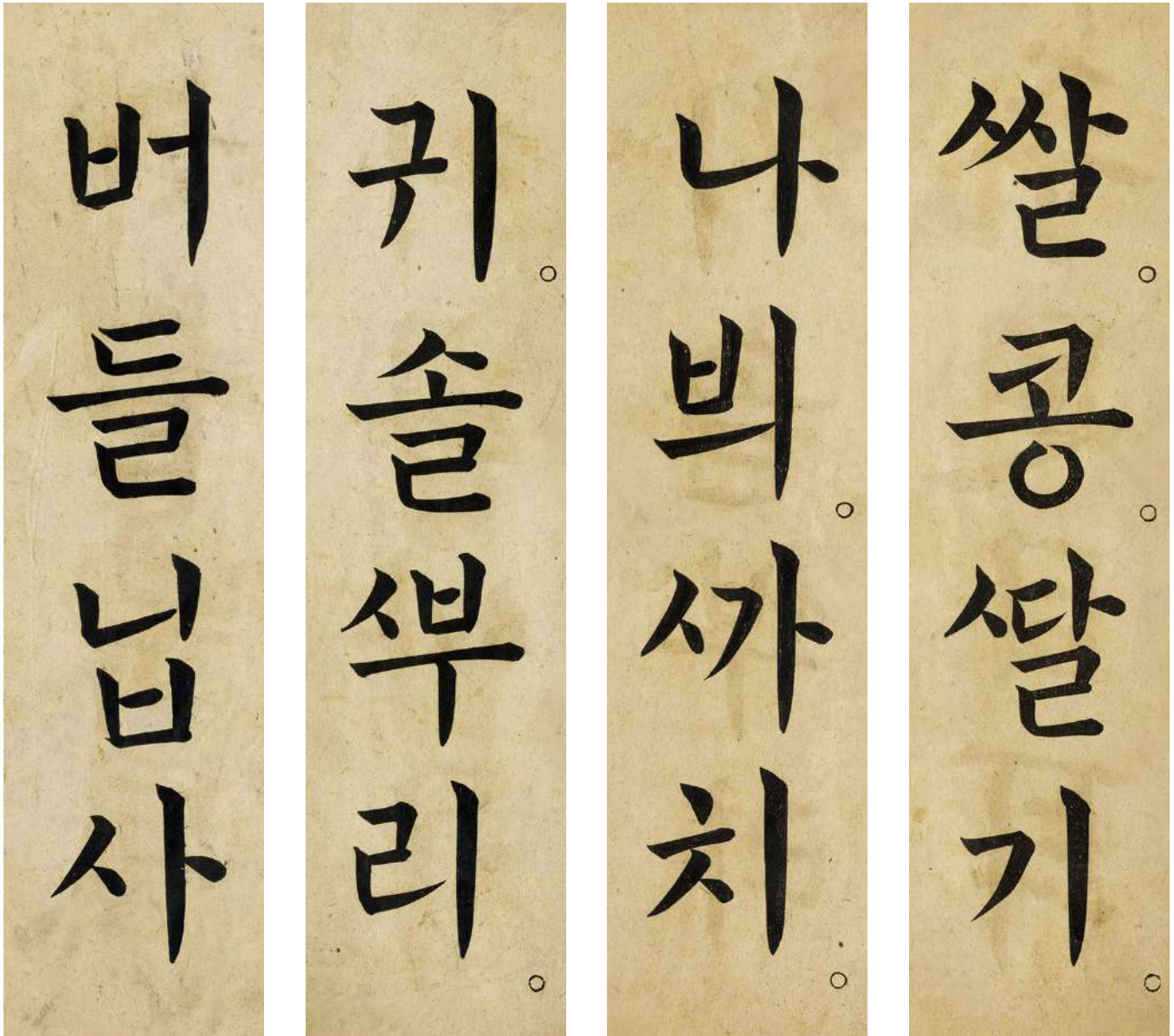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도판 8-15.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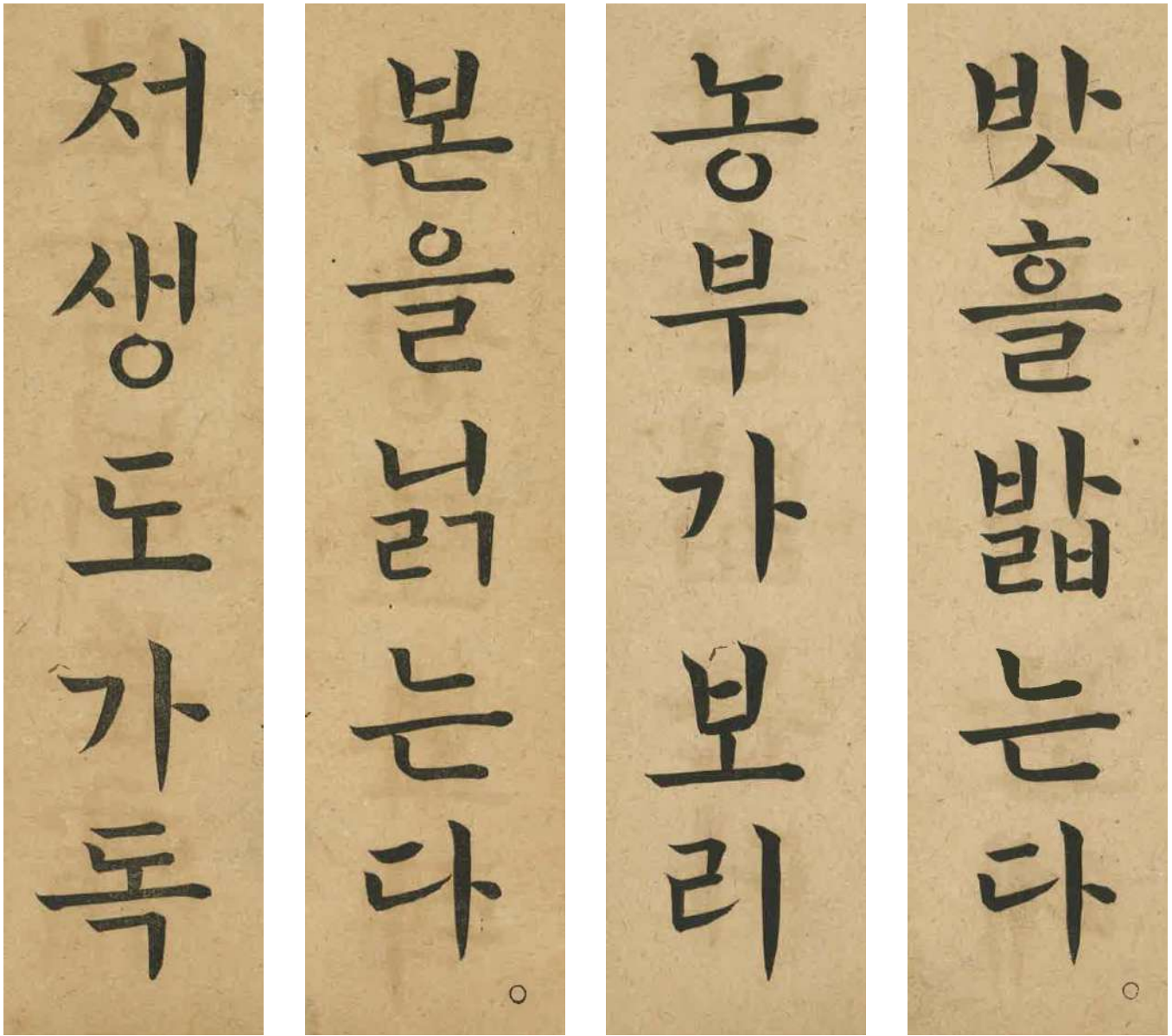


도판 8-16.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5, 26, 39, 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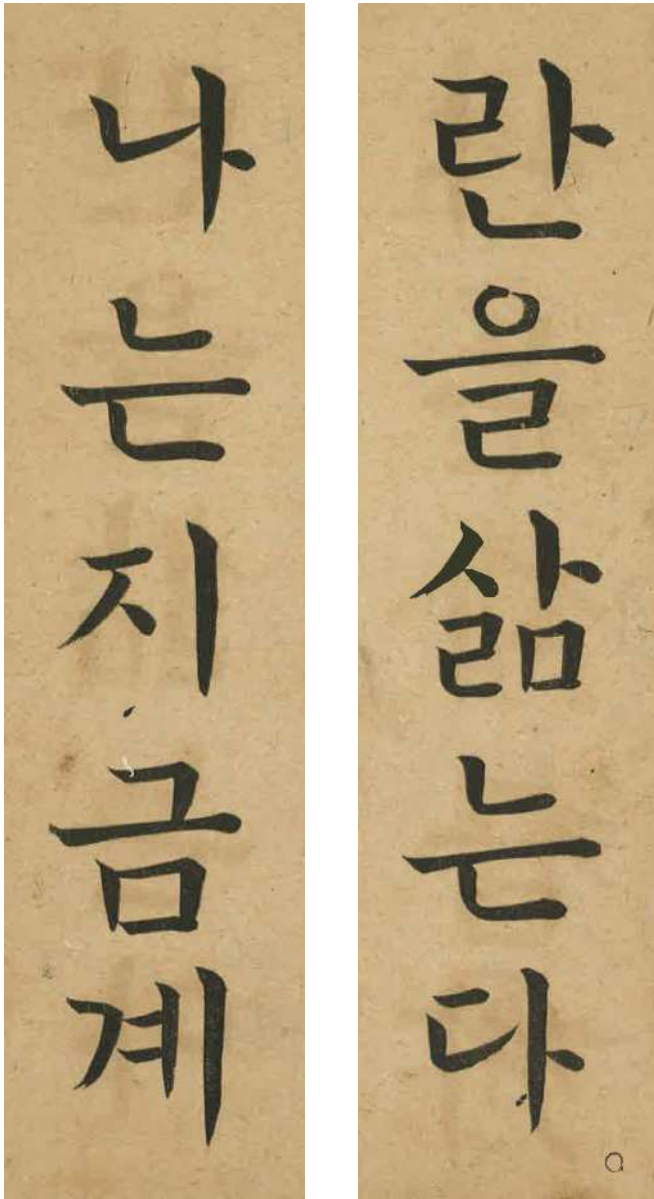
도판 8-17.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41~44쪽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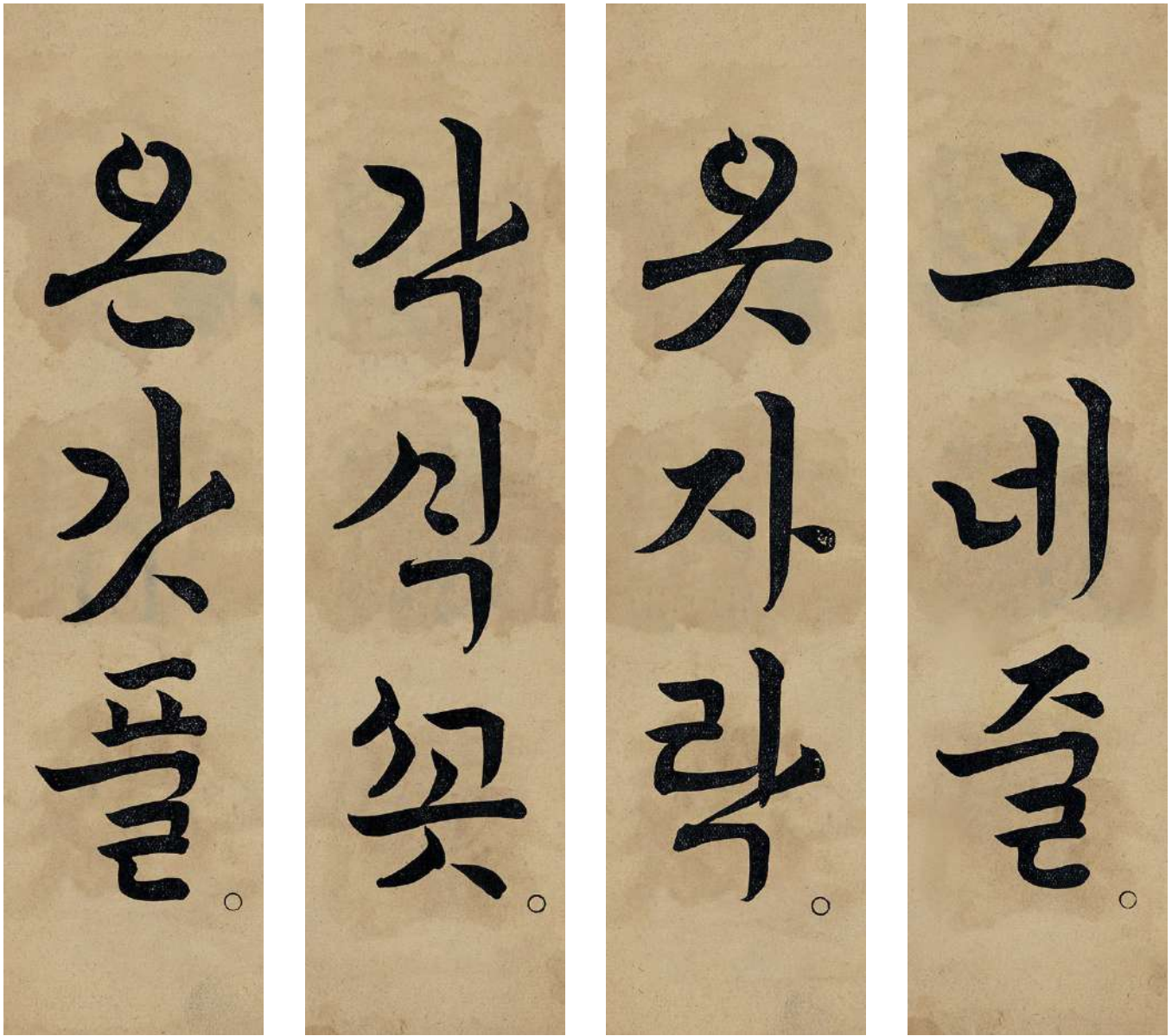
도판 8-18.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9~12쪽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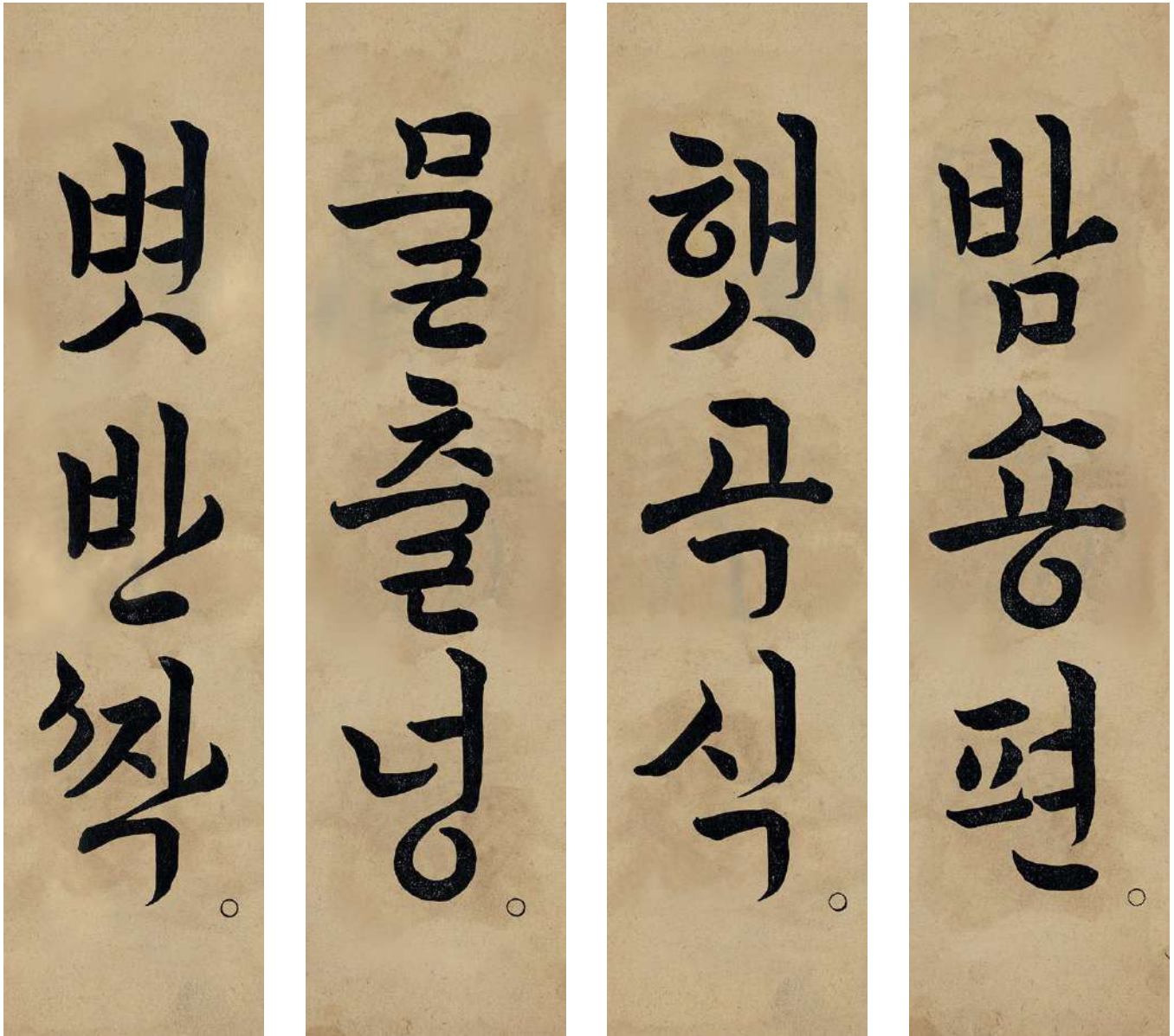
도판 8-19.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3, 14쪽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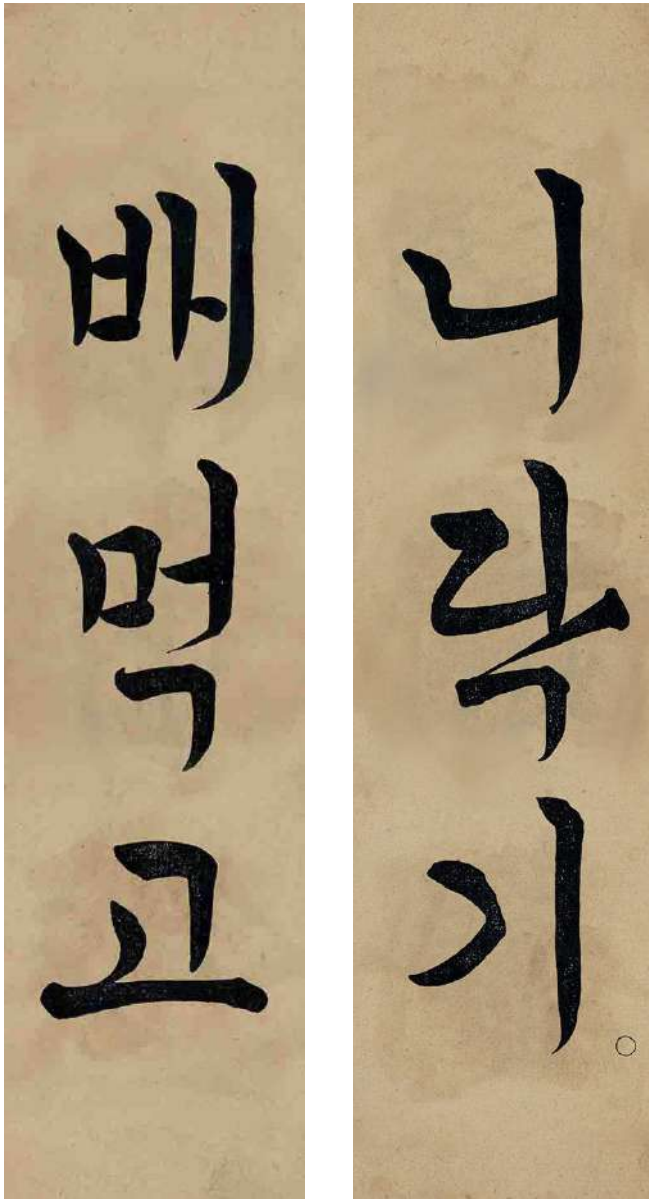
도판 8-2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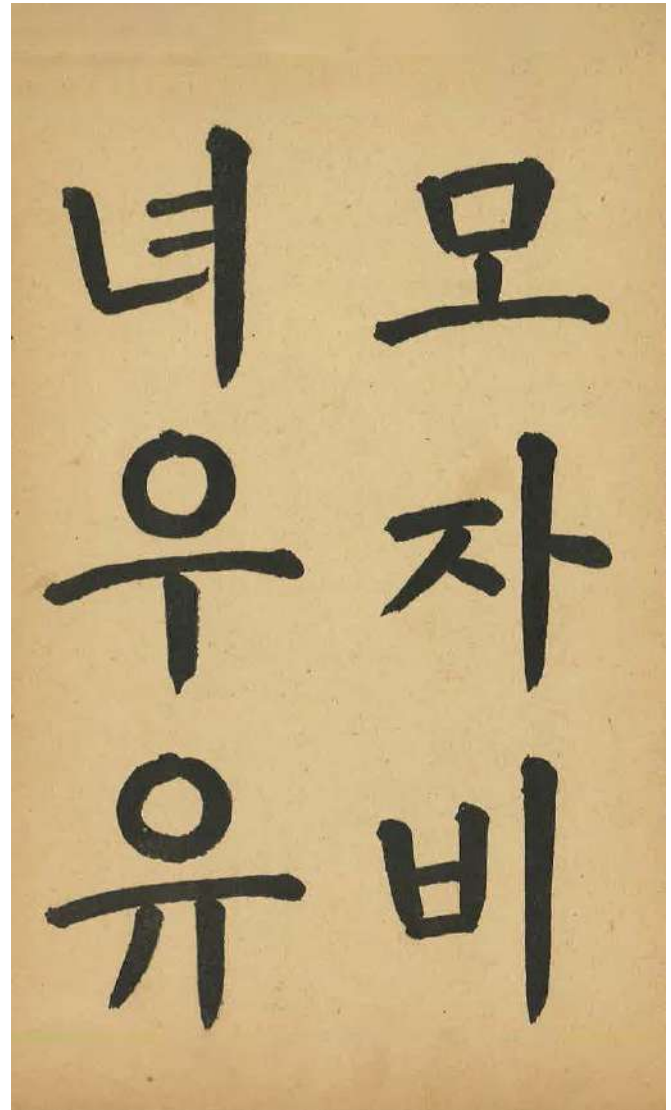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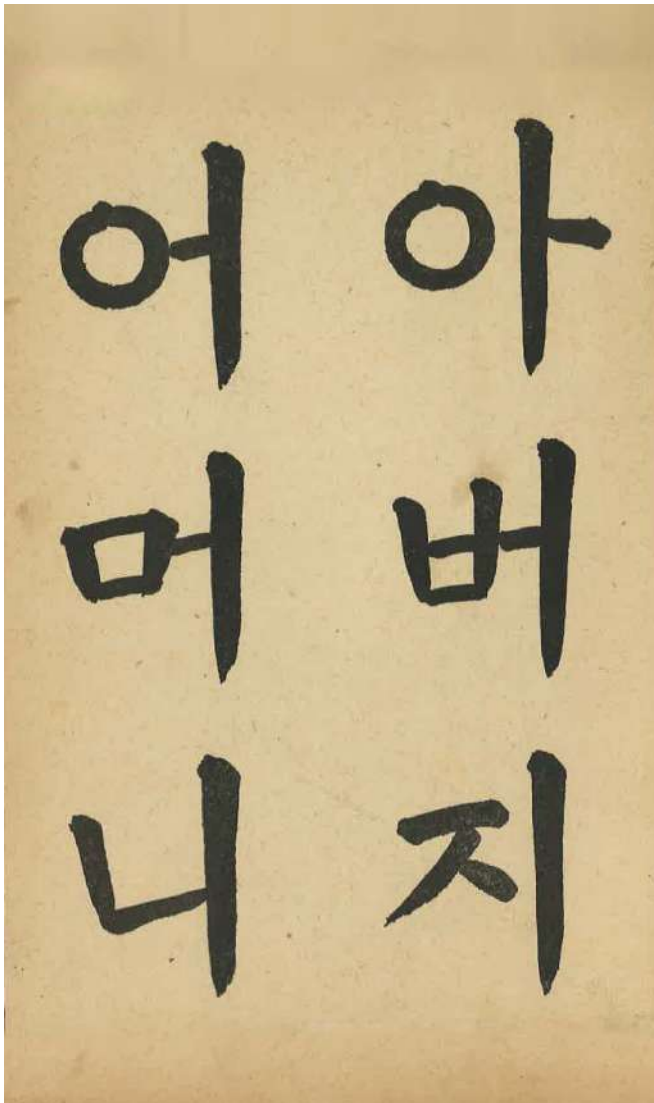
도판 8-21.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8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도판 8-2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9,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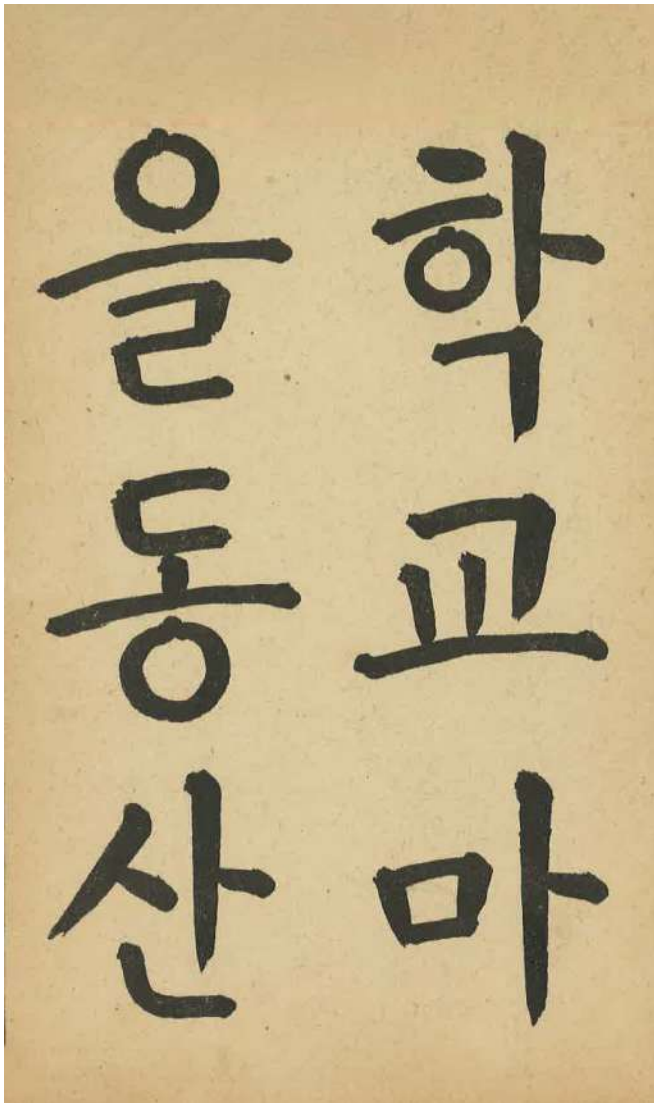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도판 8-2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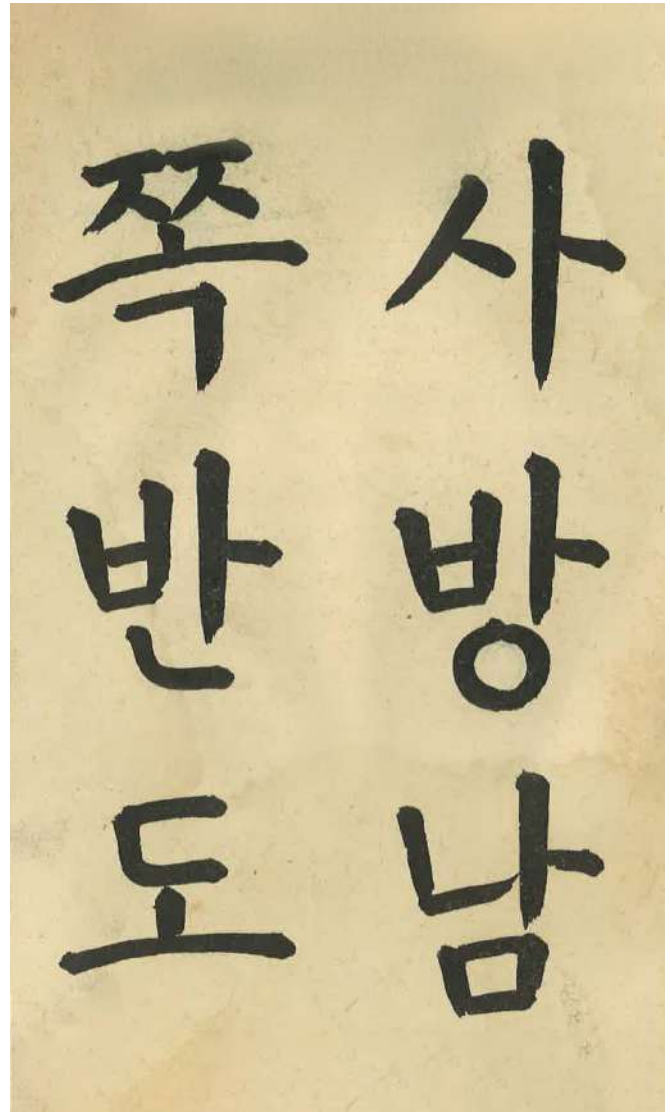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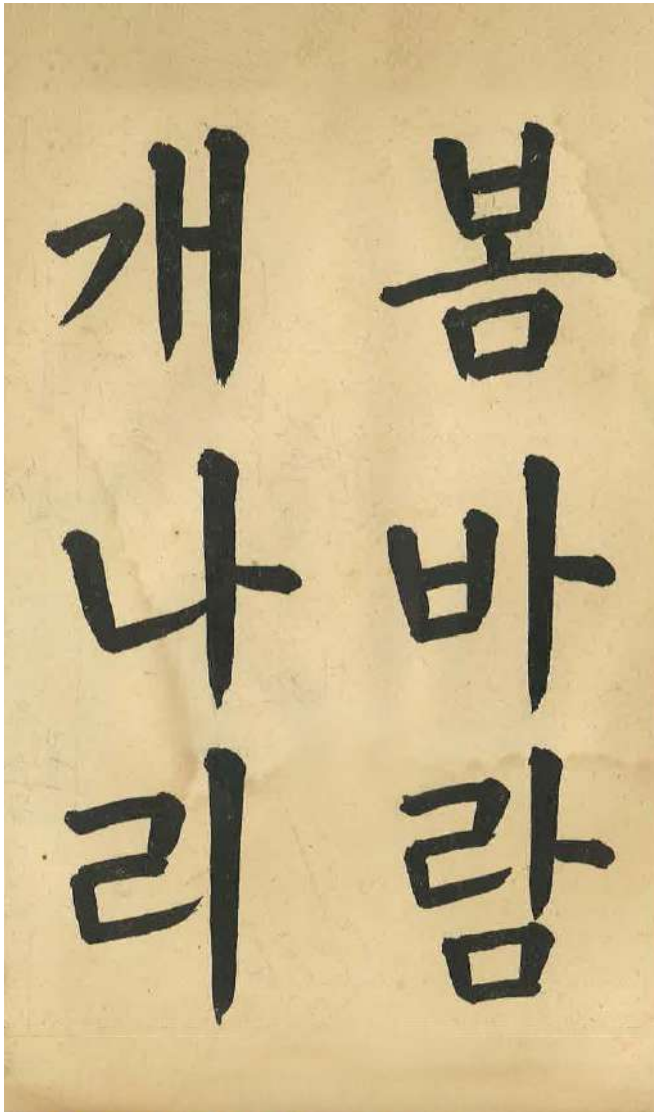


도판 8-2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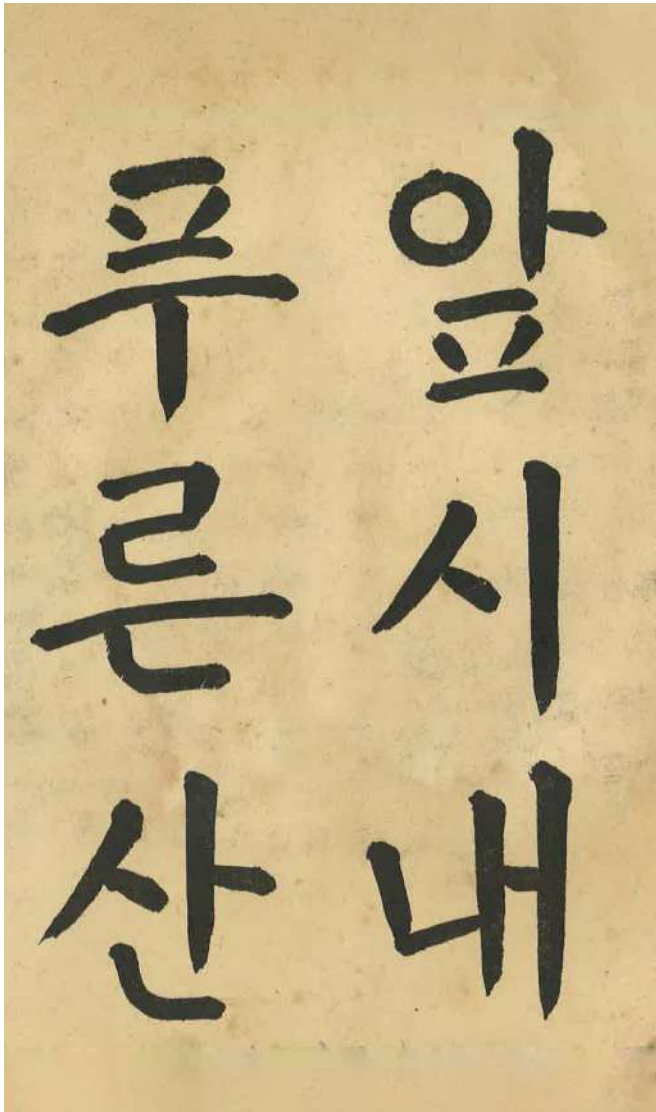


도판 8-2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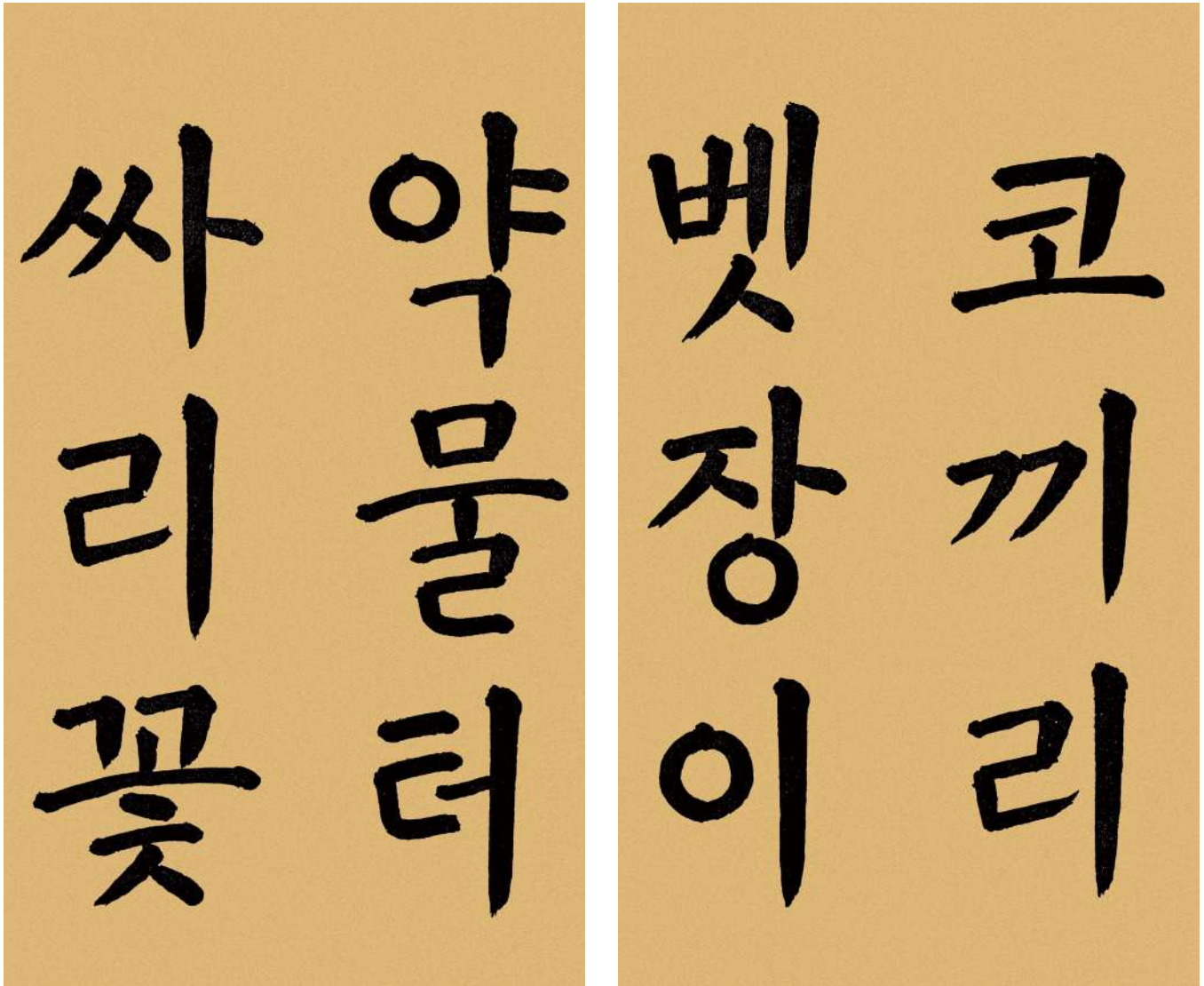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도판 8-26.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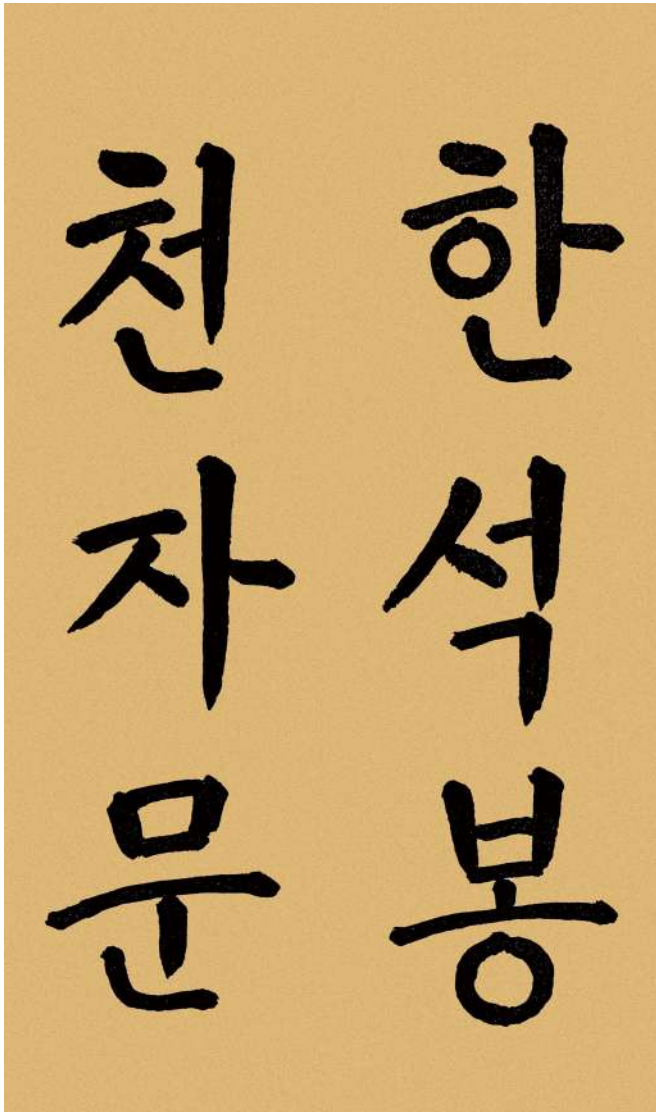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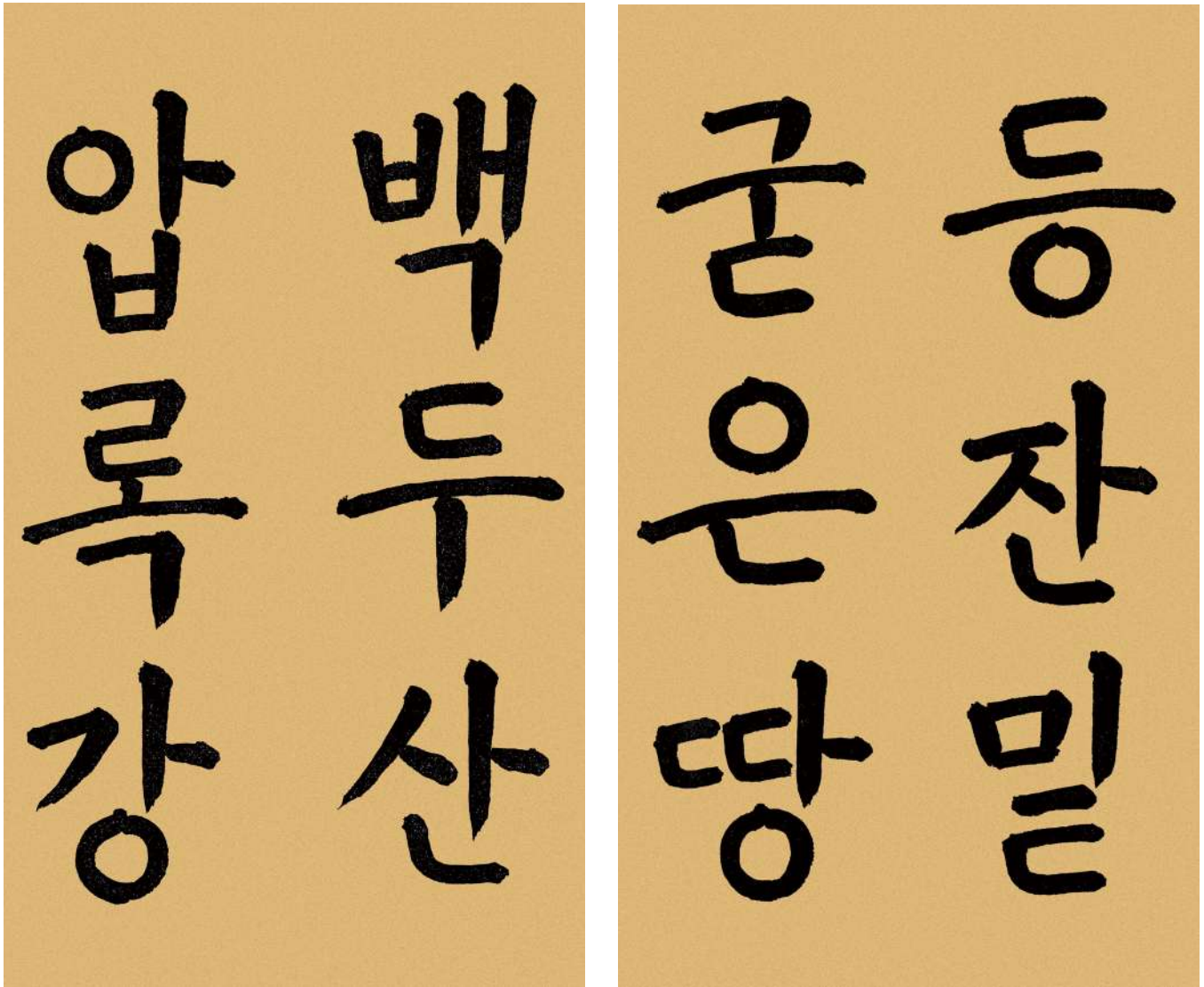
도판 8-27.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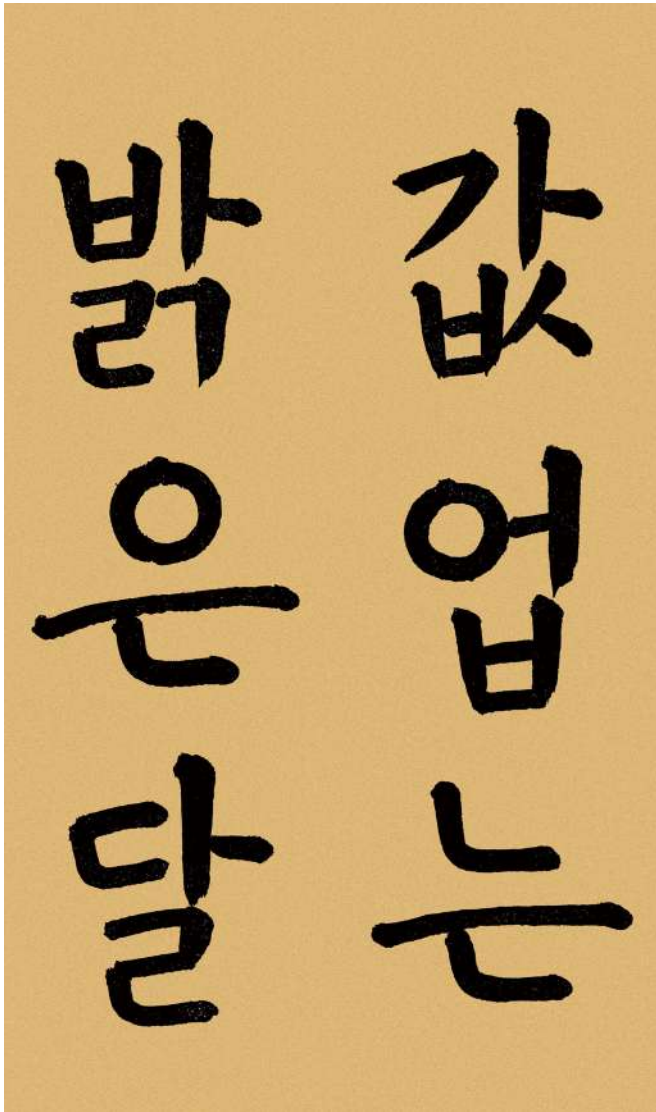
도판 8-2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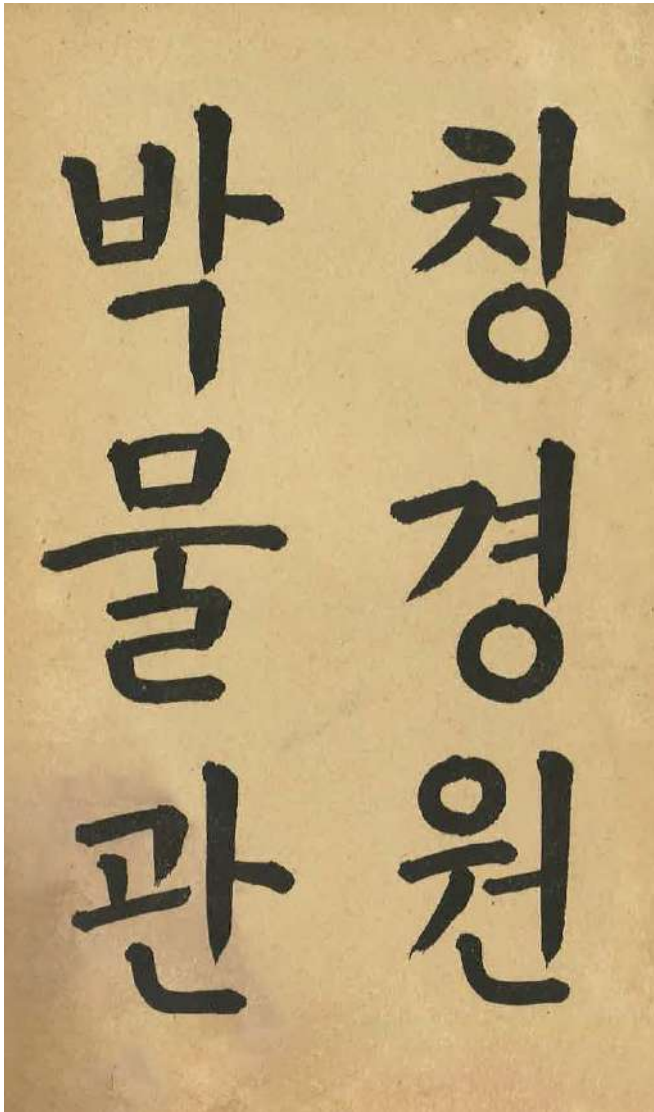
도판 8-2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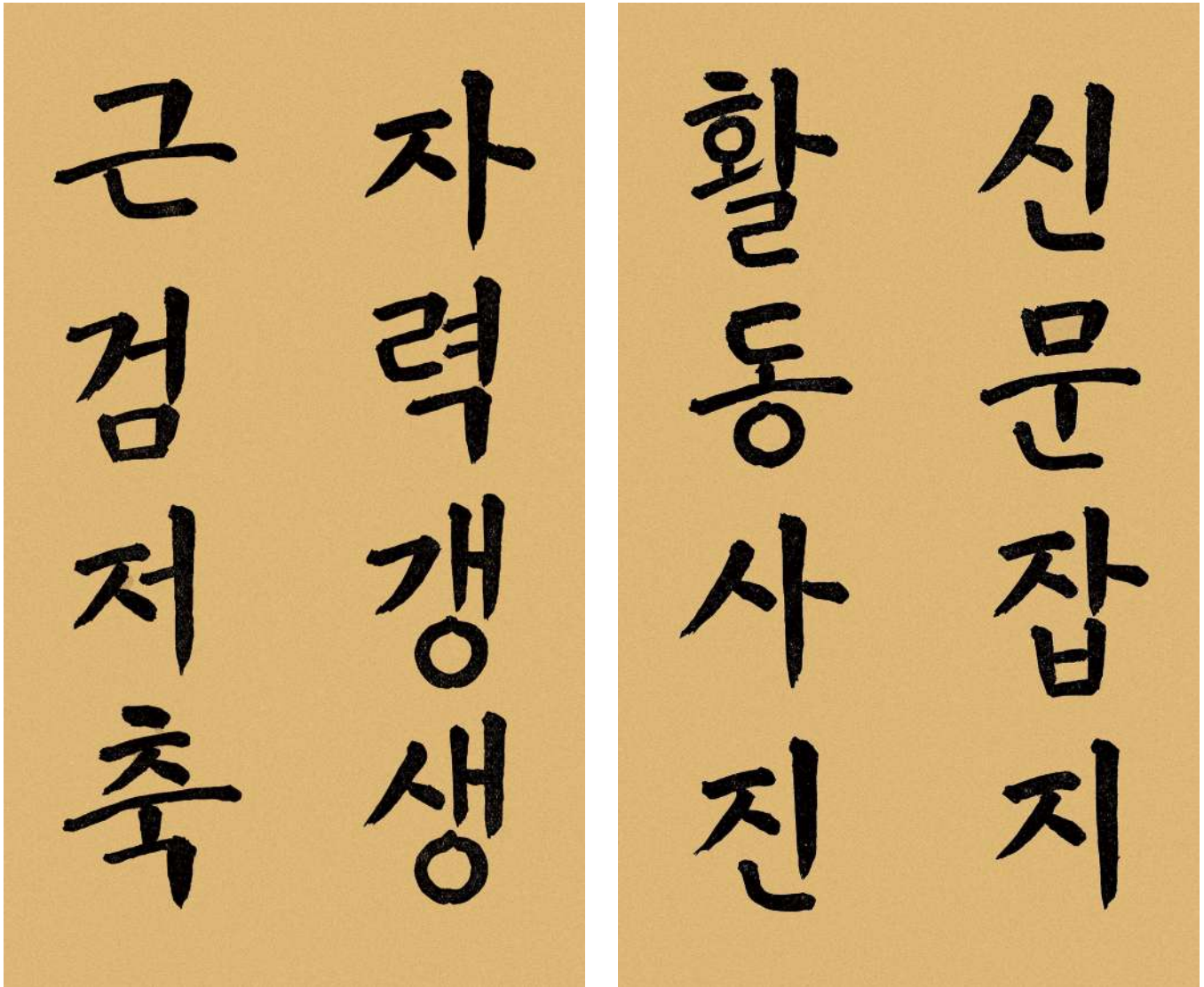
도판 8-3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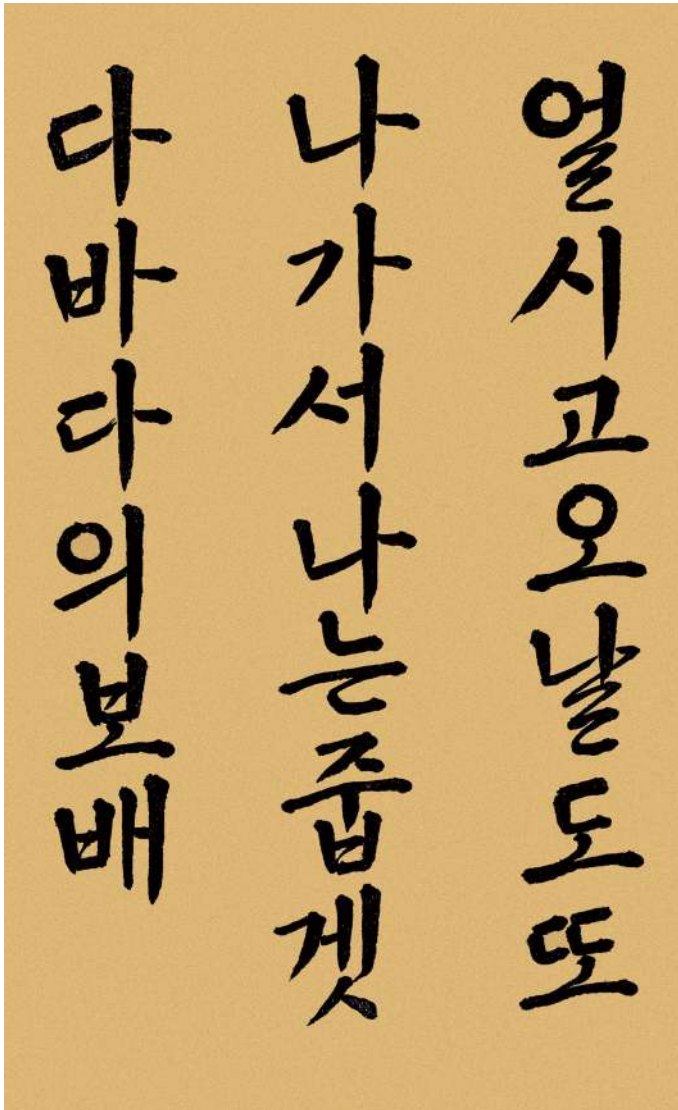
도판 8-3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도판 8-32.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15쪽

1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도판 8-3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14쪽

제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조선왕조실록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왕직李王職(일제 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의 주관하에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편찬한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처음으로 한글이 등장한다. 고종실록의 필사 시기인 1930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 사이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어 실록의 일부를 인용한다.

1.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의 주관하에 고종 45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실록이다.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원명 高宗太皇帝實錄)은 편년 기사 48권 48책(고종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기사)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편찬한 정부본正副本은 영사본 40부와 같이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잔여 160부의 영사본은 관계기관에 반포되었다.

오늘날 유포된 74권 60책 3,781장으로 된 『고순종실록』은 한국고회사연구소 소장의 영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1970년, 탐구당探求堂에서 상·중·하 3권으로 영인 축쇄한 것이다. 이에는 원 실록에 없는 총색인 1권을 별책부록으로 붙였고 매권마다 목차를 만들어 권 초에 붙였으며, 또 구두점을 찍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였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의 경우 즉위년을 원년으로 통합하고 1894년(고종 31)과 1897년(광무 1)·1898년·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책하여 전 48권 48책이 되었다.

이 실록이 편찬된 때는 일제식민통치기日帝植民統治期이다. 1927년 4월 이왕직에서는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준비실을 설치해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자료를 추출, 등사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3월까지 만 3년에 『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각종 기록 2,455책을 이용하여 총계 24만 5,356매를 등사하였다. 실록 편찬에 필요한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이왕직에 편찬실을 설치하고 1930년 4월 편찬위원을 임명, 배치하여 실록 찬술 작업을 착수하였다.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서임敍任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의 예식과장禮式課長이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직을 맡겨 실록 찬술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 총책임은 1930년 4월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오다小田省浬가 맡았다.

편찬실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밑에, 편찬에 필요한 공·사의 문서를 수집하며 사적史蹟의 조사 및 관계자로부터의 사실 청취의 일을 맡는 사료수집부, 각 사료에 기초하고 역대 실록에 준하여

편년체의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편수부, 편집된 원고에 대하여 사실史實의 정확을 기하고, 문자 장구章句를 정리하여 실록 원고를 작성하고 간행할 때 교정하는 일을 맡는 감수부의 3 부서를 두었다. 그리고 편집부만은 다시 1·2·3반의 세 반으로 나누었다. 각 부에는 위원·보조위원·서기를 두었다. 그리고 위원장 직할 하에 서무위원·회계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서기가 담당하였다.

편찬위원들은 기술記述·체제·편찬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哲宗實錄』의 예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다른 것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목록을 작성, 그 일자 밑에 중요 기사를 요약, 수록하고, 날짜를 간지 대신 숫자로 표현하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약조 등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편찬에 활용된 사료는 『승정원일기』가 주된 것이었고, 『일성록』·『계제사일기稽制司日記』 등도 이용되었다. 그 밖에도 각 사리의 등록騰錄·일기·계록啓錄·존안류存案類·문집류와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 및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가 이용되었다.

이 실록은 민족항일기에 일본인들의 간여干與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해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교수에 의해 감증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다. 또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실록의 가치를 손상損傷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순종실록』 부록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강점 이후인 민족항일의 황실과 이왕직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 멸망 후의 기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고종실록』·『순종실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그 밖의 관찬기록官撰記錄의 중요 내용을 재록하고 있어 고종시대사를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개항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나 이후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각국과의 여러 약장約章, 관제의 개폐改廢,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調書·칙령勅令·법률法律·각령閣令·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 근대사 연구에 주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순종실록의궤高宗純宗實錄儀軌』

『실록편찬회회록實錄編纂會會錄』

『이왕직삼십년사자료李王職三十年史資料』

「고순종실록해제高純宗實錄解題」(최영희, 『고순종실록高純宗實錄』, 탐구당, 1970)

집필자 이원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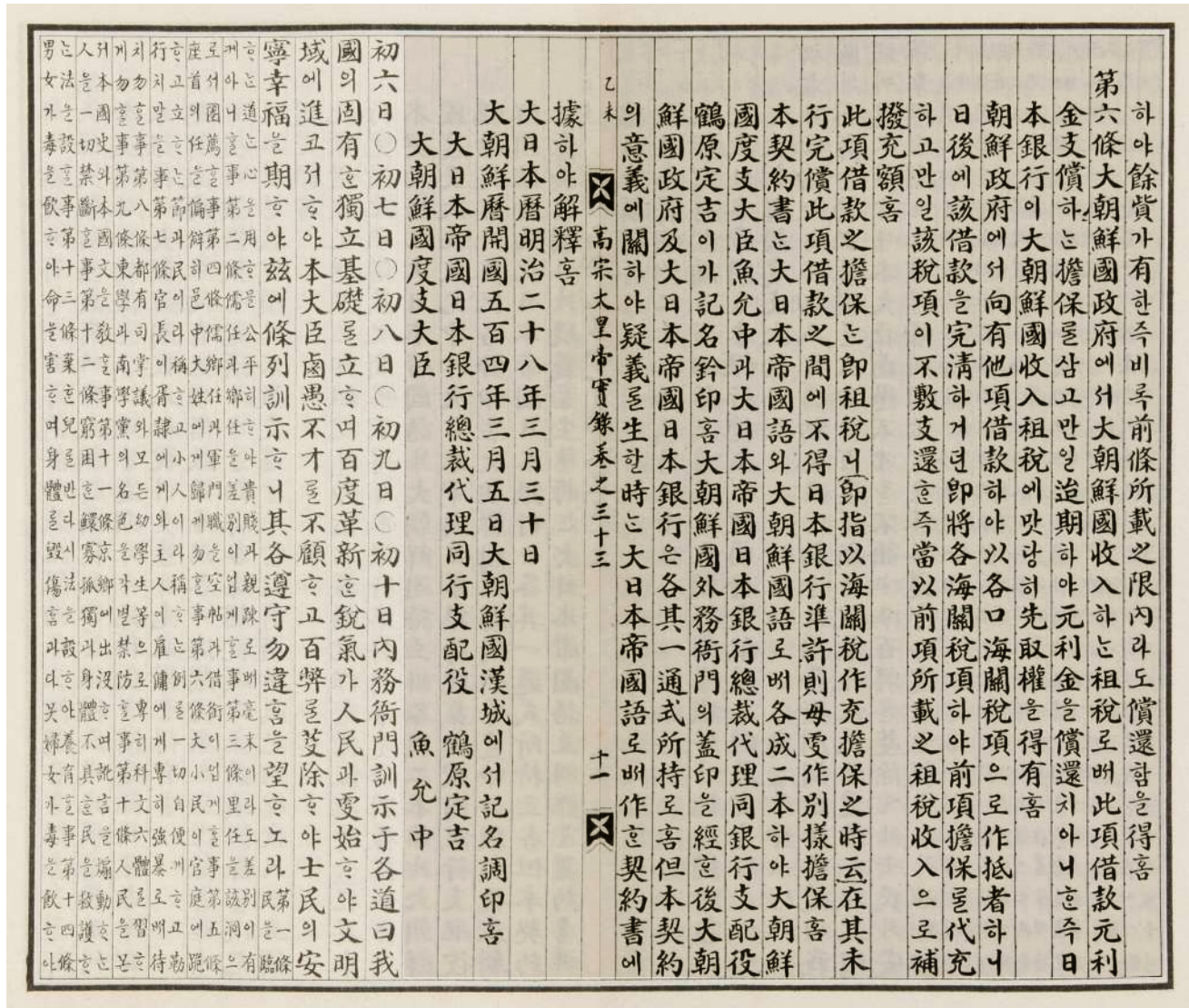
이원순,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3942



도판 9-1.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b면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도판 9-2.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1a, b면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운중魚允中이 국고國庫가 고갈됨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元の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였다. 그 조약은 다음과 같다.

차관 조약借款條約

제1조

대일본 제국大日本帝國 일본 은행에서 돈 300만 원을 대조선국大朝鮮國 정부에 대여한다. 일본 은행에서는 전항前項의 차관액 가운데서 150만 원은 은화銀貨로, 150만 원은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兌換銀券으로 하되, 대일본 역曆 명치明治 28년 7월 31일까지 모두 대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주재하는 당해 항구의 대조선국 감리사무監理事務에 넘겨준다.

제2조

이 차관의 이자율은 대일본 역으로 1년에 원액元額의 100분의 6으로 정하고(즉 매년 원금 100원에 이자가 6원임) 차관을 받은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대일본 역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대조선국 정부에서 매번 반년분의 금액을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에 상환한다. 오직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분의 이자는 이해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대일본 역으로 명치明治 28년부터 명치明治 30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차관의 원금 상환을 잠시 그만두고, 명치明治 31년 12월과 명치明治 32년 12월 두 번으로 정하여 매번 150만 원씩 상환한다.

제4조

대조선국 정부는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다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으로 대일본 제국의 동경東京 일본 은행 본점에 지불한다.

제5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현재 대일본 제국에 공채公債를 모집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혹 뒷날 이 공채의 모집이 성공하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그 모집한 돈에서 이 항의 차관을 모두 먼저 상환하고, 대조선국 정부에서 만일 재정을 정리하여 여유가 있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대조선국 정부에서 대조선국이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담보로 삼고, 만일 기한이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일본 은행은 대조선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먼저 차지할 권한을 가진다.

조선 정부에서 이전에 다른 차관이 있어 각 항구의 해관세海關稅 항목을 저당抵當한 것이 있다. 뒷날 당해 차관을 완전히 청산하면 즉시 각 해관세 항목을 앞 항목의 담보로 대신 채우고, 만일 이 당해 세의 항목이 상환하는 데 충분치 못하면 앞 항목에 기록한 조세 수입으로 보충하여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이항 차관의 담보는 바로 조세로서 (바로 해관세로 담보를 보충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항 차관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본 은행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담보로 바꾸지 못한다.

본 계약서는 대일본 제국의 언어와 대조선국의 언어로 각각 2통씩 만들어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과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總裁代理 동 은행 지배역支配役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대조선국 외무아문外務衙門의 인장印章을 찍은 다음 대조선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은 각각 한 통씩 가진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대일본 제국 언어로 만든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 3월 30일

대조선 개국開國 504년 3월 5일

대조선국 한성漢城에서 서명 조인한다.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 동 은행 지배역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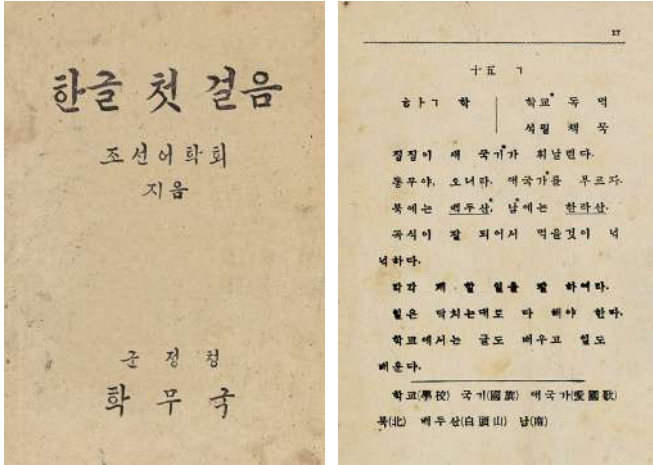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제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도판 10-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7쪽

『한글 첫 걸음』은 광복 후 최초로 개발된 초·중등 과정용 국어과 교과용 도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중등 과정 수준의 ‘한글 익힘책’으로 보급되었다.

일제 침략 세력이 이 땅에서 물러나고 우리말을 되찾은 마당에 국어 교육이야말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과 교재들에 우선하여 개발한 국어 교육 수단이 『한글 첫 걸음』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 교재들이었다.

당시 조선어학회(오늘의 한글학회)는 우리말 교재 저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등국어교본』(상, 중, 하)과 『중등국어교본』(상, 중, 하) 등 여러 교과서도 조선어학회가 저작 기관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한글 첫 걸음』은 조선어학회가 저작한 첫 번째 교과용 도서였으며,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했다. 『한글 첫 걸음』은 1945년 11월 6일에 발행되었으며, 인쇄 및 발행소는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이다. 이 책은 정식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편찬·발행되어 임시로 사용된 교재이기는 하나, 초·중등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랑받은 책이기도 했다.

당시 정식 교과서가 개발되기에 앞서 사용된 여러 임시 교재가 그러했듯이, 그저 제한된 시기만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특별교재’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 부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말 우리글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일제 식민 잔재를 하루빨리 씻어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데 따른 첫 결실이 『한글 첫 걸음』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 학습서로 이 책을 편찬·발행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한글을 첫 걸음부터 익혀야 한다는 목적에 충실히 하고자 이 책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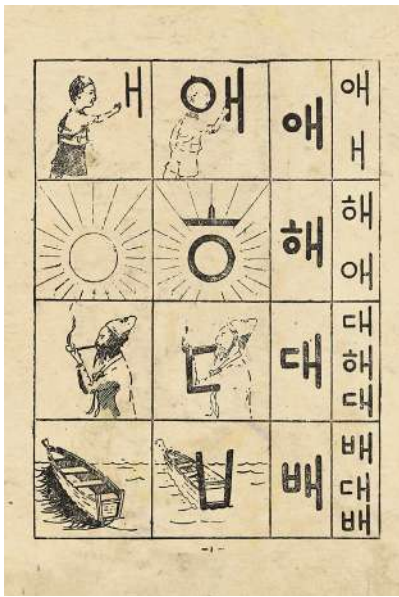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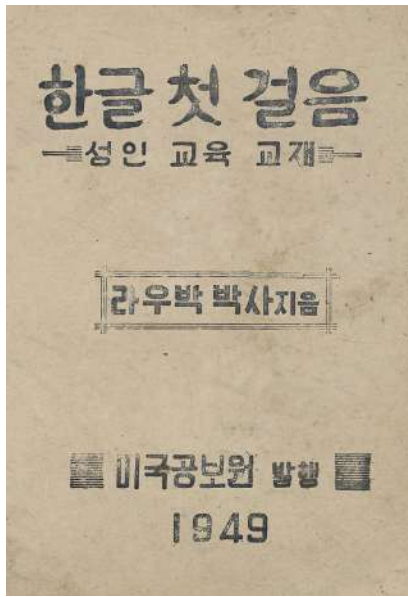
책머리에 이 책을 이용하는 데 따른 ‘주의注意’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초등국어』와 『중등국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 공부의 터전을 닦아주기 위해 지었고,
2. 이 책을 가르치는 교사는 『초등국어 한글교수지침』²⁾을 참고할 것이며,
3. 한글 자모 24자와 쌍자음, 겹모음의 명칭과 그 읽는 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글 첫 걸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2627&cid=58156&categoryId=58156

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도판 10-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 2, 20, 30, 45쪽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1-1. 정인보鄭寅普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훈민정음 처음 지으실제 엄어금니의 옛말과 혀와 입시울과 이와 목구개의 그대로와 및 변화하는 것을 형상하사 정음의 미묘함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니 이는 세종 예성觀聖으로 인류, 문화 역사에 처음 비최오신 광명이라 반포 전 용비어천가 나고 반포 한 뒤 여러가지 서적 번역이 있어 지금에 전하는 바 오히려 몇몇을 세이게 되니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월린청강지곡을 날經로한 석보상절 같은배 가장 두렷하니 문짜 예롭고 장중하야 태를 아 니 보이고 규구規矩로만 쓰은 전차轉借로 저 은殷 주周 고전古篆과 같이 부르고 뻥 획이 없고 빠치고 어긋하는 모양을 만드지 아니 하얏더니 내려오며 여러 손을 지나 비로소 필법이 생기여 정자 흘림의 두체 되니 비컨대 진秦 한漢 이래 예서隸書와 해楷 초草 있게 된것과 같다. 대내에서 쓰오시던 제법이 특히 단정 엄중 하야 자미 가운데 예 스러움을 가지니 이론바 궁체宮體라 우리 젊은 벗 김충현이 귀주 고가의 후손으로 이 체를 배워 이미 세상에 알리웠거니와 이제 또 그 쓰는 법을 적어 이 책을 만드니 이로 조차 널리 퍼짐을 볼지라 오후라 글짜는 선왕 어제요 필법은 대내 유전 하온 고체라 서를 쓰며 감회를 이기지 못하노라.

임오 팔월 이십일

정인보鄭寅普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5쪽

1-2. 김충현金忠顯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우리 나라 글씨에 오즉 궁체 하나 있어 전해 오되 그 법을 조리 분명하게 적은 책이 없어 법 찾을 길이 흐미한지라 글씨 쓰는 이의 답답한 배 되고 일로 말미암아 법을 어그릇드리며 어지러이 하는 일 한 둘 아닌 것을 보겠고 더 심하게는 다른 나라의 글씨법

을 그대로 끄러드려 쓰는 일도 있으니 보기에 눈 서투르고 이에 서 더 아올리지 않는 일이 없다 하리라. 내 일즉이 궁체를 배우고 그 법을 일일이 모아서 책을 만드느라한지 여러 해 되다가 이 책이 모양을 나타낼새 책 꼭대기에 서문을 명담원鄭蔭園 어룬께 무른지 별서 일곱해 짜 되었으나 그 동안 장님되고 병어리 되던 때라 이나마 펴기 어려웠더니 요새야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더 한 걸음 내드디려 하매 이것까지 여러 안목에 보이게 되니 눈치받고 병신 노릇 하던 그 시절이 얼른 생각 나고 그 때에 그렇듯이 내것 좋아하던 마음으로 틀렸는지 빠졌는지도 몰고 염치 없이 기쁜 줄을 아노라. 여태것 하느라 하였으나 어찌 빈 틈 없을줄을 바라리오 혹시 글씨에 뜻 둔이에게 한 도움이나 될까하고 내기에 몇 줄 적다.

무자 봄날

저자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6쪽

1-3.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중앙신문』, 1946년

1-3-1.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一)」, 『중앙신문』, 1946년

우리의 글과 글씨는 제정制定 된 후後에 발전發展期와 침체기沈滯期가 여러번 쉼바뀌어 순조順調로운 발달發達을 기대할수 없이 매우 진보進歩되기 어려웠으니 따라서 확실確實한 보급적普及的 기반基盤을 닦지 못하였다고 논단論斷할수있다. 더구나 저 무도無道한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 학정虐政에 가진 압박壓迫과 구속拘束으로 말미암아 떳떳한 글을 갖고도 활용活用을 마음대로 못 할뿐더러 금지禁止까지 당當하게 되어 가진 고초苦楚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성장成長하였으며 항상

向上되었으리요.

그러나 글이 있는지 오백년五百年이나 되니 그 장구長久한 세월 歲月에 걸쳐 소장성쇠消長盛衰의 변천變遷된 사실事實이 자못 많으니 연구研究와 발전發展한 과정過程을 엿볼 수도 있다 우리 글의 쓰기 쉽고 쓰기 넓은 點點은 다시 말할 바도 아니거니와 글씨의 서체書體도 또한 지극至極히 아름답게 발달發達되었으니 이는 오직 궁체宮體를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과 글씨가 구비具備된 완전完全한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문자文字가 있으면 따라서 서체書體가 있으니 이는 진실로 불가리不可離한 일이요 당연當然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문자文字의 서체書體로는 궁체宮體가 유일唯一한 자리에 있다.

중국中國으로 보드라도 한문漢文이 있고 서체書體로는 전篆 隸 楷 行 草 등의 서법書法이 있으며 여러 서가書家の 명작名作이 역대歷代에 많이 있어 그 나라 뿐만 아니라 널리 동양東洋 제국諸國에 까지 그 서체書體와 필법筆法이 파급波及되어 힘써 배우고 또 굴지屈指할만한 명필名筆이 많이 났으므로 우리 나라에도 유명有名한 필가筆家가 배출輩出 하였으나 아직껏 국문國文 글씨로서 저명著名한 필가筆家를 보지 못하였으니 너무나 국문國文을 등한等閑이 여기고 한문漢文 글씨 이외以外에는 글 아니라고 칭도稱道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글과 글씨를 가진 민족으로서 이렇듯이 자기문화自己文化에 관념觀念이 적었다할 증좌證佐 되는 사실事實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상思想이 전승傳承 되어 훌륭한 글씨체를 갖고도 없는 것과 같은 처지處地로 도라가게 한다면 이 얼마나 섭섭하고 두려운 일이라.

서체書體의 변천變遷된 사실史實을 대략大略 들어보면 세종世宗 때 부터 고종高宗 때 까지 그 간間 서체書體의 진전發展은 대대代代로 계속繼續 되고 자못 불만한 點點이 많았고 그 後後에는 현저顯著한 발전發展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서체書體를 연구研究하는 이도 극極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290&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7-8쪽

1-3-2.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이같이 이씨조선시대李氏朝鮮時代에 있어서 대대代代로 서체書體가 진전發展 되었다하였으나 이것도 국부적局部的 연구研究에 말미암은 발전發展이요 일반적一般的 연구研究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왜적倭敵의 침략侵略을 받은 後後에는 국부적局部的 연구研究까지나마 계속繼續치 못하고 이제에 이르러서는 그 체本體本조차 보기 드므러 궁체宮體의 자취를 헛되이 놓게 될까 염려念慮되는 바이다. 국부적局部的 연구研究는 즉卽 궁중宮中의 상궁尙宮과 내관內官 等等的 궁인宮人이 연구研究하여 쓰던 글씨체이니 이것이 이른바 궁체宮體라 하는것이다. 궁중宮中에서 글씨 연구研究에 힘썼을 때도 일반 사회에서는 한문漢文을 숭상崇尚하던 關係關係로 국문國文은 오직 향간巷間의 부녀婦女들만이 사용使用하였으므로 국문國文 글씨에는 더구나 관념觀念이 없었고 법法도 없이 백사람百人이면 다 각각 그 마음대로 쓸 뿐이라 서로 다 달고 글씨다운 글씨가 없었다. 이 같이 민간民間側에서는 국문國文을 부녀婦女들의 사용使用하는 글로만 간주看做하는 경향傾向이 있어 민간民間의 서체書體는 발전發展 되지 못하였으며 궁중宮中의 글씨는 향간巷間에 좀체로 흘러나오지 않아 향간巷間 부녀婦女들은 이체를 본 받기 어려웠고 자기自己 소질素質대로 써낼 뿐이어서 글씨다운 글씨가 별로 없고 속태俗態를 벗지 못하였다.

우리 글씨에는 「정자」와 「흘림」의 두 법이 있으나 이는 궁체宮體가 발달되며 분명히 나누이게 되고 판本板本의 글씨는 대개 정자로 쓰나 소설류 서적小說類書籍의 판本板本은 간혹 흘림으로 쓰고 사本寫本 서적書籍은 흘림으로 써 낸 것이 많으며 봉서封書와 글월은 흔히 흘림으로 쓰고 그중 글월만은 정자로 쓰기도 하였다. 판本板本으로서 오래되고 글씨의 자체字體로서 원시에 가까

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판본板本을 보면 자체字體가 오직 옛스러움과 질박質樸할 뿐이오 창조기創造期の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아무 발전發展된 점을 찾기 어렵고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자체字體조차 그 모양이니 창조기創造期の 서체書體라 필연적必然인 일로 추측推測된다.

그후 역조歷朝에 발간發刊된 경서언해經書諺解나 불경언해佛經諺解의 판본板本을 보면 창조기創造期 서적書籍의 자체字體와는 훨씬 진보進歩 된 듯하여 자체字體와 서법書法이 그 미미를 발휘한 듯하며 또 출판 시대에 따라 그 진보進歩의 정도와 능률能率을 엿볼 수 있으나 종시 고박古樸한 자태姿態가 많이 있어 연미研美한 모양을 자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서법書法の 발전發展된 역사歷史가 알았던 관계關係도 있다 하겠지만 판본板本の 글씨는 대개 모지고 규제적規體的인 자체字體를 썼었던 까닭인가한다.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id=CNTS-00065285375&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8~9쪽

1-3-3.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숙종肅宗 영조英祖 시대時代의 사본寫本으로된 서적書籍을 보면 서체書體가 많이 진보進歩 되어 아름다운 자태姿態를 충분充分히 발휘發揮한 듯하나 미진未盡한 곳이 아직 남아있고 정조正祖 이후以後의 서적書籍은 더욱 진보進歩 되어 자체字體로서의 미미를 전면적全面的으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철종哲宗 고종高宗 시대時代의 사본寫本으로된 서적書籍과 글일 봉서封書 등등의 서체書體는 자체字體가 가진 특징特點을 실實로 남김 없이 발휘發揮한 듯하여 그 아름다움이 날날이 드러난 감感을 금禁하기 어렵다. 다음 우리 글씨의 자체字體와 서법書法을 개평概評하면 자체字體는 딱딱하고 굳센가운데도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이 있다. 궁체宮體는 딱딱한 곳을 더욱 그 특색特色답게 나타내며 부드러운

곳을 더욱 곱게 드러내어 가장 적절適切하고 진보進歩된 체법體法이라 할수있다. 우리 문자文字는 조직적組織的이고 과학적科學的으로 제정制定되었으므로 따라서 자체字體도 순전純全히 조직적組織的이고 과학적科學的으로 구성構成되었다.

서법書法도 또한 모든법法이 전부全部 조직적組織的으로 되어 글자가 정연整然하고 아담하게 보인다. 따라서 글씨 배우기도 글배우는 것과 같이 조직적 원리組織的를 추리적推理的으로 연구研究하면 그렇게 어려운 서법書法이라 할 수 없으며 배우기 어려운 글씨라 할 수 없다.

기술既述한 바와 같이 역대歷代에 끈임 없이 발전發展을 계속繼續하다가 최근最近에 이르러 정체停滯 되었으니 그 체법體法을 더 한층 힘써 배우지 않으면 미법美法을 전승傳承키 어렵다. 여기서 더욱 노력努力하면 서법書法이 진보進歩되어 어느 정도程度에 이르러 그 묘경妙境은 반듯이 개척開拓 되리라라고 생각 한다.

우리가 오늘날 건국建國 도정途庭에 있어서 글을 보급普及시킴과 같이 이 서법書法을 전파傳播함은 역시亦是 우리의 큰 책무責務이라고 느끼는 바이며 동시同時에 교육문제教育問題로 보드라도 궁체宮體가 아니면 진정真正한 습자교육習字教育은 도저到底히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도자층指導者層에서는 이 서법書法の 원리原理를 고찰考察하고 연구研究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일昔日의 국부적局部的의 연구研究도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서 일반적一般的의 연구研究로 옮길수 있고 또 교육教育이 완전完全히 정리整理 되면 이것이 실천實踐되리라라고 믿는다.

결국結局 우리 일반一般이 우리 글씨에 궁체宮體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常識的으로 인식認識하여 문구文句를 공부工夫하고 문법文法을 연구하는 동시에 서체書體에 유의留意하여 글씨체의 전형典型과 서법書法の 대략大略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인個人 개인個人의 서체書體가 다 근거根據있고 고전적古典的이며 졸속拙俗한 누태陋態들이 어느 정도 벗을 것이다. 이 유일한 서체書體이 단순한 서체書體를 밀어버릴 수 있으며 압호로 일반적연구一般的研究의 기반基盤을 확실히確實히 닦고 필가筆家가 배출輩出하여 고래古來의 체법體法을 더 진보進歩시키고 한거름 더 나

가 더욱 정묘精妙한 필법筆法을 연구研究 실현實現해야 널리 파급波及하면 완전完全히 구비具備될 우리 문자文字의 문화文化는 가장 찬란燦爛한 앞길이 열리리라고 단언斷言할 수 있다.

(1946년一九四六年 중앙신문에 냈던것)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451&from=%EC%8B%A0%EB%AC%B8%2%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9쪽

1-4. 김충현, 「바로 찾아야 할 국문 쓰는 법」, 『서울신문』, 1948년

국문서체國文書體의 내력과 그 가치에 대한 여러 점은 내가 연전에 어느 신문지상에 수차 쓴 일이 있어 이에 상술함을 덜겠으나 요즘은 내가 본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찾아야 할 점을 더욱 느끼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나의 견해와 그 외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에 언급하겠다.

정음제정正音制正 오오백년이래 국문은 발달의 길을 밟았다기보다 침체의 액厄을 면치못한배 많아서 글 자체가 그 지경에 이르러 자국문학自國文學이 큰 성과를 못얻었으니 하물며 글씨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나위 없게 되었다.

그러나 궁중宮中에서 쓰던 글씨체 이른바 궁체宮體가 오직 하나 있어 셋별처럼 그 빛을 비쳐 없는 듯 있는 듯한 우리 글씨의 체를 전하고 법을 이어나왔으나 이 또한 국부적인 귀족문화貴族文化에 그치고 일반적인 평민문화平民文化에까지 번지기 어려웠으니 세대가 점점 멀어지는 오늘에 있어서 이 체가 많이 퍼지지 못함은 사리에 괴이怪異 할배 없다 할것이다. 우리는 이 궁체宮體를 널리 보급시켜 우리의 전해오는 아름다운 서체書體를 배워야겠으며 자체字體에 맞도록 연구 성장한 이 서체를 배워서 누구나 다 체격에 알리는 글씨를 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궁체 이상에 좋은 서체를 발견치 못하고 연구치 못한채로 궁체의 서법을 넘보고 또 날설은 개선책을 강구한 듯한 태도로 써

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오죽 하나 전해오는 그 궁체보다 훨씬 진보되고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는 서체가 연구되어 발현發現되었다면 어찌 반드시 그 궁체 하나로써 고집하리오. 이것은 자가自家의 견해에 따라 물론 각각 다르겠거니와 대체 궁체는 그 구자상構字上으로 보아 아직까지 이 이상 더 적합한 서체가 없다고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한문의 서체와 견주어 보더라도 그 점과 획畫의 발전됨이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도리어 우리글씨의 우아優雅하고 미려美麗한 점 한문의 그것보다 지나침이 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

구자상으로 보아 적합히 발전되었다 함을 다시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글짜 구성은 두 가지로 적확히 나누어졌으니 하나는 추경適勁하게 딱딱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연미妍美하게 부드러운 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더욱 특색답게 나타낸 것이 궁체 아니고 또다시 볼 것이 없으며 그중에도 흘림에 더욱 확실히 발휘되었다.

궁체 이외에는 그동안 여러 백 년 동안 가지각색으로 쓰던 향간의 글씨를 말하겠는데 이것은 워낙 등한시하고 있던 것이라 종잡을 수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써서 법을 여기서 얻을 수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 전하여 가르쳐 줄 수 없으니 즉 이만큼 혼란하게 체법 없이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체라 하면 무슨 문자에 어느 체를 막론하고 그 법에 체계가 서서 어느 구석이든지 통일된 곳이 있어 갈피를 찾을 수 있으며 갈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글씨에도 서법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자학상字學上으로 연구하여 보면 그 격격이나 법法으로 보아 조리 있고 법칙 있고 갈래와 갈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죽 궁체를 꼽을 따름이고 이외에 다시 찾아볼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남음이 있다.

또 글씨라 하면 보고 글짜로서의 이해할 만한 실용적임에 국한될 수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한걸음 달리 드디어 이해보다도 한 점 한획畫에 이르도록 예술적 흥미를 느끼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글씨에는 궁체 이외에 어디서 찾아볼 여지가 없다.

다음에 글씨에 대한 교육 문제를 들추어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곡절이 나오게 된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전일의 부끄러움을 썰어버리고 참다운 우리의 것을 찾고 배우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전에 해보지 않던 것이며 내버려두었던 것이라 이것이 갑자기 관숙慣熟하게 될 수 있으리오. 그래 여러 가지로 부문에서 눈 서투른 것도 이따금 있는 배니 그중 습자習字부문의 교육 정도를 보면 이것도 아직 손익지 못하여 해괴한 일이 여러 가지로 번가러 연출되고 있어 광정匡正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바이다. 그동안 왜체倭體가 세상에 미만彌滿하였기 때문에 왜체의 필법을 그대로 국문에까지 이용하여 쓰기, 그렇지 않으면 한문의 필법을 끌어다 쓰기,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고 덜어놓고 쓰기, 또 이 밖에 놀라운 일은 웬만큼 궁체를 보기도 하고 그 필법을 이해도 하면서 소위 친구참작新舊參酌의 의장意匠으론 지 야속野俗한 방향으로 역 발전하는 변격체變格體 이런 것들이 현금 여기저기 나타나는 점경點京이 눈여우니 이는 우리나라의 서체를 위해서 가공可憐가외可畏 할 바이며 하루바빠 말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의 철자법綴字法과 용자형식用字形式이 지금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 한 둘 아니다. 그러나 고친다하여도 이것도 어느 정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모字母의 배정配定 문제에 그칠 바이고 점획點劃의 필법과 자모의 서법에 대해서는 고칠수 없을 것이며 그 규율을 더욱 굳게 직혀 개혁하여 쓰에 틀림이 생기지 않게하여서 통일되고 법칙있는 글씨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전 글씨를 그대로 배워 익히는 것보다 더욱 주의하여 회동雷同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것이 서체에 있어서 일종의 발전이며 변천의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친구 참작도 이런 정도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 이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고쳐 낸다면 진실로 오천하蒼生誤天下蒼生의 옛말을 여기서 새로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할 것은 종縱으로나 횡橫으로나 이 두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전식으로만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종縱하나 뿐이었으나 근자에 횡서橫書가 많이 유행되어 이러한 말을 내게되는

데 우리글씨는 횡으로 써도 무방한 글씨도 있고 반드시 종이 아니면 필법상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도 있어 구자講字가 이같이 두갈래로 나느이게 되었으나 서예書藝로 본다면 특수한 관계를 비켜 놓고는 전면적으로 종으로 쓰는 것이 유려하고 또 그 래야 美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 문자에는 중심을 맞춰서 그 美를 보는 글씨 그 美를 맞춰서 그 美를 보는 글씨 또는 그 옆을 맞춰서 그 美를 보는 글씨 이런 것들 몇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 있으니 국문글씨는 그중에 옆을 맞춰서 美를 보는 글씨에 속하도록 되었다.

그 오른옆을 맞춤으로써 우리 글씨의 특별한 美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언뜻 보아 우리 글씨라는 애착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술적으로 보아서 종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누구나 그 체함에 있어서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교육에 있어서 국문을 철저히 또 중요하게 이처럼 가르침은 정음 제정이래 처음있는 일이오 또 습자과목에 있어서도 국문 습자에 이처럼 중점을 두어 가르치기 처음이니 국문습자로 보아서도 일 창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창시기에 있어서 제 지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이는 곧 백년을 그릇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반면에 자라나는 학도들에게 참답고 바른길을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슬기로운 재주에 좋은 성과를 얻어 영원히 빛날 건전하고 견고한 민족문화를 수립할 것이니 이런 때 이런 일에 어찌 길을 바로찾지 않을 수 있으랴. (1948년—一九四八年 서울신문에 냈던것)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10~13쪽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궁체宮體를 체본體本으로 만든 언문테첩 이후, 1948년부터 1997년 사이의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 책, 1949년부터 2023년 사이의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 책, 그리고 1948년부터 2023년 사이의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였다.

2-1. 『언문테첩*諺文體帖』(1917년)

궁체宮體를 체본體本으로 만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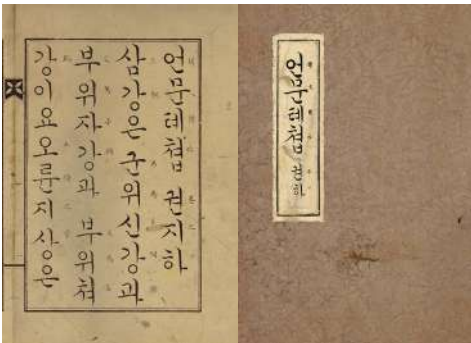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테첩體帖: 글씨를 쓸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잘 쓴 글씨를 모아 엮은 장첩粧帖



도판 11-1.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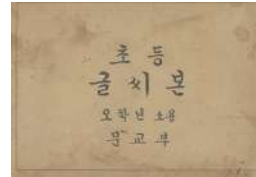
도판 11-2.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1948~1997년)

필자들이 확보한 1948년부터 1997년 사이에 출판된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 책은, 정음체도 포함된 1997년 판 『고등학교 서예』를 제외하면, 모두 궁체宮體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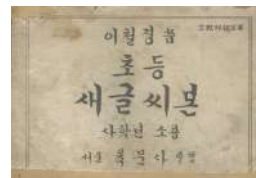
도판 11-3.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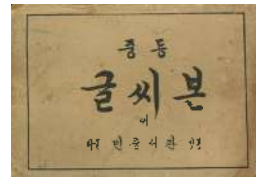
도판 11-4.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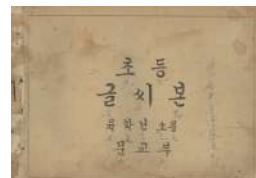
도판 11-5.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6.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년 9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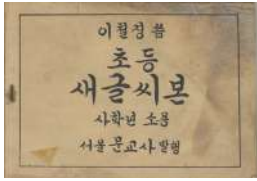
도판 11-7.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년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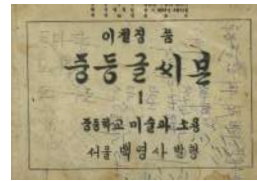
도판 11-8.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년 10월 30일



도판 11-9.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1954년 4월 5일



도판 11-10.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1955년 10월 30일



도판 11-11.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2-3.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 (1949~2023년)
필자들이 확보한 194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출간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술과美術科 책에서는 궁체宮體에 더하여 2000년부터 정음체正音體와 자유로운 서체書體 쓰기 방법도 익히도록 하고 있다.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오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경연,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삼』,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이철경, 『중학교 글씨본 3』, 우중사, 서울, 1958.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⑥』,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이철경, 『초등글씨본(전 3 권)』,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④』, 대도문화사, 서울, 1961.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5·6』, 문교부, 서울, 1976.
- 이철경, 『중학글씨본』, 우중사,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년, 1~24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년, 1~28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7년, 1~30쪽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년, 1~30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9년, 1~30쪽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년, 1~132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판본체 쓰기」, 『중학교 미술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년, 74~79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서체 쓰기」, 『중학교 미술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년, 72~77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붓과 먹으로 표현 하기」,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5쇄 2022년, 40~43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우리 글씨 판본체」,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4쇄 2021년, 36~41쪽
- 김선아, 안금희, 장지선, 윤영섭, 심효진, 박솔기, 지가혜, 이은선, 「점과 획 의 조화, 서예」, 『중학교 미술 1』,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8년, 3쇄 2023년, 92~97쪽
- 서예식, 고정근, 김기나, 김기태, 김도홍, 김정령, 도병훈, 박현정, 손동호, 오일 환, 윤여준, 윤정은, 이다정, 이민선, 이성원, 이정원, 이창식, 이혜우, 임종삼 전용각, 정문영, 정순희, 정홍순, 하지영, 「문자, 아름다움을 두드리다」, 『중학 교 미술 1』, 해냄에듀, 서울, 2018년, 58, 59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헌,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아름다운 우리 글씨, 궁체』, 『초등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70~73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헌,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마음을 담은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26, 27쪽
- 정선화, 송혜원, 정현화, 홍완표, 이지영, 김이경, 한승연, 나두리, 『아름다운 우리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미술과생활, 서울, 초판 2019년, 5쇄 2023년, 36~43쪽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1948~2023년)

필자들이 확보한 1948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일반인들이 위한 글씨본과 서예 책은 대부분이 궁체에 관한 내용이지만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와 민중民衆 각자各자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정음체正音體 관련 서적書籍의 숫자가 늘었고, 민체民體 관련 서적書籍도 많아졌다.



도판 11-12.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4월 10일

- 宋寅淳, 『理論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教育社, 서울, 1970.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한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 - 한글기초이론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金忠顯, 『김충현 쓴 일종 한글서예』, 視聽覺教育社, 서울, 1978., 1995.
- 김종각, 『한글 궁체기초필법』,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89.
- 김응현, 『보한재 신숙주선생 한글창제사적비』, 정문출판사, 서울, 1990.

- 조용선, 『한글서예』, 미술문화원, 서울, 1991.
- 金鷹顯, 『東方書範(卷一) 正音(國文)(板本體,宮體)』, 東方硏書會, 서울, 1993.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김종각, 『모범 한글서예』,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조용선, 『봉서: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7.
- (역주)의랑 이현중, 『명미가례시일기』, 대신당필방, 서울, 1998.
- 이화문화출판사(편), 『옥원동화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정주상, 『서예교실 한글서예 문장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조용선, 『한지도 · 사성록 · 품목: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가사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흘림체 가사집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고전 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배우는 법과 가르치는 법』,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성자, 『농가월령가, 옥누연가: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신명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레위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민수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출애굽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령, 『전통 새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녕, 『한국시조 500선 현대시조편: 궁체(정자·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1.
- 정주상, 『한글궁체(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2.
- 한상봉, 『(역주) 태상감응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2.
- 조성자, 『(역주) 낙성비룡』,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3.
- 여태명, 『한글 서예판본 조응전: 완판본』, 인사동문화, 2003.
- 조용선, 『일찰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조종숙(염은이), 『우리글 서체를 찾아서』,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2021.
- 지남례, 『궁체시조선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천갑녕, 『시조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해오름한글서회, 『女四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한국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6.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근순, 홍영순, 『남창별곡』,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07., 2022.
- 윤병덕, 『한글서예』, 도서출판 채운재, 서울, 2007.
- 이기대,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상』,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하』,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조용선, 『옥원동회연: 역주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김만중, 『(역주) 구운몽』,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8.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근순, 홍영순, 『백발가취몽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신영길 (역주), 이현중, 이화자, 박정숙, 윤근순, 윤미한, 이민재, 이정옥 (궁체움김), 『한양가519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白岳美術館, 서울, 2009.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십이봉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9.
- 한양근, 『체계적 한글서예 교본』, 도서출판 우람, 서울, 2009., 2022.
- 서정수, 임인선, 『(역주) 완월회맹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지남례, 『(역주) 남계연담』,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김연중, 『우리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1.
- 이석표, 이영순, 차부자, 『(역주) 인봉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조주연, 『(역주) 후수호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허준,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백경자, 『정사기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석보상절, 제6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석보, 권1』,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천강지곡 상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훈민정음 해례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김충현, 『일중 김충현: 한글서예』, 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13.
- 김종태, 『서법교본 한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3.
- 내일한자연구회, 『기초서예교본』, 매일출판, 서울, 2013.
- 조주연, 옮김, 『금강산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3., 2020.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송강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4.
- 성무빈, 『정통 한글서예』, 도서출판 매일, 서울, 2014.
- 심현섭, 『글씨는 아름답다』, 도서출판 박실현, 고양, 2014.
- 이현중, 『벗 한글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궁체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판본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나만갑, 『(역주) 산성일기: 정자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나만갑, 『(역주) 산성일기: 흘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문동호, 『한글서예기법과 실제: 궁체 판본체』, 법문 북스, 서울, 2015.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농가월령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윤호삼, 『순수한 우리말로 엮은 대울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임현순, 조주연, 흥성란(움김), 『이춘풍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장성연, 『書藝技法實技1』,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장혜자(염은이), 『규간자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한국학자료원 편집부, 『한글書藝敎本』,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해오름한글서회, 조성자, 『쓰기 쉬운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2020.

- 오동섭, 『10서체 반야바라밀다심경 5권, 9판본체, 10출림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이미경, 『꽃들 이미경 쓴 한글서예』, 학원문화사, 서울, 2016.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홍성란, 임현순, 조주연 옮김, 『부인치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6.
- 강민석, 『모정 강민석 쓴 한글어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7.
- 유혜경, 『(목향 담은) 한글서예: 한글서예작품집』,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정주환, 『고급 한글서예 정법』, 법문 북스, 서울, 2017.
- 조성자, 『궁동발기(궁중발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조주연 옮김, 『몽화가 · 토골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김경순,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리동규, 『한글서예: 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18.
- 정복동, 『월인천강지곡 상』, 이아임북, 하남, 2018.
- 정주상, 『한글서예(문장)』,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정자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흘림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지성룡, 『正史紀覽정사기람』, 도서출판 고연, 시흥,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궁체 정자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궁체 흘림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궁체 흘림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함민숙, 『한글서예』, 센스토리, 서울, 2018.
- 구자송 · 서복희 · 홍영순, 『토싱전(토생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국립한글박물관, 『공주 글씨 덕으시니: 덕은공주 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고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인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서예』, 당신의 서재, 서울, 2019.
- 조주연, 임현순, 홍성란(옮김), 『해몽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9.
- 김정희, 『우보 김정희 쓴 궁체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김진태, 『월당 김진태 쓴 한글판본체옛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박정숙, 『이진사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0.
- 이현중, 김정목, 이기훈, 이혜경, 박속희, 김선숙, 박경희, 오승연, 『새겨읽은 규합총서-권지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정광욱, 『한글궁체 길잡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허경무, 『허경무 쓴 국 · 한 서예교본 시리즈 1-20』, 한예술사, 부산, 2020.
- 리동규, 『정석 한글서예(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21.
- 이화자,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장성연, 『한글 서예』, 한국학자료원, 서울, 2021.
- 정통한글서예교실, 『정통한글서예』, 매일출판, 서울, 2021.
- 주영갑, 『이목 주영갑 쓴 한글서예 판본체』, 도서출판 고륜, 2021.
- 천갑녕, 『자연과의 대화』,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정자 · 고문 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고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판본체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옛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宋炳德,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22.
- 송병덕, 『최신 한글판본체』, 한국영상문화사/태평양저널, 서울, 2022., 2023.
- 윤영조, 『구암 윤영조 쓴 한글궁체』, 도서출판 고륜, 서울, 2022.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갑녕, 『3서체(궁체 · 조화체 · 고체)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봉근, 『청강인체교본』, 도서출판 한글, 2022.
- 김영기, 『신명학의 뿌리 서예교본 (기초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김진태, 『기초부터 완성까지 월당김진태 쓴 한글판본체교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서정수, 조주연, 차부자, 홍성란(편역), 『옥원중회연 작품명제 130선』,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3.
- 한국국학진흥원, 『내방가사: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만나다』, 한국국학진흥원, 2023.
- 한치선, 『가장 쉬운 독학 타타오 서예 첫걸음』, 동양북스, 서울, 2023.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書體本(2009~2011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1차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① 일중 김충현 ② 평보 서희환 ③ 원곡 김기승 ④ 갈물 이철경 ⑤ 꽃뜰 이미경의 한글 서체를 컴퓨터 글자체로 개발하였으며, 5종의 글꼴(폰트)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판매 계약이 만료되며 무료 개방하였다.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일중 김충현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평보 서희환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원곡 김기승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갈물 이철경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꽃뜰 이미경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2차로 개발 업체 (주)폰트뱅크와 함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①규당 조종숙 ②의당 이현종 ③아람 이한순 ④난정 이지연 ⑤한글 현병찬의 육필 원도를 제작하고, 5종의 디지털 한글 글꼴(폰트)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무료 개방하였다.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규당 조종숙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의당 이현종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아람 이한순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난정 이지연체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현병찬체

3-1.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일중 김충현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일중—中 김충현金忠顯(1921~2006)은 경성 삼흥보통학교와 중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일가이자 조부의 절친이었던 서화가 김용진金容鎭으로부터 서예를 익혔다. 1942년 중등학교 졸업 당시 한글 서예 학습서인 『국문서법연구서國文書法研究書』를 완성한 이래로 한글 서예 보급에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당시의 저술에서는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의 옛 판본체에 전서와 예서의 필법을 가미하여 고안한 서체를 선보였는데, 정인보鄭寅普에 의해 일명 ‘고체古體’로 명명된 글씨였다. 궁중에서 쓰던 궁체宮體를 연구하여 한글 서예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김충현金忠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1846

3-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평보 서희환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1934~1995)은 해방 이후 「애국시」, 「화엄경」, 「용비어천가」 등의 작품을 낸 서예가이다. 일찍이 근대의 명서가 소전素峯 손재형孫在馨에게 사사했다. 초기에는 전서 필법을 한글에 접목한 소위 “국문전서國文篆書”라는 스승의 서풍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한문에 비해 단조로운 구조와 짧은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 고졸한 문기文氣와 생동감을 불어넣으려 했다.

서희환徐喜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8324

3-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원곡 김기승 서체,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서울, 2010.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1909~2000)은 한글 서체인 원곡체를 개
발한 서예가이다. 1949년 제1회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
부에 특선하여, 문교부장관상을 받았고 1953년의 제2회 국전에
서 1955년 제4회 국전까지 잇달아 서예부 특선을 차지하여 문교
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78년 원곡서예상原谷書藝賞을 제정하
였고, 1979년에는 한국기독교미술협회에서 원곡미술상을 제정하
여 우수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독립선언서」 등이 있으며, 저서에 『한국서예사
(韓國書藝史)』 『원곡서문집(原谷書文集)』 등이 있다.

김기승金基昇, 두산백과,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
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1655](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1655)

3-4.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갈물 이철경 서체,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서울, 2008.

갈물 이철경李喆卿(1914~1989)은 1914년 6월 4일 태어났다. 이
철경은 국문학자였던 아버지의 서가에서 『신편언문테법』(남궁억
1917)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궁체 교본을 발견하였다. 이 글씨
를 연습하면서 한글 서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것이 평생을
한글 서예에 바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홍길동전』, 『사문대의록』등의 옛 글씨를 통하여, 우리 글씨의 단
아하고 정연한 아름다움, 여백과 공간의 처리, 조형 예술적 서법
을 터득하게 되었다.

1933년 『궁체쓰는법』이라는 글씨본을 출판하였으나 발행 5일
만에 모두 압수당하고 판매 금지 조치되었으며, 경찰서에 소환되
어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 본격적으로 한글 서예 보급을 위한 활

동을 시작하였다. 문교부의 의뢰로 『초등글씨본』, 『중등글씨본』
을 펴냈다.

갈물 이철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galmul/profile/

3-5.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꽃뜰 이미경 서체,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서울, 2009.

꽃뜰 이미경李美卿(1918~2022)은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네 딸 가운데 각경, 철경, 미경 세 딸이 우리 한글 서예사에 큰 업
적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교육에 헌신한 교육
사상가이자 국문학자이며 한글 연구가였던 아버지 이만규선생
의 우리 말과 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철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세 자녀에게 봄피 이각경, 갈물 이철경, 꽃뜰 이미경이라는 순우
리말 호를 지어주면서, 서예 교육을 통하여 우리 글자의 아름다
움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꽃뜰 이미경은 일몽 이흥기선생에게서
하정荷庭이란 호를 받고 한문서예를 공부하기도 하였다. 일몽선
생은 한문뿐 아니라 궁체에 대한 연구도 깊어 한글의 아름다움
을 강조하면서 궁체 점획의 특징, 작자의 묘법, 품격의 조건 등을
분석하며 꾸준한 가르침을 주었다.

꽃뜰 이미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flower/profile/

3-6.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규당 조종숙 서체, 세종대왕기
념사업회, 서울, 2011.

규당圭堂 조종숙趙琮淑(1932~) 선생은 90세에 가까운 원로로 현
재도 한글서예 관련 분야는 물론 서예전반 활동에 참여하여 적
극적인 창작가, 행정가, 교육자 활동을 하는 모범 여성 작가이
다. 규당 선생은 인품이 뛰어나 신사임당에 추대되었고, 동방대
학원 대학 명예박사와 석좌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규당 선생
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글씨를 잘 쓰며 의사로 활동한 아버

지의 영향을 받아 62년도에 동방연서회에 입회하면서 한문 서예 공부를 거쳐 한글서예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작가로 활약하게 되는 등 한문-한글서예의 실력을 단단하게 익힌 서예가이다. 현재도 한글서예계의 지도자 격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규당 선생은 한글 서체의 독특한 '다정체' 라는 창작 서체를 개발하여 컴퓨터 폰트 서체로 실용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글서예 2020년, 조종숙 구술기록, 2020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디지털 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archives/inhouse/oral/267

3-7.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의당 이현종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의당懿堂 이현종李賢鍾(1932~)은 “서예는 사랑입니다. 특히 궁체는 순수한 사랑을 주어야 글씨가 됩니다. 잡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글씨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지난 40여 년 붓을 들고 궁체와 함께 살아온 의당 이현종선생의 서예에 대한 지론持論이다.

의당 선생은 1932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한글 가운데 궁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선생의 작품에는 안정적인 결구, 점획 속에 적당한 근골 혈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아취雅趣가 풍긴다. 점획의 표정은 굳셈보다 단아하고, 고우면서 부드러운 면이 두드러진다.

정태수, 「의당 이현종: 궁체에 사랑을 담은 40년 서예의 길」, 「월간 서예문화」, 2012년 7월호

3-8.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아람 이한순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아람 이한순李漢順은 궁체 반흘림 글씨는 달소리와 흘소리 받침을 활달하게 연결하지 않은 단정한 글씨체로 썼다. 이 글씨체는 약간 흘러 쓴 반흘림체로 글씨와 글씨 사이에 연결 역시 최대한

절제하였다. 한 글씨에 받침을 기준으로 연결의 느낌을 약간만 표현하되 각각 글자마다의 독립된 안정감 있게 나타났다.

세종기념사업회, 현대한국대표서예가한글글씨본(아람 이한순), 2011.

3-9.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난정 이지연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난정蘭汀 이지연李知妍 선생. 그는 붓끝으로 노래하며 사랑을 전한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한글서예의 명인名人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에는 한국의 혼이 담겨있다.

장윤진, 「난정 이지연: 궁체의 신경지를 개척한 현시대의 신사임당」, 「위클리피플」 683호, 2010. 6. 14.

3-10.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한훤 현병찬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한훤 현병찬玄晔燦(1942~)의 글꼴(서체)은 훈민정음 서체의 원필에 근거, 판본서체로 필사됐고 가로획은 가늘거나 굵은 획으로 변화있게 조형미를 구사하는 등 아름답고 부드러운 미소형이 가미됐다.

무엇보다 정사각형의 자형으로 개발, 가로는 물론 세로로 배자하는 데 적합하고 독립된 짧은 문장은 물론 긴 문장을 유연하고 안정감 있게 쓸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기, 「현병찬 선생 한글 판본체 개발」, 『제주일보』, 2011. 4. 13., 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321

4. 최정호 崔正浩,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최정호(1916~1988)는 활자에서 사진 식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한글 원도 原圖 설계와 연구에 몰두한 1세대 글꼴 디자이너이자 연구가이다. 최정호와 같은 원도 설계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손조각 활자'는 실제 크기의 씨글자를 활자 조각가가 도장을 파듯 새겨서 만드는 방식이었다. 반면 '원도 활자'는 자, 컴퍼스, 가는 붓, 잉크 등과 같은 레터링 도구를 이용해 한 글자씩 설계한 원도를 바탕으로, '자모字母 조각기matrix cutting machine'가 활자를 깎아 주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늘을 탑재한 자모 조각기는 활자의 크기를 자유롭게 확대 축소할 수 있었고, 작은 크기의 활자도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원도를 설계할 사람이 없다면 좋은 활자를 만들어 내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활자의 완성도는 활자를 조각하는 사람이 아닌 원도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그들을 바로 글꼴 디자이너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최정호는 오늘날 쓰이는 본문용 디지털 글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특히 명조체와 고딕체는 그의 땀과 노력을 딛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컴퓨터 화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굴림체도 그의 작업이다.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컴퓨터를 할 때, 길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간판을 볼 때마다 최정호가 남긴 유산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원도 활자 시대가 열린 후 인쇄 업계에 또 한 번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일본에서 도입된 사진식자기였다. 사진식자기는 사진기와 타자기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네거티브 필름 및 유리 글자판을 만든 다음 렌즈를 이용해 글자 크기를 확대 축소해서 인화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장체, 평체, 사체 등으로 변형하는 것이 자유로워 활판 인쇄보다 능률적이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진식자기 도입 초기에는 한글 글자판이 없고 한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사진식자 회사 모리사와는 사진식자 전용 한글 원도를 최정호에게 의뢰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 업계의 경쟁사였던 샤켄 또한 최정호에게 원도 제작을 의뢰했다

는 사실이다. 두 회사 모두가 최정호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당시 한글 원도 설계자로서 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활판용 원도 제작에 익숙했던 최정호는 사진식자용 원도 제작 방법을 다시 익혀야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잉크의 번짐이 적기 때문에 글자 줄기를 조금 더 두껍게 그리는 등,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원도 설계가 필요했다. 1971년 그는 일본 모리사와에 가서 사진식자 관련 기술을 배우고 한글 원도를 그렸다. 1972년부터 모리사와 명조체와 고딕체를 세, 중, 태, 견출, 각각 네 가지 굵기로 설계했다. 샤켄 역시 최정호를 통해 샤켄 명조체, 고딕체를 비롯해 굴림체와 그래픽체, 공작체 등 수십 종의 글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표정의 최정호 원도를 탑재한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활판 인쇄를 대체하게 된다.

최정호의 사진식자용 원도는 가로쓰기를 중심으로 한 균형을 완성했다는 면에서 동아출판사체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정호는 원도 활자 시대에 활판 인쇄용 원도를 설계해 세로쓰기 글꼴의 완성도를 높였고, 사진식자판 원도를 그려 가로쓰기 글꼴의 균형을 제시했으며, 명조체, 고딕체와 같은 본문 글꼴에서부터 굴림체, 환고딕체, 공작체, 그래픽체, 궁서체 등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30여종의 다양한 한글 글꼴의 원형을 개발했다.

말년에는 글꼴 조형 원리와 구조 분석을 통해 한글 글꼴 디자인의 기초 개념을 정리했다. 1988년 그는 마지막 원도인 최정호체 崔正浩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평생 동안 남긴 작업과 노력은 한글 글꼴 디자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한글 글꼴 디자인은 최정호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해 왔다.

[최정호 - 한글 글꼴 디자이너 1세대], 『디자이너 열전』, 노은유,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entry.naver?cid=58790&docId=35777782&categoryId=58790

[최정호,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한글의 큰 스승』,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240~263쪽

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1-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제1장 개요概要에서 밝혔듯이 『재민체在民體』라는 이름의 탄생은, 김민金民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민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의 명칭名稱은 주권재민主權在民도 있으니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고 한글재민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시카고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 양(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2020년 한글날 「대한의원개원칙서」에 포함된 33자 한글 붓글씨체筆體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감성의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Hangeul Jaemin Font를 개발하였고, 2020년 574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는 새로운 한글 글꼴 한글재민체를 발표하는 특별전을 했다. 한글재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혁, 「한글 글꼴 만든 癘 박사 “손준 황제 칙서의 단아함에 반했죠”」, 『조선일보』, 2020. 10. 7.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19~330.

한글재민체는 세계시민의 글꼴이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을 위해 개발한 글자체이다.

하철용, 개인 교신

단아하게 정돈된 현대적 감성의 폰트로써 편히 쓸 수 있는 깔끔하고 미려한 서체이다.

박갑수, 개인 교신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쪽

1-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벌의 디지털 폰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함께 쓰이는 한자, 영자, 숫자와 문장부호 등이 일관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성 폰트에서 한자가 제외되는 현실이다. 국한문 혼용 칙서의 붓글씨체에서 탄생한 한글재민체에는 한글과 동일한 스타일의 한자가 탑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020년 한글재민체를 무료 배포한 이후부터 한자 개발을 시작하였다. KS 표준한자 4,888자를 완성하고 2021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한글재민체2.0을 발표하는 특별전을 했으며 이 또한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

증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모든 국민이 ‘한글재민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2022년 5월 25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배포를 시작한 「한글재민체3.0 韓契在民體3.0 Hangeul Jaemin Font 3.0」에는 기존 한글재민체2.0의 KS 표준한자 4,888자에 더하여 한국한자 203자와 박재갑의 선조先祖의 문집 한자 49자, 김채식 대표가 추천한 고문헌 한자 205자, 2021년 말 기준 대법원 인명용 한자 8,279자 중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한자 총 8,682자를 탑재시켰다. 전국 지명 한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한국한자 203자를 발굴하여 디지털로 남긴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무료 배포한 『한글재민체2.0』 버전은 서예 작품의 세로쓰기 모본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문 가로쓰기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에 개원칙서의 멋을 오롯이 담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글재민체3.0』에서는 이러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하여 수려한 글꼴로 완성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1-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2022년 3월에는 중국에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유학하러 온 진항가陳鳳嘉가 새롭게 연구팀에 합류하여 숙원이었던 한글재민체의 국제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시되는 간체자 폰트에는 약 25,000자의 글자가 수록되지만, 한글재민체에는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 6,763자를 탑재시켰다. 진항가 박사과정생과 그의 지도교수 김민은 표준 간체자 6,763자를 약 6개월에 걸쳐 제작하였고 9월 가을학기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또 다른 박사과정생 김지영이 연구팀에 추가 합류하여 일본 한자 6,776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가나 문자 207자를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완성하게 되었다.

5월까지 기술적인 코딩작업까지 마치고 국내 최고의 글꼴 전문 기업 (주)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전국의 대학,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한글, 로만, 아라비아숫자, 번체자, 간체자, 가나 문자 및 일본표준 한자를 동일한 필체로 개발한 ‘한글재민체4.0’ 5만 벌을 무료로 배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700여 종의 디지털 폰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과 로만문자, 번체자, 간체자, 일본 문자까지 동일한 모양의 자소로 구성된 디지털 폰트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자평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번체자繁體字는 물론, 이웃 중국의 간체자簡體字와 일본 문자和文字를 한글과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개발시간과 비용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시 한 벌의 서체라는 것이 한글과 로만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글재민체는 2019년부터 4년간 많은 이들이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가능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진항가陳鳳嘉, 김민김민,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2023;456:74~76.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40쪽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1-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2023년 한글날에는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5.0』이 출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와 수원여자대학교 김미애 교수가 중심이 되어 ㅎ(여린히읇), ㅎ(옛이읇), ㄷ(반치읇), ㄹ(아래아) 등 사라진 문자를 되살리고 훈민정음 창제 때 사용했던 획이나 점 등의 부호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문자들로 한글재민체5.0을 완성했다. 자음 94자, 모음 30자, 성조·첨자·장음 10자 등 기본 134자로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풀어쓰기 타이핑을 위한 입력시스템 개발은 (주)윤디자인그룹에서 기술을 지원하여 완성되었다.

김미애, 김민, 『국제음성기호 표기를 위한 한글 형태 연구-한글 신자소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23;24:19~32.

이영관, 「'P'와 'F' 구분하는 글꼴 만든 교수들」, 『조선일보』, 2023. 10. 9.

이순녀, 「한글 풀어쓰기 ‘재민체5.0’ 개발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이순녀의 이사람] “소수민족 등 세계 모든 언어 발음… 한글 풀어쓰기로 표기 가능해요”/논설위원」, 『서울신문』, 2023. 10. 26.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維컨대國運의隆替는國民의健痺에因함이多한지라我國의現狀을察컨대衛生思想이尙히幼穉하고救療機關이不備함으로朕이

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하여有司로하여금長을友邦에取하여醫術의普及과振興함을計코저하여大韓醫院을創設함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함을因하여今에工가告竣하고開院의式을擧하니蓋院務가業已就緒하여其效果의曙光이漸次로遐邇에及하여四民이其惠澤에浴함은朕心에滿足하는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하고其道는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勵함을倚藉하여此를庶幾大成케하노니爾臣僚는朕旨를克體할지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1908년 순종 황제가 내린 구한말 문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속의 필체에 담긴 단아하면서도 독특한 자소 및 온글자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再解釋 한 폰트의 제작 과정을 제시한다.

개원칙서는 한글(107자)과 한자(176자)의 비중이 약 4 대 6으로 나타나지만, 중복되는 글자를 제외하면 추출할 수 있는 한글 글자는 총 33자에 불과하다. 글자 수가 한글 완성형 폰트를 구성하는 2,350자의 1.4%밖에 되지 않아 주어진 문서의 포맷과 자소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는 한자의 일부분을 차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1.

*이규선, 개인 교신, 2023. 9. 4.

2-1. 관공체官公體 107자, 33 낱자,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가	가	고	고	고	곰	과	과	니
니	니	나	노	느	느	느	느	다
디	디	라	라	러	로	로	로	를
를	를	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에	에	에	에	에	에
으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저	지	지	게	견
견	코	히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2-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필체筆體 비교

개원칙서의 필체와 조선 시대 후기에 기록된 「옥원중회연玉鶯重會緣」 21권 중 11권의 궁체정자와 비교했을 때 조형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옥원중회연은 송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 소설을 붓으로 써서 만든 필사본이다. 이 책의 정자체와 흘림체는 여러 궁체 필사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쓴 것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움이 뛰어나 서예 교본체로 줄곧 활용되어 왔다.

이정자,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서예학연구, 2015;27:284~323.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 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5.

1) 세로획의 형태



옥원중회연의 세로획 첫 돌기는 좌측으로 기운 형태를 하지만, 개원칙서의 첫 돌기는 수직형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다. 맺음에서도 두 글꼴은 차이를 보인다. 옥원중회연의 맺음은 첫 돌기를 상하로 반전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원칙서의 맺음은 아래로 곧게 뻗는 형태를 갖춘다.

2) 기울기



옥원중회연과 개원칙서의 가로획 기울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수평에 가까운 옥원중회연 글자의 가로획과는 달리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약 30°의 비탈진 기울기를 주어 날렵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남긴다.

3) 꼭지점 / 4) 결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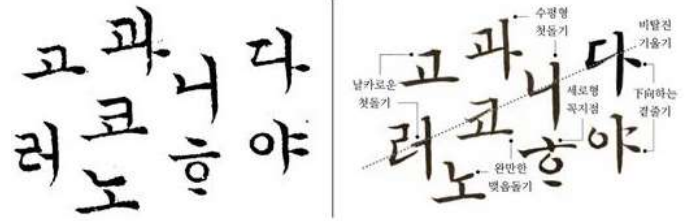


옥원중회연의 ‘ㅎ’ 끝 꼭지점은 수평에 가깝게 누워있지만, 개원칙서의 꼭지점은 수직으로 가로획에 닿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옥원중회연 모음의 결줄기는 수직으로 뻗지만, 개원칙서의 결줄기는 하단에 방울로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야’의 결줄기는 흘림의 형태를 보여 식별 역할을 한다.

‘ㅇ’꼴의 형태



정원正圓에 가까운 옥원중회연의 ‘ㅇ’ 꼴에 반해 개원칙서는 열린 ‘ㅇ’ 꼴의 모습을 한다.



도판 12-1. 「옥원중회연」(좌)과 「대한의원개원칙서」(우)에서 선택한 글자들의 비교

「옥원중회연」 21권 중 11권의 궁체정자와 개원칙서의 필체를 비교(도판 12-1)했을 때 드러나는 조형적 차이를 1) 세로획의 형태, 2) 기울기, 3) 꼭지점, 4) 결줄기, 그리고 5) ‘ㅇ’의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옥원중회연의 글자들은 네모틀 구조에 맞춰 넣은 듯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그보다 장체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두 글꼴의 차이는 필압筆壓과 필속筆速에서도 볼 수 있다. 칩서의 세로획들은 상단에서 빠르게 하단으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곧게 떨어지다가 날렵하게 맺어지고, 가로획들은 붓보다는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울기와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옥원중회연은 글꼴의 획 굵기가 전반적으로 균일하여 부드럽고 정돈된 인상을 준다. 반면 개원칙서의 글꼴은 획 굵기의 대비가 크게 나타나 붓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날렵한 첫 돌기와 비탈진 기울기를 통해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완만한 맺음돌기와 하향하며 동그랗게 맺히는 결줄기에서는 필획의 섬세한 단아함이 느껴진다.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2-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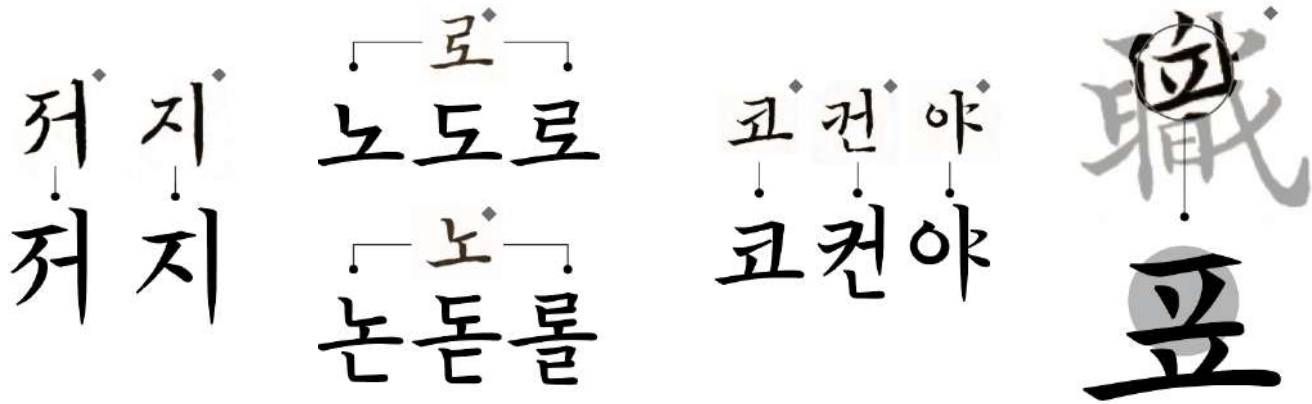
도판 12-2. 한글재민체의 주요 특징과 개념적 표현

폰트를 제작할 때 벡터vector로 포인트point와 앵커anchor를 활용하여 자소를 구현해 나간다. 한글재민체는 구성 포인트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미려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가로획 시작에는 붓을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예리한 느낌을 담았다. 일부 글자 자소는 비스듬한 기울기의 사체斜體로 긴장감을 부여했고 획의 굵기 변화를 최소화하여 절제된 선비의 필의筆意를 표현했다. 종성 ‘ㄱ’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느낌을 주었다. 칩서에서 볼 수 있었던 열린 ‘ㅇ’은 박재갑의 서예 스타일을 감안하여 배제했다.

도판 1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재민의 곧고 날렵한 세로 획과 완만하고 부드러운 가로획에 내유외강內柔外剛을 표현했다. 비침의 속도에서 결하지세決河之勢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

고 획의 시작은 날카롭게, 마무리는 부드럽게 나타나어 정문일침 頂門一鍼의 기세를 부여했다. 개원칩서에서 볼 수 있었던 획 굵기의 대비를 한글재민 획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넣음으로써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개원칩서에는 이원화二元化된 자소 특징들이 나타난다. 한 문서 안에서 같은 원리를 자소에 부여하지 않고, 때에 따라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규칙이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이원화라고 칭한다. 자소 이원화는 손 글씨만이 가질 수 있는 묘미이기도 하다.

2-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원칙



도판 12-3. 개원칙서 원본의 자소를 이원화한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4. 개원칙서 원본 자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한글재민체 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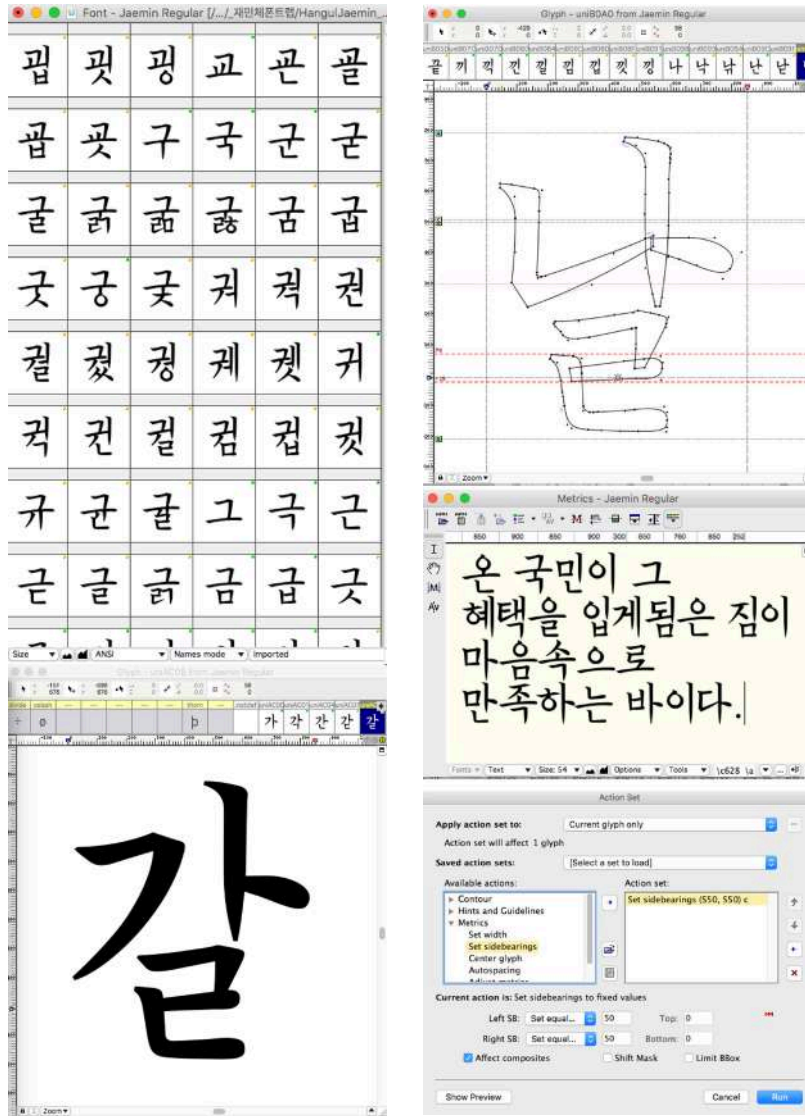
도판 12-3은 개원칙서의 이원화된 자소를 한글재민체에 적용한 모습이다. 개원칙서에는 ‘ㅈ’이 2획으로 구성된 꺾임지읒과 3획으로 구성된 갈래지읒이 공존한다. 한글재민을 제작할 때 서체의 전체적인 시각적 일관성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ㅈ’ 형태 대신 일괄적으로 갈래지읒을 사용했다. ‘저’의 초성 우측으로 곁줄기가 붙자 갈래지읒의 내리점이 좌측 하단으로 곡선을 이루지만 ‘지’의 경우 초성 우측으로 곁줄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리점이 우측으로 맺는 형태를 갖춘다. 개원칙서 속에서는 ‘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ㅈ’과 같은 원리로 자소를 이원화하였다.

초성이 ‘ㄴ, ㄷ, ㄹ’인 세로모임 민글자와 받침글자의 경우에는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이원화 규칙을 한글재민에 가져와 일괄적으로 파생하였다. 세로모임 민글자의 경우에는 초성의 돌기가 맺기 전에 중성의 짧은 기둥에 날카롭게 이어진다. 받침이 올 때는 초성의 끝맺음 돌기를 부드럽게 맺고 중성의 짧은 기둥이 초성의 가로획 중간에 겹치면서 위치한다.

‘코’, ‘컨’, ‘야’의 형태는 원본의 모습을 최대한 살렸다. 특히 ‘ㅈ’의 흘러 쓰듯 이어지는 윗곁줄기와 아래곁줄기는 한글재민의 식별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손 글씨의 맛을 살릴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와 한글재민에 녹여냈다. 턱없이 부족했던 한글 글자의 개수 때문에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한자의 특징을 한글에 적용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원고의 ‘職(직분 직)’자에 있는 ‘立(설립)’에서 ‘표’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글 글자 원형에 대입시켰다. 두 세로획의 각도와 가로획과 만나는 형태를 ‘표’에 대입하듯 ‘표’에도 반영하였다.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

2-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폰트 제작 과정



도판 12-5. 폰트랩스튜디오5를 활용한 폰트 제작 과정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8.

폰트는 크게 비트맵(bitmap) 폰트와 아웃라인 폰트로 구분된다. 한글재민은 픽셀 이미지로 제작된 비트맵 폰트가 아닌 벡터로 제작된 아웃라인 폰트이며, 윈도우즈와 매킨토시 환경에 모두 설치 가능하도록 OTF, OpenType Font와 TTF, TrueType Font 두 종류를 개발했다. 초창기 폰트의 쓰임새가 출판 인쇄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 방송 자막, 개인용 PC,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폰트가 쓰이는 디스플레이 환경에 맞게 다양한 폰트 제작 툴도 점차 발전해 왔다.

박성훈 · 정유권, 「폰트 제작 툴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8.10., typographyseoul.com/%ed%8f%b0%ed%8a%b8-%ec%a0%9c%ec%9e%91-%ed%88%b4%ea%b3%bc-%eb%94%94%ec%9e%90%ec%9d%b4%eb%84%88/

2019년 기준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폰트 개발툴은 드리거Driger, 폰트랩FontLab, 글립스Glyphs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폰트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9년 연구보고,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 디지털 글꼴 산업을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 2019.

본 연구에서는 폰트랩스튜디오5 FontLab Studio 5를 활용하여 폰트를 개발했다. 다음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된 벡터 글자를 폰트랩으로 진행한 폰트 개발 과정이다.

1. 폰트랩 2,350자 vfb파일을 열면 ‘가’에서 ‘힉’까지 글자 고유의 글립glyph셀이 생성된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미리 제작된 한글 글자를 복사하여 폰트랩 글립셀에 옮겨 붙인다.
2. 불려온 글자들의 점과 앵커를 정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지닌 글자 셀에 유사 자소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파생시킨다. 예를 들어 같은 ‘ㄱ’ 모음을 가진 글자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글립셀에서 이미 정리된 자소를 복사하여 해당 셀에 붙여 넣는다.
3. 글자들을 만들면서 마크mark 기능을 이용하면 각각의 셀에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다. 같은 형태의 글자끼리 구별을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스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 기능을 이용하면 진행 과정이 더욱 수월하다.

4.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장 속 글자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수시로 검토하여 글줄, 획의 두께, 크기 등을 수정하면서 진행한다. 문장에서 비교할 글자들을 선택하여 매트릭스metrics 창을 열면 글자 간의 간격, 자폭, 자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한글을 마치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제작한다. 한글의 느낌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획의 기울기, 두께, 맺음 등을 반영한다.
6. 유사한 구조를 지닌 글자들끼리 묶어 Action Set 기능을 활용하면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
7. 모든 글립셀의 문자를 빠짐없이 제작한 후 ‘폰트 내보내기’를 한다. OTF, TTF의 구분을 명확히 한 후 폰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폰트 한 벌이 생성된다.
8. 생성된 폰트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판 테스트를 한다. 이때 글자 크기, 굵기의 통일성, 글자 간의 공간 안배, 글줄의 중심선, 가독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 작업에 반영한다. 수정 작업 완료 후에 폰트를 완성한다.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328.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비교*

폰트파일 기준 : 「한글재민체4.0」 / 「이현종글씨」

「한글재민체4.0」

대한제국 순종 황제께서 근대식 국립병원으로써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리신 대한의원개원칙서

「이현종글씨」

대한제국 순종 황제께서 근대식 국립병원으로써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리신 대한의원개원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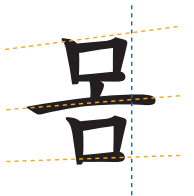
대한제국

얇은 붓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날카로운 느낌의 장체구조로
가변폭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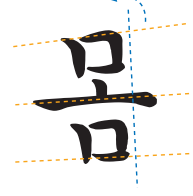
대한제국

보통 붓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부드러운 느낌의 정체구조로
고정폭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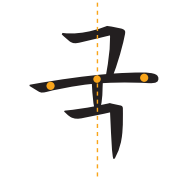
상단의 기울기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안정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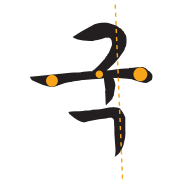


상단의 기울기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안정감이 있긴하나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보임

진



세로모임꼴의 경우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으며,
붓의 느낌은 있지만
거의 같은 굵기를 유지하는 획



세로모임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며,
붓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굵기 변화가 있는 획
(중성 가로보에서 굵기 변화가 더 느껴짐)



중성 기둥과
삐침의 경우 시원하게
곧게 뻗고 있음

맘몸



중성 기둥의 경우 곧게 뻗다가
맺음 부분에서 굵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소 간 공간이 넓은 구조로
자소의 크기 감이 작음

맘몸

* 임광규, 개인 교신, 2024. 2. 20.

근원

또박또박 쓴 느낌으로
자형에 충실한 느낌

근원

붓의 흐름이 돋보이는
자형의 느낌이며,
혼합 꼴의 경우 이음보가
기둥에 붙는 특징

대한의원으로

대한의원으로

ㅎㅇㅇㅇ

동글 이음의 속 공간이 비슷하여
자형의 크기 감이 같아 보이고
밝고 명쾌한 느낌

ㅎㅇㅇㅇ

동글 이음의 속 공간이 비슷하여
자형의 크기 감이 같아 보이고
정원보다는 살짝 타원의 느낌

하함황흥

초성 ‘ㅎ’의 꼭지점이 세로형으로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 보임(동글 이음이
가로줄기와 상황에 따라 붙고 떨어짐)

하함황흥

초성 ‘ㅎ’의 꼭지점이 가로형으로
공간 문제로 인한 동글 이음이
타원형으로 표현

황제께서

자형 크기를 고려 공간을 활용한 적절한 자소의 크기 감 적용
(중성 기둥의 첫돌기 크기가 크지 않아 공간 활용이 좋아 보임)

황제께서

자형 크기에 비해 작은 자소의 느낌
(중성 기둥의 첫돌기 크기로 인한 영향 있어 보이며,
세로짜기의 구조 영향으로 무게중심이 내려와 있음)

전체적으로 두 글꼴의 도구가 붓이라는 것에 대해 획의 표현 방식이나 자소들의 형태는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글자 폭이나 획의 굵기, 자소의 크기, 기울기 표현 등 글자 내의 공간 여백이 다름으로 인해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재민체의 경우 자형에 충실하게 또박또박 쓴 시원한 필체가 느껴지는 현대적인 글꼴로 보이며, 이현종글씨는 부드럽고 눈에 익숙함이 있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가	각	간	간	갈	갈	감	감	갑
값	갓	갓	강	갓	갓	갑	값	강
개	객	간	갯	갸	갸	갸	갸	갸
가	각	간	갈	갓	강	개	간	갯
거	적	건	건	걸	겉	검	겉	것
것	경	것	겉	겉	경	계	겐	겉
겉	겉	겉	겉	겉	겨	격	겨	건
견	견	견	견	견	견	견	견	견

겐	겔	겍	겓	고	곡	근	곤	골
굼	굶	굷	굹	굽	곶	궁	곶	과
곽	관	팔	팜	팜	팍	팻	팡	패
팬	팰	팹	팿	팽	피	픽	핀	필
핼	핼	핻	핼	교	꾼	골	곶	곶
구	국	군	군	굴	굴	굼	굷	굼
굽	곶	궁	곶	귀	귀	권	귈	곶
귈	계	곶	귀	귀	권	귈	김	곶
곶	규	군	굴	그	극	근	근	굴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금	금	금	긋	궁	괴	기	긱	긴
긴	길	깊	김	깁	깃	깁	긱	깊
까	각	깁	칸	칼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깁

꽤	꽤	꽤	피	핀	필	핼	핼	핑
꼬	꾸	꾸	곤	골	곶	곰	곱	곳
공	곳	귀	귓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꿘
꾸	끄	꾸	곤	곶	곶	곶	곶	곶
곰	곳	공	곶	끼	끼	끼	끼	끼
깍	깍	깍	나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내	낙	낙	낙	낙	낙	낙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냈	냉	나	낙	난	날	남	냥	너
넉	넋	년	널	넝	넞	넟	넠	넢
넣	넕	넙	네	넥	넨	넴	넷	넸
넷	넹	넺	녀	넻	넼	넽	넾	넿
넺	넻	넼	네	넽	노	녹	논	놀
눔	놈	눔	נות	농	높	놓	뇌	뵈
뵈	뵉	뇌	뵊	뵋	뵌	뵍	뵑	뇨
눅	눉	놀이	눇	눈	눉	누	눅	눈
눈	놀이	눔	눇	נות	농	눠	뵉	체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늪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델	데미	덥	덧	덧	딩	녀	년	널
녇	녕	데	덴	도	독	돈	돈	돌
둠	둑	돔	뎡	돗	동	돗	돌	되
뎡	뎡	돼	땃	되	뎡	뎡	뎡	뎡
뎡	뎡	두	둑	둔	둘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뎡
디	딕	딘	딘	딜	딤	딤	딤	딤

딩	딛	따	딱	판	딸	맘	맬	맛
땃	땅	팡	때	택	땀	딸	멤	맬
땃	땃	땃	떠	떡	땀	떨	떨	떨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띠	띤	띰	띱	띲	띳	띴	라	락
란	랄	람	랍	랏	랗	랑	랗	랠
랴	래	랙	랜	랴	램	랩	랏	랗
랭	랴	략	란	랗	랴	려	럭	런
렐	렘	렙	럿	럗	렐	렐	레	렉
렌	렐	렘	렙	럿	렐	려	럭	런
렗	렘	렙	럿	럗	렐	레	렌	렙
렛	로	록	론	롤	롬	롭	롯	롱
뢰	뢰	뢰	뢻	뢰	뢴	뢶	뢷	뢸

뤿	뤿	료	룬	롤	롭	룻	롱	루
룩	룬	롤	룸	롭	룻	룽	뤿	뤿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룩	룬	롤	룸	롭	룻	룽	르	르
른	를	름	릅	רט	רנג	רט	רט	רט
리	릭	린	릴	림	립	릿	링	마
막	만	많	만	말	맏	맏	맘	맏
맛	망	맛	말	망	매	맥	맨	맏
멤	맵	맏	맏	맹	맏	마	막	말

망	머	먹	먼	멀	멈	멈	멈	멋
멍	멋	멍	메	멕	멘	멜	멤	멤
멧	멧	멧	며	며	면	멸	멋	멋
명	멧	메	모	목	몫	몬	몰	몫
몸	몫	몫	몽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뫼

뭍	뭇	므	믄	믈	믐	믓	미	믹
민	민	밀	밋	밈	밉	밋	밋	밍
밋	밋	바	박	밖	밖	반	반	발
밖	밖	밖	밤	밖	밖	방	발	배
백	밴	밸	뱀	뱀	뱃	뱃	뱅	뱃
바	박	반	밖	버	벅	번	벌	벌
범	범	범	벗	벉	벗	베	벉	벤
벤	벨	뱀	뱀	벋	벋	벉	벼	벉
변	벌	범	벗	벗	벉	벌	베	벤

보	복	뷰	본	볼	봄	뵈	붓	봉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밴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뵤

샐	생	샤	삭	산	살	삼	삽	삿
상	새	샤	셜	샘	생	서	석	쉬
씩	션	씬	설	슌	슌	침	침	씻
섯	성	설	세	섹	센	셀	셈	셋
셋	셋	셩	셔	석	션	셜	섬	섭
섯	섯	셩	셰	셴	셀	셩	소	속
슈	손	솔	슌	솨	솨	솨	송	솔
쇠	쇳	환	살	왕	쇄	췌	췌	쌘
셋	셋	쇠	췌	실	솨	솨	솨	쇼

속	손	솔	솨	솨	솨	송	수	숙
순	순	술	숨	습	숯	송	숯	술
슌	쉬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쉬	쉬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숙	술	숨	숯	송	스	숙	순	슬
슌	슴	습	숯	송	시	식	신	심
실	싫	심	십	싯	싱	실	싸	씩
싯	싼	쌀	쌘	쌘	싯	쌍	쌍	쌘
씩	싼	쌀	쌘	쌘	싯	쌍	쌍	쌘

씩	씬	설	씩	씩	씩	씩	씩	씩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썸

알	애	액	앤	앨	앰	앹	앳	앷
앵	야	약	얀	얄	얹	얹	얹	얹
양	얹	양	애	앤	앨	앹	어	억
언	엷	언	얼	얼	엹	엄	업	엷
엇	엇	엷	엇	억	엹	에	엑	엔
엘	엠	엹	엇	엷	여	억	엹	연
얼	엹	엹	엄	엹	엷	엇	엷	영
열	엹	영	예	엔	엘	엠	엹	엷
엷	오	옥	온	올	올	올	올	올

음	읍	옷	옹	웃	와	웁	완	왁
웁	왁	왓	왓	왕	왜	웁	웁	웁
왓	웁	외	외	윈	윳	웁	웁	웁
윳	요	육	윤	을	음	읍	웃	옹
우	육	윤	을	을	음	읍	웃	웃
웅	윳	윳	윈	윳	웁	웁	윳	윳
웨	웁	웁	윳	웁	웁	윳	윳	윳
윈	윳	웁	웁	윳	윳	윳	윳	윳
을	음	읍	웃	윳	윳	으	으	은

을	을	음	읍	웃	응	웃	웃	으
을	을	웅	의	인	일	임	잇	이
익	인	일	입	입	잇	임	입	잇
잇	잉	잇	일	자	작	잔	잡	잔
잘	잡	잠	잡	жат	жат	장	жат	재
재	잔	젤	젼	젼	젼	젼	젼	재
작	잔	잡	잘	잠	장	재	잔	젤
저	적	전	절	젼	젼	젼	젼	젼
젼	제	젝	젠	젤	젼	젼	젼	젼

저	전	절	점	첩	젯	정	제	조
족	존	졸	죵	죵	죵	죵	죵	죵
죵	죵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젯	쟁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쵸	족	존	죵	주	죽	준	줄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쵸
지	직	진	진	질	집	집	집	짓

징	직	질	질	짜	작	잔	잡	잘
잡	잠	잡	жат	жат	장	재	재	재
잘	잠	잡	жат	жат	장	재	재	재
저	적	전	질	짐	짐	젓	젓	정
제	정	져	젓	조	쪽	존	졸	좁
좁	젓	종	젓	좌	좌	잘	잘	재
젓	좌	전	질	짐	짐	종	주	쪽
존	졸	좁	좁	종	쥐	젓	정	쥐
쥬	쥬	좁	젓	종	찌	직	진	질

짚	짚	짚	짚	짚	차	착	찬	참
찰	참	참	참	참	창	창	채	책
찬	채	채	채	채	창	창	차	찬
참	찰	참	창	처	척	천	철	침
침	첫	첫	청	체	척	첸	첼	침
첵	첵	첵	쳐	천	첵	체	첸	첵
초	추	촌	출	춤	춤	춧	총	최
찬	찰	창	최	최	철	침	침	최
최	초	춤	추	추	춘	출	춤	춤

춧	춡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춣
카	카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캐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경	케	코	꼭	콘	콜	콤	콥	콧
콩	과	곽	관	팔	팜	팡	패	팽
괴	필	쿄	쿠	국	쿤	쿨	쿰	콥
kut	쿠	퀴	퀸	퀼	퀶	퀘	퀸	퀴
킵	퀸	퀼	퀸	킵	킷	퀶	큐	쿤
쿨	쿰	크	쿠	콘	클	컴	콥	콩
키	킵	킨	킬	킴	킵	킷	킹	타
탁	탄	탈	탁	탐	탑	탓	탓	탕
태	택	탠	탈	탐	탭	탓	탓	탱

타	탕	터	턱	턴	털	텨	텀	텨
텨	텨	텨	테	텍	텐	텔	템	텨
텨	텨	터	턴	텨	테	텐	토	투
톤	톨	툼	툼	툼	통	툼	퇴	툼
퇴	퇴	툼	툼	툼	툼	투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툼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틴	틸	팀	팁	틋	팅	파	팍	팍
판	팔	팜	팸	팹	팻	팿	팡	팔
패	팩	팬	팰	팹	팺	팿	팿	팽
파	팍	퍼	퍽	핀	펄	핼	핼	핏
펏	핑	페	퍽	펜	펠	핼	핼	펏
펑	펴	핀	펄	핼	핼	펏	핑	페
펠	핼	펏	포	푼	폰	폴	폼	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푼

품	풋	퐁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하	학	한	할	하	함
합	하	항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하	항	허	허	헌	헐
헐	헐	헐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호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후	훈	훈	훈	흠	흠	훗	홍	훈
화	확	환	활	왓	황	해	핵	훤
훗	행	회	획	흰	힐	휩	휩	횡
효	훈	훈	흠	훗	후	후	훈	훈
훈	흠	훗	홍	휘	흰	휩	휩	횡
혜	핵	훤	휩	횡	휘	획	흰	휩
휩	휩	휩	횡	휴	후	훈	훈	흠
훗	홍	흐	후	훈	흠	훈	훈	후
흠	흠	훗	홍	훈	획	흰	힐	힘

힉 ힽ 히 혁 ힿ 힐 힘 ힹ hit
히

제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결구법結構法*

한글재민체의 인상

단아端雅하고 단정端正한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자형字形은 전반적으로 글씨의 가로 폭보다 세로 폭이 긴 수직垂直의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어서 역동적力動的인 느낌을 주고 있다. 동시에 결구結構에 있어서는 획과 획 사이가 조밀稠密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짜임새가 단단한 느낌을 준다.

한글재민체는 「한글재민체4.0」 폰트를, 궁체정자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연구원에서 제작하고 공급하는 「이현종글씨」 폰트를 사용하였다.

* 김선숙, 박병천, 이현정, 손신진, 김복희, 장광순, 정재두, 장혜자, 개인 교신, 2023년 9월 ~ 2024년 2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기본基本 자모음자子母音字

폰트파일 기준 : 「한글재민체4.0」 / 「이현종글씨」

기본 자음 14자

「한글재민체4.0」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현종글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본 모음 10자

「한글재민체4.0」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현종글씨」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자모음자子母音字的 위치별 획형劃形

「한글재민체4.0」

각곡년눈달돋를몸밥섯숫영웅젓

「이현종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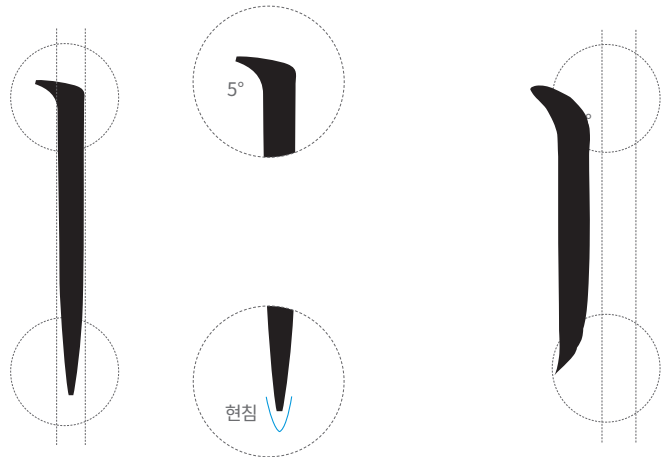
각곡년눈달돋를몸밥섯숫영웅젓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획劃

세로획 쓰기

한글재민체의 세로획은 머리 부분의 각도가 5°에 가깝게, 절법折法으로 면을 바꿔 각지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획을 마무리할 때는 붓끝을 중봉中鋒으로 모아 내려오면서 현침懸針으로 마무리한다.

이와 달리 궁체는 머리 부분의 각도가 45°에 가까우며, 전법轉法으로 붓을 돌려 둥글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획을 마무리할 때는 붓을 약간 멈추는 듯하다가 붓끝을 모아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가늘게 마무리한다.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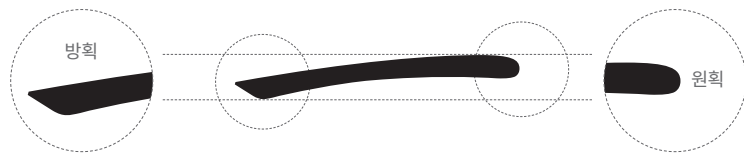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가로획 쓰기

한글재민체의 가로획은 기필 처에서 수필 처까지의 굵기 변화가 적고, 획의 방향은 수필 부분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게 나타났다.

붓을 역입하여 5° 각도의 사선 형태로 절折을 하여 방필方筆이 되도록 하고 중봉中鋒으로 모아 붓을 오른쪽으로 행필行筆 하면서 원필圓筆로 거두어들인다.

위를 향하여 탄력적으로 휘어져 있게 한다. 이같이 한글재민체 자형에 역동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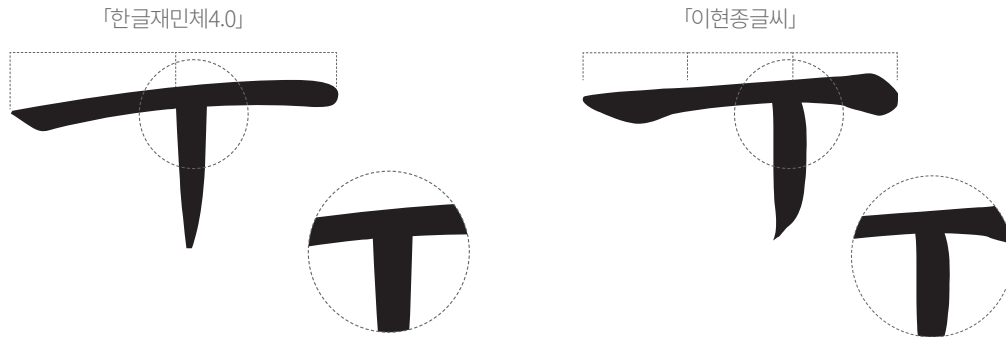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가로획에서 세로획 결합

‘ㄱ’에서 한글재민체의 세로획은 가로획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가로획의 속에서 시작한다.

‘구’에서 궁체는 세로획이 가로획의 2/3 부분에 위치하고, 가로획과 살짝 닿으며 시작한다.

예외로 한글재민체의 ‘긔, 궈, 귀’는 ‘ㄱ’획과 다르게 가로획에 살짝 닿으며 시작한다.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點點

ㅏ, ㅑ, ㅓ, ㅕ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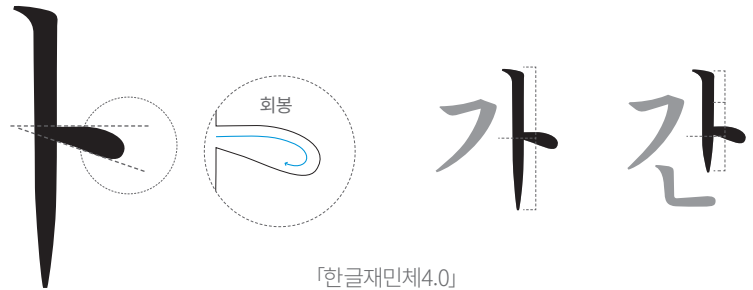
한글재민체의 점의 모양은 궁체와 다르게 수평 획으로 나타내지 않고 밑으로 내리면서 점을 찍는다.

‘ㅏ’에서의 점의 위치는 받침이 없는 경우 세로획 중간인 1/2 위치에 접필接筆하고, 받침이 있는 경우 2/3 위치에 접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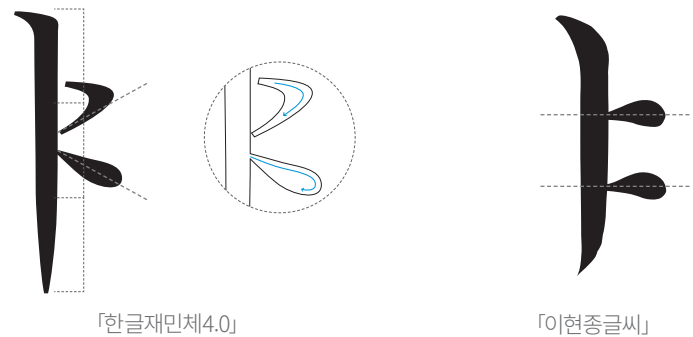
‘ㅑ’는 받침이 없는 경우 ‘ㅣ’ 모음 획의 1/3 위치에서 가볍게 평점을 찍으면서 방향을 아래로 이어지는 획형劃形으로 흘러 아래 점과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낸다. 아래 점은 밑으로 내리면서 회봉한다.

궁체의 ‘ㅑ’는 두 점의 방향과 모양이 같지만, 한글재민체의 ‘ㅑ’는 두 점이 이어지는 형태 이면서 방향과 모양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한글재민체의 ‘ㅓ’, ‘ㅕ’는 약간 치켜 올리는 형태로 가로획을 짧게 세로획과 접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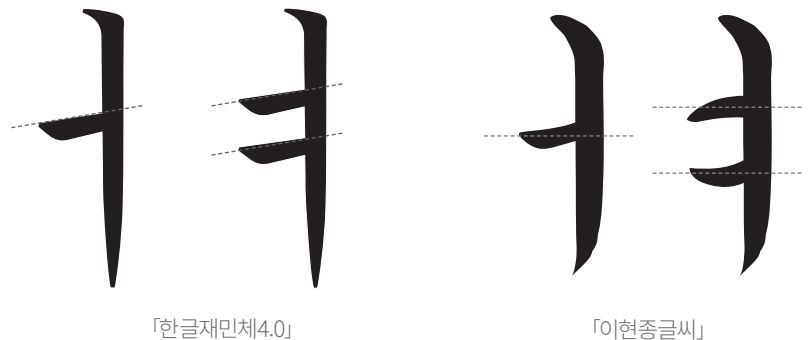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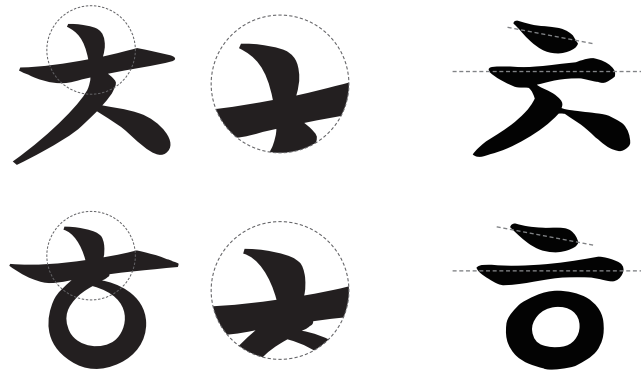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ㅈ, ㅎ의 점

자음 'ㅈ', 'ㅎ'의 점에서도 특징을 볼 수 있다. 궁체의 점은 가볍게 대서 오른쪽 아래로 누르며 점을 찍어준 후 간격을 두고 가로획을 그어 준다.

한글재민체는 세로획의 기필 각도(5°)와 같이 운필運筆하여 점을 찍고 수직으로 내려그으며 가로획과 접필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ㄴ, ㄷ의 짧은 세로획

한글재민체의 'ㄴ'에서의 짧은 세로획은 자음의 가운데에서 시작해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치우친다. 궁체에서는 짧은 세로획이 자음의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수직垂直으로 내려온다. 한글재민체의 'ㄷ'는 앞의 짧은 세로획은 곧게 내려오고, 뒤에 짧은 세로획은 곧게 시작하여 왼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온다. 궁체의 'ㄷ'는 왼쪽 짧은 세로획과 오른쪽 짧은 세로획의 방향이 같고, 오른쪽 획이 왼쪽 획보다 조금 위에서 시작하여 내려온다.

한글재민체의 'ㄴ', 'ㄷ', 'ㄹ', 'ㅌ'는 예외로 짧은 세로획의 시작이 자음의 가운데가 아닌 자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이어져 모음으로 연결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예외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자음자音

자음 ㄱ

한글재민체와 궁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획이 꺾이는 부분이다. 한글재민체는 절법折法으로 각지게 표현하고, 궁체는 전법轉法으로 둥글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글재민체 자음 ‘ㄱ’은 모음 ‘ㅏ, ㅑ, ㅓ, ㅕ, ㅣ’ 그리고 모음 ‘ㅜ, ㅠ, ㅡ, ㅝ, ㅡ’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초성 ‘ㄱ’은 가로획의 기필 부분과 같은 각도로 시작하여 약간 올라가는 획으로 절折을 한다.

모음 ‘ㅏ, ㅑ, ㅓ, ㅕ, ㅣ’가 오는 경우 중봉中鋒으로 45°로 비스듬히 내려긋고, 모음 ‘ㅜ, ㅠ, ㅡ, ㅝ, ㅡ’의 경우 방方획으로 비스듬히 내려긋는다.

받침 ‘ㄱ’은 가로획의 기필 각도와 같이하여 중봉 획으로 행필하다가 절을 하여 중봉으로 받듯이 내려그어 현침으로 거둔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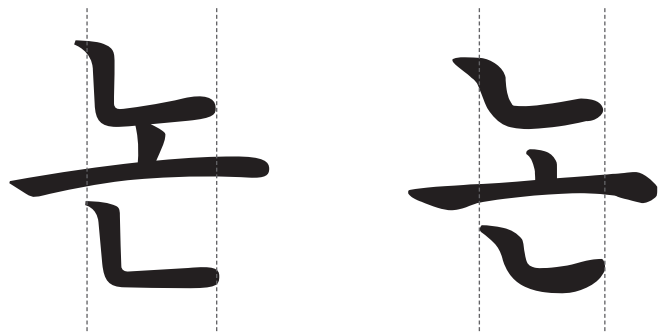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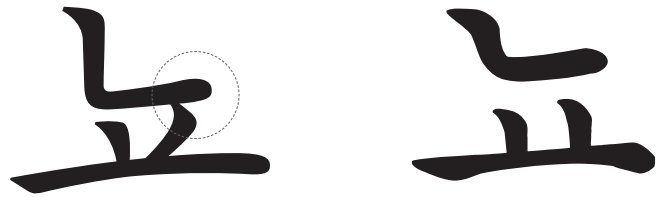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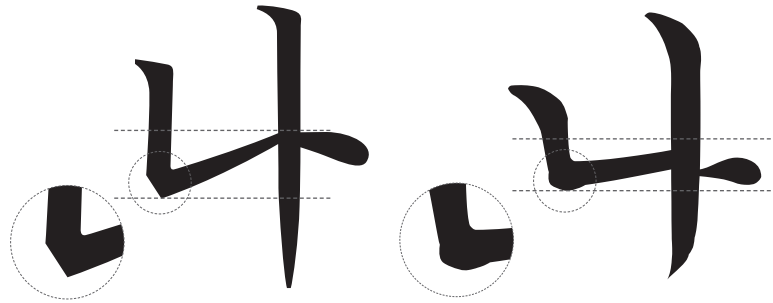
‘ㄴ’은 모음과 만나는 아래 획의 방향이 궁체보다 위로 향해있다. 첫 획을 하고 꺾이는 부분에서 궁체는 전轉을 하여 부드럽게 꺾어주고, 한글재민체는 절折을하여 날카롭게 꺾어운필運筆한다.

한글재민체 자음 ‘ㄴ’은 모음 ‘ㅏ, ㅑ, ㅓ, ㅕ, ㅣ’ 그리고 모음 ‘ㅜ(4.한글재민체와 궁체정자의 점點 참조), ㅠ, ㅓ, ㅕ, ㅡ’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모음 ‘ㅏ, ㅑ, ㅓ, ㅕ, ㅣ’의 경우 세로획의 기필 각도(5°) 같이 하여 반듯하게 내려긋고 절折을 하여 방方획으로 오른쪽 모음을 향해 비스듬히 올려붙인다.

모음 ‘ㅜ, ㅠ, ㅓ, ㅕ, ㅡ’의 경우 세로획과 같은 크기로 하여 원필로 거두어들인다.

종성終聲 ‘ㄴ’은 초성 ‘ㄴ’과 같은 모양으로 사용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ㄷ, ㄹ

자음 ‘ㄷ’에서의 특징은 ‘더’를 쓸 때 나타나는 데, 궁체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이 있지만 한글재민체에서는 ‘다’를 쓸 때와 같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 간격 없이 접필한다.

또, 아래 ‘ㄴ’부분을 운필運筆할 때는 궁체처럼 가로획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획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받침 ‘ㄷ, ㄹ’은 초성 ‘ㄷ, ㄹ’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낸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ㅁ

자음 ‘ㅁ’의 특징은 첫 세로획을 운필한 후에 ‘ㄱ’을 쓸 때 볼 수 있는데 획의 안쪽 면은 한글재민체와 궁체 모두 수직 획으로 곧게 운필하지만, 획의 바깥쪽 면을 보면 궁체는 안쪽 면과 같게 거의 수직 획으로 내려오지만, 한글재민체는 사선으로 좁아지면서 내려오는 자형이다.

‘ㅁ’의 모양은 모든 모음과 합쳐질 때 똑같은 형태이고, 받침도 같은 모양으로 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ㅂ, ㅃ

자음 'ㅂ'에서는 세로획과 가로획이 만나는 부분에서 얼마나 간격을 두고 쓰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궁체는 위쪽에 위치한 가로획은 점을 찍듯 써서 세로획과 사이에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고, 한글재민체는 시작 부분을 점이 아닌 획을 쓰듯 써 세로획과 붙여서 쓴다. 또한, 'ㅃ' 한글재민체는 가운데 획을 하나로 하여 'ㅂ' 두 개를 하나로 겹친 'ㅃ'자형이지만, 궁체는 'ㅂ' 두 개를 각각 간격을 두고 나타낸 자형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ㅅ, ㅆ, ㅈ

자음 'ㅅ, ㅆ, ㅈ'은 모음과 자음의 결합이 없기 위해 모음 'ㅏ, ㅑ, ㅓ, ㅕ, ㅣ' 그리고 'ㅑ, ㅓ, ㅕ, ㅗ, ㅛ, ㅜ, ㅠ'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모음 'ㅏ, ㅑ, ㅓ, ㅕ, ㅣ'의 경우 45° 측봉으로 내리긋고 1/2 위치에 점을 찍지만, 모음 'ㅑ, ㅓ, ㅕ'의 경우 측봉으로 짧게 사향斜向으로 운필하고 1/3 위치에서 둥글게 내리그어 첫 번째 획의 수필收筆 위치와 나란히 수필한다. 한글재민체는 좌측으로 많이 꺾여 나가는 갈고리 모양을 띠고, 궁체는 세로획과 비슷하게 일자로 곧게 내려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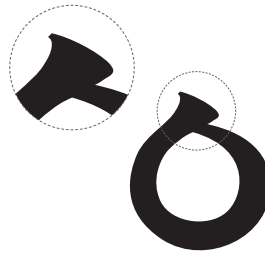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ㅀ

한글재민체의 'ㅇ'은 궁체 흘림체의 'ㅇ'의 시작 부분과 같이 점을 찍어 붓을 세워 둥글게 왼쪽 반원을 나타낸 후에 다시 시작점의 위치에서 밑으로 처지는 느낌으로 살짝 닿게 한 후 오른쪽 반원을 운필運筆한다. 초성, 종성으로 올 때 획형劃形이 모두 같다.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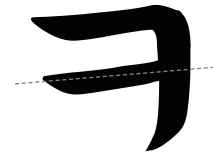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ㅋ

한글재민체의 'ㅋ'은 'ㄱ'을 쓴 후에 중간 획을 쓸 때 획의 길이와 각도가 특징이다. 궁체 'ㅋ'과 다르게 중간 획의 시작이 'ㄱ'의 시작 획보다 앞에서 시작하고 획의 각도가 평행이 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획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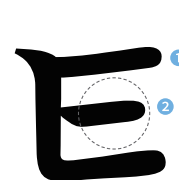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ㅌ

'ㅌ'은 궁체에서 첫 획을 운필運筆한 후에 간격을 두고 'ㄷ'을 쓰지만 한글재민체는 'ㄷ'을 먼저 쓴 다음 'ㄷ'의 안쪽 가운데에 가로획을 써서 'ㅌ'을 완성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ㅍ

궁체 ‘ㅍ’은 두 세로획을 곧게 수직으로 내려 마지막 가로획과 닿지만, 한글재민체는 왼쪽 세로획의 운필運筆 방향을 우측으로 점을 찍듯 짧고 뾰족하게 내려 마지막 획과 닿지 않게 쓰고, 오른쪽 세로획은 첫 획에 붓을 대고 시작하여 각도가 좌측으로 향하며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ㅎ

‘ㅎ’은 머리 부분과 ‘ㅇ’의 간격을 보면 궁체와 다르게 나타났다.

궁체는 머리 부분의 ㄴ과 一사이, 一와 ㅇ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쓰고, 한글재민체는 머리 부분과 ‘ㅇ’을 붙여서 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붓글씨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等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等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한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命名하고 새로운 한글서체의 정의定義 및 명칭名稱의 기원起源을 공식적公式的인 기록記錄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특허청特許廳에 상표명商標名 「관공체官公體」를 2022년 9월 22일 상표출원[상표출원(국제등록) 번호: 4020220174282]하였으며, 상표명 「관공체」가 2024년 2월 13일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되었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관공체官公體 한글 107자 낱자 33자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再解釋 디지털 폰트이다.

한글서체韓契書體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체인 정음체正音體와 훈민정음 언해본체인 정자체正字體 그리고 흘림체가 있다. 정자체에는 민체정자民體正字와 관공체官公體 그리고 궁체정자宮體正字가 있으며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이 있다고 2023년 5월 5일 출간出刊한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에서 밝힌 바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민중民衆 각자各자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서체를 민체라 정의定義하였다. 또한 여러 학자(한재영, 박병천 등)와 논의 후, 필획筆劃의 연결이 있는 흘려 쓴 서체를 흘림체라 정의定義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공문식公文式』 제14조에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문을 부역附譯하거나 혹은 한

문을 혼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894년 11월 『공문식公文式』이 순한문純漢文으로 작성되었지만,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에 국문을 사용하도록 천명하였다. 그 뒤 1895년 5월 8일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공문식』 제9조에 재천명再闡明 함으로써 드디어 한글 창제 이후 국문國文이 우리나라 대표代表 문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국문은 외래어 표기, 관원 시험 국문 규정, 법률 및 명령, 『관보官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드디어 대표 문자로 공인되었다.

1446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되고 448년이 지난 1894년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기甲午改革期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이 발표되고부터 1910년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 간(1894~1910년)이 훈민정음이 나라의 문자라는 국문國文의 지위를 갖게 된 한글의 부흥기復興期 국문시대國文時代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체로부터 꾸준히 자형이 변모하여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1894~1910년)에 꽃을 피워 관공체官公體가 되는 과정過程을 조망하고자 필자 박재갑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부터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3년 계묘년癸卯年까지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 총 32종류를 임서臨書하고 『한글재민체 소고』에 게재掲載한 바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이 책에서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이외의 다른 다양한 문서文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를 찾아보기 위하여 국문시대國文時代に 작성된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256자, 88 낱자(287쪽 참조)를 정리하였다.

관공체官公體가 사용된 개화기開化期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어교과서의 국문서체國文書體와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國語文法』 육필본肉筆本 글꼴 원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한 주시경체周時經體 및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내 별첨別添된 주시경 『국문연구國文研究』의 국문서체를 소개하였다.

한글시대韓契時代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의 한글서체韓契書體를 소개하고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의 한글서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의 한글서체도 소개하였다.

김충현金忠顯의 우리글씨 쓰는 법에 관한 글과 함께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고,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열 분의 한글 서체본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崔正浩를 소개하였다.

필자들이 확보한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다양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은 주로 미려美麗한 궁체宮體에 관한 서적書籍이지만,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와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정음체正音體와 민체民體 관련 서적書籍도 늘었다. 그러나 관공체官公體와 관련된 기록이나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공체官公體의 디지털 폰트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 그리고 궁체정자宮體正字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결구법結構法을 궁체정자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제는 정음체正音體, 궁체宮體, 민체民體와 더불어,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도 애용愛用되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의 훈포장勳褒章이나 인사발령장人事發令狀 등 격조格調 높고 단정端正한 서체書體를 필요로 하는 각종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의 사자寫字 시時에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가 널리 활용活用以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부록 1. 도판圖版 목록目錄

순번	제목
도판 1-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도판 3-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도판 3-2	「의안議案」, 1894년 7월 8일
도판 3-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도판 3-4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도판 3-5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도판 3-6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도판 3-7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쪽
도판 3-8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 b쪽
도판 3-9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도판 3-10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도판 4-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도판 4-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도판 4-3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도판 4-4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도판 4-5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순번	제목
도판 4-6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 b쪽
도판 4-7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 b / 001b_001 / 002a / 003a쪽
도판 4-8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 b / 005a, b / 006a / 007a쪽
도판 4-9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 b쪽
도판 4-10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001a, b쪽
도판 4-11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 b / 017a, b쪽
도판 4-12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033a, b / 034a, b / 035a쪽
도판 4-13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9,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 / 017a, b쪽
도판 4-14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 b쪽
도판 4-15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도판 4-16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102, 1907년 8월 27일
도판 4-17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도판 5-1	호머 할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2	호머 할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1쪽, 2쪽
도판 5-3	유로바디도 / 호머 할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4	아시아디도 / 호머 할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5	북아메리카디도 北亞米利加 / 호머 할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순번	제목
도판 5-6	남아메리카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7	아프리카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8	오스드렐라태평양섬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9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도판 5-10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도판 5-11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12쪽
도판 5-12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3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4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서, 일쪽
도판 5-15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서, 이쪽
도판 5-16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이쪽
도판 5-17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년, 26, 31쪽
도판 5-18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政府印刷局印刷, 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1쪽, 3쪽, 6쪽, 7쪽
도판 5-19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5~8, 26, 52쪽
도판 5-20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1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순번	제목
도판 5-22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용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緒言 一, 緒言 二
도판 5-23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4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6쪽
도판 5-25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7~12쪽
도판 5-26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18쪽
도판 5-27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9~24쪽
도판 5-28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25~30쪽
도판 5-29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1~36쪽
도판 5-30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7~42쪽
도판 5-31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3~48쪽
도판 5-32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9쪽, 51~55쪽
도판 5-33	헌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56~61쪽
도판 5-34	周時經, 『國語文法 全』,博文書館, 京城, 1910년
도판 5-35	周時經, 『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융희隆熙3년(1909) 7월
도판 5-36	『국어문법國語文法』, 118쪽 내용 중 일부를 「EBS주시경체」 로 옮기다
도판 6-1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1909년, 1쪽
도판 6-2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002쪽
도판 6-3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003쪽
도판 6-4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103쪽

순번	제목
도판 6-5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년, 0104쪽
도판 7-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쪽
도판 7-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1, 2, 5, 8, 11, 14, 18, 24쪽
도판 7-3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29, 33, 36, 40, 42, 45, 49, 52쪽
도판 7-4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ㄱ쪽
도판 7-5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ㄴ쪽
도판 7-6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9, 11, 14, 15, 21, 22쪽
도판 7-7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21, 25, 29, 31, 32, 43쪽
도판 7-8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0, 13, 15, 16, 23, 24쪽
도판 7-9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일러두기 1, 2쪽, 속판 1쪽
도판 7-10	이운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3쪽
도판 7-11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4, 5, 11, 34쪽
도판 8-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4쪽
도판 8-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8쪽
도판 8-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9~12쪽
도판 8-4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3~16쪽
도판 8-5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7~20쪽
도판 8-6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1, 22, 24, 25쪽
도판 8-7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6~29쪽

순번	제목
도판 8-8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0~33쪽
도판 8-9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4~37쪽
도판 8-10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8, 40, 43, 44쪽
도판 8-1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45, 46, 48, 49쪽
도판 8-1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1~54쪽
도판 8-1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5~58쪽
도판 8-14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0쪽
도판 8-15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1~24쪽
도판 8-16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5, 26, 39, 40쪽
도판 8-17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41~44쪽
도판 8-18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9~12쪽
도판 8-19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3, 14쪽
도판 8-2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4쪽
도판 8-21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8쪽
도판 8-2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9, 10쪽
도판 8-2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순번	제목
도판 8-2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2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26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27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2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2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3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3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32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15쪽
도판 8-3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14쪽
도판 9-1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b면
도판 9-2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1a, b면
도판 10-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7쪽
도판 10-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 2, 20, 30, 45쪽
도판 11-1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순번	제목
도판 11-2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도판 11-3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4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5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6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년 9월 5일
도판 11-7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년 10월 28일
도판 11-8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년 10월 30일
도판 11-9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1954년 4월 5일
도판 11-10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1955년 10월 30일
도판 11-11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도판 11-12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4월 10일
도판 12-1	「옥원중회연」(좌)과 「대한의원개원칙서」(우)에서 선택한 글자들의 비교
도판 12-2	한글재민체의 주요 특징과 개념적 표현
도판 12-3	개원칙서 원본의 자소를 이원화한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4	개원칙서 원본 자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5	폰트랩스튜디오5를 활용한 폰트 제작 과정

부록 2. 표表 목록目錄

순번	제목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표 2-1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자형字形 비교比較

부록 3. 참고參考 문헌文獻

머리말 4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5~6쪽

제1장 개요 12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 관공체官公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Kdcd=79&ccbakAsno=04490000&ccbakCtcd=11&pageNo=1_1_1_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2;22:319~330.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진황가陳鳳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방직(주)회사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2023;456:74~76.

-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 박재갑, 김민, 이규선, 진황가, 김지영, 『한글재민체4.0』, 폰코font.co.kr/collection/sub?family_idx=10658, 2023. 5. 25.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40쪽

- 金炳基, 『書藝, 基本用語의 意味明瞭化試論-活動(金翅劈海, 香象渡河), 字體, 書體, 筆體, 書風에 대한 辨釋』, 中國學論叢, 201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95~96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7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3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제2장 한글의 발명과 한글 변천의 시대 구분 18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2~44쪽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8~50쪽

- 정광, 「최만리의 언문 반대 상소와 세종의 批答 -“四聲, 七音, 字母有幾乎?”를 중심으로』, 『譯學과 譯學書』, 2023;10~12:5~44.

- 정광, 「심약선생의 <혁신국어학사>로 본 한글 창제 -고대인도 음성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2023;25:143~185.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50~52쪽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52~56쪽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파주, 2022년, 476~479쪽

-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63~68쪽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박용규, 『우리말 ·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 역사공간, 서울, 2023년, 4쪽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二】』, 『동아일보』, 1932. 10. 30.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三】』, 『동아일보』, 1932. 11. 1.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四】』, 『동아일보』, 1932. 11. 2.

-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편, 『한미 이윤재 글모음』, 도서출판 선인, 서울, 2016년, 554~557쪽

- 브나로드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

E0025066

- 鄭百秀, 『한국근대의 植民地體驗과 二重言語文學』, 아시아문화사, 2000년, 16, 17쪽
- 金成俊,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景仁文化社, 2010년, 109~112쪽
- 野間秀樹, 『ハングルの誕生』, 新版, 平凡社, 東京, 2021년, p308
-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베게, 파주, 2020년, 334쪽
- 박영순, 『한국어 세계화,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 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2020;2020:1~8.
- (훈민정음학회)이호영, 황효성, 아비딘, 『바하사 찌아찌아』, 한국학술정보, 파주, 2009.
- 박의래, 「한글 도입 15년 인니 찌아찌아족…"전통언어 보존위한 특별 도구"」, 『연합뉴스』, 2023. 12. 20.

제3장 국문의 새로운 용도 규정(1894년, 1895년) …………… 32

- 『大典通編>戶典>徵債>[私債成文諺文]』,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시대법령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37-42쪽
- 尹炳喜, 『兪吉濬研究』, 國學資料院, 서울, 1998년, 2015년, 7쪽
- 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5년, 17쪽
- 황위주黃渭周,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企劃 主體, 嶺南學, 2023;85: 285~321.
- 황위주黃渭周, 개인 교신, 2024. 1. 24.
-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5248_00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469&cid=46623&categoryId=46623
- 「의인議案」, 1894년 7월 8일,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46-47쪽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8일 임오 4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원본】 36책 32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499면,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5-126쪽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199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기사 2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b/015a,b/016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b쪽,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244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3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8일 무인 4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원본】 37책 3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3면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장 국문시대 국서, 주본, 주의, 의주, 칙령, 내부내거문, 관급증서, 서순행일기의 관공체(1894~1909년) …………… 48

-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7~128쪽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9~130쪽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3_00&vol_no=0001
-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b/001b_001/002a/003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제 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b/005a,b/006a/007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 1895년 3월 25일, 001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7호,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b/017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033a,b/034a,b/035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9,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b/015a,b/016a,b/017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19
- 칙령勅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소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94_00&vol_no=0001
- 자료 제공 : 황상익, 2024. 1. 16.
-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2009년, 2019년, 42쪽, 43쪽
- 「대한국기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 102, 1907년 8월 27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0. 3. 2.
- 「1907년 대황제폐하즉위예식기념장」,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dir/view?datald=JSG_RD00102
- 「서순행일기」, 자료 출처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27.2×19.0cm / 필사본(筆寫本) / 선장(線裝), 1冊 133張 / 종이 / 국한문혼용, 청구기호: K2-222, 기록시기: 1909년(隆熙 3) 以後,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 『서순행西巡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http://waks.aks.ac.kr/>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39~140쪽

제5장 국문시대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1894~1910년)의 국문서체 104

- 『2012년 가을 문턱에 편역자 일동, 총서(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발간사에서』,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5, 6쪽

- 양정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경진출판, 2021., mykyungjin.tistory.com/91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사민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 리봉운, 리구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년

-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舖, 경성京城, 1908년

-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전大韓文典全』, 응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 현채玄采, 『신산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政府印刷局印, 鉛活字本, 1909년

- 周時經, 『國語文法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 김동진,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 『허버트의 꿈 조 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81~92쪽

- 『사민필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620

- Hulbert, Homer B., 국립중앙도서관 isni KOREA, www.nl.go.kr/isni/0000000081141905

-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 유임하 편역, 『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 구자항 편역, 『신정심상소학(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 『국문정리』, 조광국(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38_00¬es=basic

- 이중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년, 316쪽

- 박치범, 박수빈 편역, 『초등소학(상)(국민교육회 저)』,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김혜련, 장영미 편역,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상)(학부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이승윤, 김준현 편역, 『최신초등소학(정인호 편술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36459

- 조윤정 편역, 『노동야학독본(유길준 저술 및 발행)』, 도서출판 경진, 2012년, 8쪽

-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ld=0200&levelld=tg_004_0240&ganada=&pageUnit=10

- 『대한문헌大韓文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4999

- 박민영, 최석재 편역, 『신찬초등소학(현재 저작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국어문법國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 『EBS주시경체』, 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eong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1909년)의 국문서체 …………… 140

-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11, 12쪽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년, 1982년, 58쪽

-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24, 25쪽

제7장 한글시대 한글교과서(1911~1939년)의 한글서체 …………… 146

-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 최헌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 『朝鮮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 『말의소리-한글학회』, hangeul.or.kr/homepage/custom/talksound

- 『말의소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7831

- 석인본石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cid=46669&docId=574798&categoryId=46669

- 『중등 조선 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9263

- 신하영,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한박웃음」, 제96호, 2021. 8. www.hangeul.go.kr/webzine/202108/sub1_2.html

제8장 한글시대 보통학교 습자첩(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 …………… 158

-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년

- 김지영, 개인 교신, 2023. 10. 22.

제9장 고종실록의 한글서체 …………… 192

- 이원순,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3942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010b, 011a, 011b면,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제10장 전국 초기 한글교과서(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 …… 198

-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교육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 『한글 첫걸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2627&cid=58156&categoryId=58156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 200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 200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5쪽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6쪽

- 김충현, 『한글과 공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290&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7~8쪽

- 김충현, 『한글과 공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id=CNTS-00065285375&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8~9쪽

- 김충현, 『한글과 공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45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9쪽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10~13쪽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 205

2-1. 『언문테첩』(1917년) …… 205

-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

-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1948-1997년) …… 205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

-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

-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서울, 1954.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오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경원,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삼』,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이철경, 『중학교 글씨본 3』, 우중사, 서울, 1958.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⑥』,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이철경, 『초등글씨본(전 3 권)』,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④』, 대도문화사, 서울, 1961.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5.6』, 문교부, 서울, 1976.

- 이철경, 『중학글씨본』, 우중사,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2-3. 초등, 중등 미술과 글씨본과 서예(1949~2023년) 206

-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년, 1~24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년, 1~28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창사, 서울, 1957년, 1~30쪽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년, 1~30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창사, 서울, 1959년, 1~30쪽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년, 1~132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판본체 쓰기』, 『중학교 미술 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년, 74~79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서체 쓰기』, 『중학교 미술 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년, 72~77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붓과 먹으로 표현하기』,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5쇄 2022년, 40~43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우리 글씨 판본체』,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4쇄 2021년, 36~41쪽

- 김선아, 안금희, 장지선, 윤영섭, 심효진, 박솔기, 지가혜, 이은선, 『점과 획의 조화, 서예』, 『중학교 미술 1』,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8년, 3쇄 2023년, 92~97쪽

- 서예식, 고정곤, 김기나, 김기태, 김도홍, 김정령, 도병훈, 박형정, 손동호 오일환, 윤여준, 윤정은, 이다정, 이민선, 이성원, 이정원, 이창식, 이혜우 임종삼, 전용각, 정문영, 정순희, 정홍순, 하지영, 『문자, 아름다움을 두드리다』, 『중학교 미술 1』, 해냄에듀, 서울, 2018년, 58, 59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아름다운 우리 글씨, 궁체』, 『초등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70~73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마음을 담은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26, 27쪽

- 정선화, 송혜원, 정현화, 홍원표, 이지영, 김이경, 한승연, 나두리, 『아름다운 우리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미술과생활, 서울,

초판 2019년, 5쇄 2023년, 36~43쪽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1948~2023년) 207

- 宋寅淳, 『理論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教育社, 서울, 1970.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환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 - 한글기초이론.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金忠顯, 『김충현 쓴 일중 한글서예』, 視聽覺教育社, 서울, 1978., 1995.

- 김종각, 『한글 궁체기초필법』,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89.

- 김응현, 『보한재 신숙주선생 한글창제사적비』, 정문출판사, 서울, 1990.

- 조용선, 『한글서예』, 미술문화원, 서울, 1991.

- 金膺顯, 『東方書範 (卷一) 正音(國文) (板本體,宮體)』, 東方硏書會, 서울, 1993.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김종각, 『모범 한글서예』,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조용선, 『봉서: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7.

- (역주)의랑 이현중, 『덩미가레시일기』, 대신당필방, 서울, 1998.

- 이화문화출판사(편), 『옥원동회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정주상, 『서예교실 한글서예 문장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조용선, 『항니도 · 사성녹 · 품목: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가사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흘림체 가사집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고전 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배우는 법과 가르치는 법』,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성자, 『농가월령가, 옥누연가: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신명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레위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민수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출애굽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령, 『전통 새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령, 『한국시조 500선 현대시조편: 궁체(정자·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1.
- 정주상, 『한글궁체(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2.
- 한상봉, 『(역주) 태상감응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2.
- 조성자, 『(역주) 낙성비몽』,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3.
- 여태명, 『한글 서예판본 조용전: 완판본』, 인사동문화, 2003.
- 조용선, 『일찰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조종숙(염은이), 『우리글 서체를 찾아서』,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2021.
- 지남례, 『궁체시조선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천갑령, 『시조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해오름한글서회, 『女四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한국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6.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근순, 홍영순, 『남창별곡』,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07., 2022.
- 윤병두, 『한글서예』, 도서출판 채운재, 서울, 2007.
- 이기대,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상』,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하』,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조용선, 『옥원동회연: 역주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김만중, 『(역주) 구운몽』,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8.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근순, 홍영순, 『백발가취몽록』,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신영길 (역주), 이현중, 이화자, 박정숙, 윤근순, 윤미한, 이민재, 이정옥 (궁체움김), 『한양가519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白岳美術館, 서울, 2009.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십이봉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9.
- 한양근, 『체계적 한글서예 교본』, 도서출판 우람, 서울, 2009, 2022.
- 서정수, 임인선, 『(역주) 완월회맹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지남례, 『(역주) 남계연담』,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김연중, 『우리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1.
- 이석표, 이영순, 차부자, 『(역주) 인봉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조주연, 『(역주) 후수호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허준,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백경자, 『정사기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석보상절, 제6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석보, 권1』,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천강지곡 상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훈민정음 해례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김충현, 『일중 김충현: 한글서예』, 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13.
- 김종태, 『서법교본 한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3.
- 내일한자연구회, 『기초서예교본』, 매일출판, 서울, 2013.
- 조주연 옮김, 『금강산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3., 2020.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송강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4.
- 성무빈, 『정통 한글서예』, 도서출판 매일, 서울, 2014.
- 심현섭, 『글씨는 아름답다』, 도서출판 박실현, 고양, 2014.
- 이현중, 『붓 한글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궁체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판본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나만갑, 『(역주) 산성일기: 정자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나만갑, 『(역주) 산성일기: 흘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문동호, 『한글서예기법과 실제: 궁체 판본체』, 법문 북스, 서울, 2015.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농가월령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윤호삼, 『순수한 우리말로 엮은 대울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윤호삼, 『대을 윤호삼 쓴 한글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임현순, 조주연, 홍성란(옮김), 『이춘풍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장성연, 『書藝技法實技1』,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장혜자(엮은이), 『규간자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한국학자료원 편집부, 『한글書藝敎本』,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해오름한글서회, 조성자, 『쓰기 쉬운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2020.
- 오동섭, 『10서체 반야바라밀다심경 5권, 9판본체, 10흘림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이미경, 『꽃들 이미경 쓴 한글서예』, 학원문화사, 서울, 2016.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홍성란, 임현순, 조주연 옮김, 『부인치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6.
- 강민석, 『모정 강민석 쓴 한글어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7.
- 유혜경, 『(목향 담은) 한글서예: 한글서예작품집』,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정주환, 『고급 한글서예 정법』, 법문 북스, 서울, 2017.
- 조성자, 『궁동발기(궁중발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조주연 옮김, 『몽화가 · 토골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김경순,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리동규, 『한글서예: 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18.
- 정복동, 『월인천강지곡 상』, 이아임북, 하남, 2018.
- 정주상, 『한글서예(문장)』,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정자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흘림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지성룡, 『正史紀覽정사기람』, 도서출판 고연, 시흥,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공체 정자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공체 흘림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날말공체 흘림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함민숙, 『한글서예』, 센스토리, 서울, 2018.
- 구자승 · 서복희 · 홍영순, 『토싱전(토생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국립한글박물관, 『공주 글씨 덕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고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인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서예』, 당신의 서재, 서울, 2019.
- 조주연, 임현순, 홍성란(옮김), 『해몽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9.
- 김정희, 『우보 김정희 쓴 궁체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김진태, 『월당 김진태 쓴 한글판본체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박정숙, 『이진사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0.
- 이헌중, 김정묵, 이기훈, 이혜경, 박숙희, 김선숙, 박경희, 오승연, 『새겨읽은 규합총서-권지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정광옥, 『한글공체 길잡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허경무, 『허경무 쓴 국 · 한 서예교본 시리즈 1-20』, 한예술사, 부산, 2020.
- 리동규, 『정석 한글서예(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21.
- 이화자,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장성연, 『한글 서예』, 한국학자료원, 서울, 2021.
- 정통한글서예교실, 『정통한글서예』, 매일출판, 서울, 2021.
- 주영갑, 『이목 주영갑 쓴 한글서예 판본체』, 도서출판 고륜, 2021.
- 천갑녕, 『자연과의 대화』,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정자 · 고문 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고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판본체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옛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宋炳德,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22.
- 송병덕, 『최신 한글판본체』, 한국영상문화사/태평양저널, 서울, 2022., 2023.
- 윤영조, 『구암 윤영조 쓴 한글공체』, 도서출판 고륜, 서울, 2022.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갑녕, 『3서체(공체 · 조화체 · 고체)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봉근, 『청강인체교본』, 도서출판 한글, 2022.
- 김영기, 『신명학의 뿌리 서예교본 (기초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김진태, 『기초부터 완성까지 월당김진태 쓴 한글판본체교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서정수, 조주연, 차부자, 홍성란(편역), 『옥원종회연 작품명제 130선』,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3.

- 한국국학진흥원, 『내방가사: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만나다』, 한국국학진흥원, 2023.

- 한치선, 『가장 쉬운 독학 타타오 서예 첫걸음』, 동양북스, 서울, 2023.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2009-2011년) 210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일봉 김충현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 김충현金忠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1846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평보 서희환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 서희환徐喜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8324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원곡 김기승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 김기승金基昇, 두산백과,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1655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갈물 이철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8.

- 갈물 이철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galmul/profile/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꽃들 이미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 꽃들 이미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flower/profile/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규당 조종숙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한글서예 2020년, 조종숙 구술기록, 2020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디지털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archives/inhouse/oral/267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의당 이현중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정태수, 『의당 이현중: 궁체에 사랑을 담은 40년 서예의 길』, 『월간 서예 문화』, 2012년 7월호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아람 이한순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세종기념사업회, 현대한국대표서예가한글글씨본(아람 이한순), 2011.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난정 이지연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장운진, 『난정 이지연: 궁체의 신경지를 개척한 현시대의 신사임당』, 『위를 리피플』, 683호, 2010. 6. 14.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한궁 현병찬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김문기, 『현병찬 선생 한글 판본체 개발』, 『제주일보』, 2011. 4. 13., 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321

4. 최정호,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213

- 『최정호 - 한글 글꼴 디자이너 1세대』, 『디자이너 열전』, 노은유,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entry.naver?cid=58790&docId=3577782&categoryId=58790

- 『최정호,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한글의 큰 스승』,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240-263쪽

제12장 한글재민체 214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 정상혁, 『한글 글꼴 만든 癩 박사 “순종 황제 칙서의 단어함에 반했죠”』, 『조선일보』, 2020. 10. 7.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19~330.

- 하철용, 개인 교신

- 박갑수, 개인 교신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 진황가陳鳳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2023;456:74~76.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40쪽
-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 김미애, 김민, 『국제음성기호 표기를 위한 한글 형태 연구 -한글 신자소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23;24:19~32.
- 이영관, 「‘P’와 ‘F’ 구분하는 글꼴 만든 교수들」, 『조선일보』, 2023. 10. 9.
- 이순녀, 「한글 풀어쓰기 ‘재민체5.0’ 개발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이순녀의 이사람] “소수민족 등 세계 모든 언어 발음… 한글 풀어쓰기로 표기 가능해요”/논설위원」, 『서울신문』, 2023. 10. 26.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1.
- 이규선, 개인 교신, 2023. 9. 4.
- 이정자,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서예학연구, 2015;27:284~323.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8.
- 박성훈 · 정우권, 「폰트 제작 톨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 8. 10., typographyseoul.com/%ed%8f%b0%ed%8a%b8-

%ec%a0%9c%ec%9e%91-%ed%88%b4%ea%b3%bc-%eb%94%94%ec%9e%90%ec%9d%b4%eb%84%88/

- 2019년 연구보고,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 디지털 글꼴 산업을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 2019.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328.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임광규, 개인 교신, 2024. 2. 20.

제13장 한글재민체 결구법 256

- 김선숙, 박병천, 이현정, 손신진, 김복희, 장광순, 정재두, 장혜자, 개인 교신, 2023년 9월 ~ 2024년 2월

맺음말 268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부록 4. 기증寄贈 받은 참고參考 문헌文獻

부록 4-1. 홍윤표洪允杓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교수,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2023년 2월 27일

- 한글 문헌 자료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등 1,795 종류
- 서예사 자료 『홍무정운역훈』, 1455년, 등 327 종류
- 궁체 자료 『어제경세문답』, 1762년, 등 474 종류
- 민체 자료 『심청전』, 1894년, 등 625 종류
- 조선시대 한글면지 『순명효황후 언간』, 1902년, 등 595 종류

2023년 12월 6일

- 周時經, 『國文研究』, 學部, 漢城, 1907.
-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編,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보고서 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1909.
- 周時經, 『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翁熙隆熙3년(1909)

부록 4-2. 김동진金東珍

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미국 제이피모간은행 (전) 한국 회장

2023년 5월 19일

- 김동진, 『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라!』,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부록 4-3. 김현일金賢鎔

—中先生記念事業會 사무국장, 백악미술관 관장

2023년 7월 10일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서울, 1948.
-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서울, 1954.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7.
- 一中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教育社, 서울, 1970.

부록 4-4. 박병천朴炳千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전) 회장

2023년 7월 12일

- 劉漢翼, 『普通學交書徒用習字帖 卷二』, 朝鮮總督府, 1911.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習字帖 卷二』, 朝鮮總督府, 1913.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
-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서울, 1949.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宋寅淳, 『理論 · 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 (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한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한글기초이론 · 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5·6』, 문교부,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공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공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공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공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중학교 미술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중학교 미술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

부록 4-5. 김한영金漢榮

참빛아카이브 대표, 옛 책 연구자

2023년 7월 20일

- 大韓國民教育會, 『初等小學一』, 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

- 學部,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卷一』, 韓國政府印刷局印刷, 鉛活字本, 1907年 初版, 1908年 再版, 1909年 參版, 1909年 四版

- 鄭寅琥, 『最新初等小學 一』, 玉虎書林, 京城, 1908.

- 玄采, 『新撰初等小學 一』, 東美書市, 京城, 1909年 初刊, 1914年 再刊

-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習字帖 卷一』, 朝鮮總督府, 1913.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
-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
- 李源生, 『언문테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
-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

2023년 8월 7일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서울,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서울, 1948.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서울, 1948., 1949년 개정
-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서울, 1949., 1955년 개정7판.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
- 김경원,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에 삼』, 창인사, 서울, 1956.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2023년 11월 6일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
-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

-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
-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
-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
- 이운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
-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
- 문교부, 『초등글씨본 오학년소용』, 경상북도학무국, 1948.
-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

2024년 1월 22일

-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
-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
- 호머 헐버트 Homer B. Hulbert., 『사민필지사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초판 1891., 수정본 1906.
- 현채玄采, 『유년필독幼年必讀』, 휘문관徽文館, 경성京城, 1907.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舖, 경성京城, 1908.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하』, 광학서포廣學書舖, 경성京城, 1908.
-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
-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웅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

부록 4-6. 허유미許有美

서울은석초등학교 교사

2023년 8월 11일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 5쇄 2022.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 4쇄 2021.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옥, 김동완, 『초등 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 2쇄 2020.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옥, 김동완, 『초등 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 2쇄 2020.

느 든 며 붓 사 에 의 볼
누 되 만 붓 스 앓 을 켈
노 도 름 부 실 야 은 티 흠
나 데 를 리 신 아 으 터 흘
기 더 리 밀 시 썩 월 께 흐
과 다 를 미 스 션 화 치 흥
고 는 로 물 썩 세 을 지 히
게 는 란 무 사 새 온 읍 흠
갓 닉 라 못 배 드 오 잇 호
가 니 더 면 비 석 예 이 핫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
민으로부터나온다대한민국의국민이
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국가는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
할의무를진다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
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대한민국은통
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
를추진한다 홍길동 ◆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남산위에저소나무철갑을두른듯
바람서리불변함은우리기상일세
가을하늘공활한데높고구름없이
밝은달은우리가슴일편단심일세
이기사과이맘으로충성을다하여
피로우나즐거우나나라사랑하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대한사람
대한으로길이보전하세 홍길동 ◆

부록 7. 한글재민체 작품 作品

부록 7-1. 「어제계주운음 御製戒酒繪音」

어제계주운음

임금이계주운음내리기를 순후한성품의사람을광패하게만드는것이술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마음은본래선한지지만그것을공격하는것들이많은데술마치해치게해서야되겠는가사람이미워하는것중에악보다심한것이없고사람이두려워하는것중에적보다심한것이없다그런데그죄를스스로볼러들이고그악을스스로빚으니어찌어석하지않겠는가아신승씨가능사짓는법을가르쳐주시고수인씨가화식하는법을가르쳐주셨으니사람을봉양하는바가지국하고국진하다그런데어찌백성이하늘토여기는곡식으로사람을구려에빠뜨리는기를을삼을것인가고금에술로인해나라를망치고집안을망친에는남남이기특할수있다그런데도술로인해사람을상해하고사람을살해하여부형을위패를고육되게하는데이고도그것이인륜을망치고도의에어긋남으로귀결된다것을자각하지못한다아사람이세상에태어나서비록그도리를다해어버이를봉양하지는못할지라도어찌입과몸의욕구때문에그어버이를욕되게하는가하물며인생백년에질병과사고를찌하면남는날이얼마없거늘또판란의악물에방종하여그천성을해치고그자신을망치니어찌술프지아니한가더구나술을많이빚는폐해는재물을축내는테이르고술을즐기는해독은가산을기울게하는데이름에랴그것을금지하는방도는백성을다스리고가르치는임금에게있다그것이무에어려울까싶지만어려워하는이유가있다대우가비록술을켜음발명한의적을벌리하셨지만술을없애지는않으셨고성현이예를계정할때제사와향음에모두술을허락하셨다이것이술이없으면안되는이유이다지금육식의수확이크게부족하여모든불필요한비용들을이미저감한상황에서모든소비가이보다심한것이없다그러나따뜻히먼키명령을하고법은나중에따라야하겠기에먼키술을정계하는글을보이는것이더추후에술을많이빚는때대한금령을내릴것이다아그대대소신료들은나의이 뜻을깊이헤아려술을함부로마시지말고국사에마음을다하라아그대백성들은먼키스스로소요하지말지어다후어나집에서많은술을빚는다면어찌술길수가있겠으며장차금령을범한다면어찌법이없다하겠는가제사에쓰기위해먹고살기위해술을빚는것을금지하는않을것이다오호라비록옛사람이길삼을해서자식을가르치고자손들에게선행을물려준일을본받지는못할지라도이런광패한악물을빚어서나의무고한백성을구령에빠뜨리는자는자나라에서비록금지않더라도그것이어찌선행을쌓아후손에게물려주는도리에크게어긋나지않겠는가패부에서나온말이며글을쓰기위해하는말이아니니모름지기가슴깊이새겨서큰죄에빠지지말지어다 하엿다

영조철년서기일천칠백삼십이년일월이십육일
서기이천이십삼년일월재민박재갑쓰다

「어제계주운음 御製戒酒繪音」

작품 크기 : 130x70cm

《〈명사서예전〉,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3년

영조英祖 대왕께서는 술을 금지하는 윤음繪音을 여러 차례 내리셨다. 문헌 검색으로 찾은 영조 대왕의 네 종류(1732년, 1755년, 1757년, 1758년) 어제계주운음 중 1732년에 내린 윤음의 국역본(조선왕조실록)을 박갑수 교수와 한재훈 교수의 도움으로 다듬어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옮겨 적었다.

한글서체
한글서에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Park Jae-Gahb

김선숙 Kim Sun Sook

이규선 Lee Kyu Sun

김민 Kim Min

한글재민체연구회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ISBN 979-11-980056-6-3 (PDF)

비매품/무료

